

(재)부산문화재단 2023-010

부산 시각예술 활성화를 위한 기초 전략 수립 연구

부산 시각예술 활성화를 위한 기초 전략 수립 연구



비매품/무료
93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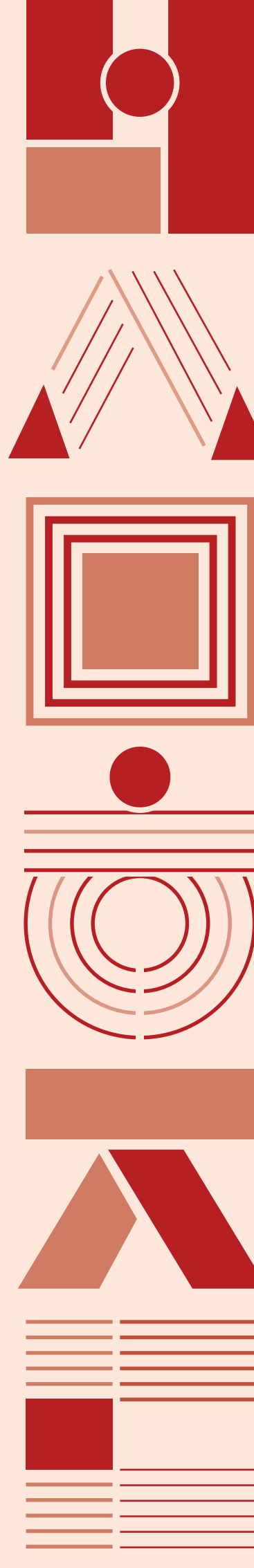
9 791197 639890
ISBN 979-11-976398-9-0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재)부산문화재단 2023-010

부산 시각예술 활성화를 위한 기초 전략 수립 연구



(재)부산문화재단 2023-010

부산 시각예술 활성화를 위한 기초 전략 수립 연구

2023년 7월

연구기획 부산문화재단 예술지원팀 · 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 원 향 미(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

공동연구 조 영 미(문화와 예술 다다 대표)
김 정 희(문화와 예술 다다 연구원)

연구보조 고 나 령(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지원 송 수 경(부산문화재단 예술지원팀장)
김 연 진(부산문화재단 예술지원팀 대리)

목 차

I. 연구개요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대상 및 방법	4
II. 시각예술분야 변화 동향 및 지원 사례	8
1. 시각예술분야 변화 동향	8
2. 시각예술 창작 활성화 지원사업 사례 조사	12
3. 시사점	56
III. 부산 시각예술 활성화 지원 전략 수립을 위한 여건 분석	62
1. 부산문화재단 시각예술 창작 지원사업 분석	62
2. 부산지역 시각예술분야 종사자 대상 표적집단면접조사(FGI) 결과	70
3. 시사점 및 종합분석	79
IV. 부산 시각예술 활성화 지원 전략	85
1. 부산 시각예술 활성화 지원을 위한 개선 방향	85
2. 부산 시각예술 활성화 지원 전략 개요	86
3. 부산 시각예술 활성화 지원 세부 추진 사업	88
4. 소요예산 및 연차별 추진 계획	100
참고문헌	102
부록	107

표 목 차

[표 1] 부산 시각예술활성화 기초 전략 수립 연구 FGI 참여자 명단	5
[표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분야 지원사업 영역 및 체계	12
[표 3] 예술경영지원센터 2023년 시각예술분야 지원사업 체계	19
[표 4] 2023년 서울문화재단 시각예술분야 주요 지원사업	27
[표 5] 2023년 경기문화재단 시각예술분야 주요 지원사업	29
[표 6] 2023년 인천문화재단 시각예술분야 주요 지원사업	31
[표 7] 2023년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시각예술분야 주요 지원사업	33
[표 8] 2023년 광주문화재단 시각예술분야 주요 지원사업	35
[표 9] 2023년 대전문화재단 시각예술분야 주요 지원사업	37
[표 10] 2023년 울산문화관광재단 시각예술분야 주요 지원사업	40
[표 11] 2023년 세종시문화재단 시각예술분야 주요 지원사업	41
[표 12] 2023년 강원문화재단 시각예술분야 주요 지원사업	42
[표 13] 2023년 충북문화재단 시각예술분야 주요 지원사업	43
[표 14] 2023년 충남문화관광재단 시각예술분야 주요 지원사업	46
[표 15] 2023년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시각예술분야 주요 지원사업	48
[표 16] 2023년 전라남도문화재단 시각예술분야 주요 지원사업	50
[표 17] 2023년 경북문화재단 시각예술분야 주요 지원사업	51
[표 18] 2023년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시각예술분야 주요 지원사업	53
[표 19] 2023년 제주문화예술재단 시각예술분야 주요 지원사업	54
[표 20] 부산문화재단 시각예술 분야 지원사업(2011~2022)	62
[표 21] 2023년도 부산문화재단 주요 예술지원사업 개요	66
[표 22] 2023년도 부산문화재단 시각예술 지원사업 주요 내용	66
[표 23] 창작단계별 부산문화재단 시각예술분야 지원사업 구분	69
[표 24] 부산 시각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전략 로드맵	87
[표 25] 기획자 대상 지원사업 개요	88
[표 26] 집중지원사업 - 올해의 포커스온 <시각예술> 운영 개요	89
[표 27] 공유 작업공간 시범 운영 사업 개요	91
[표 28] 민간 창작공간 임대료 지원 개요	93
[표 29] 창작준비활동 지원사업 개요	94
[표 30] 아트페어, 아트마켓, 비엔날레 참가 지원사업 개요	95
[표 31] 시각예술 매개인력 양성과정 사업 개요	96
[표 32] 대학 연계 산학 협력 융합예술 랩 운영 개요	97
[표 33] 청년예술가 유통 지원사업 확대 및 네트워크 운영 개요	99
[표 34] 부산 시각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전략 실천과제별 소요예산	100

그림 목 차

[그림 1] 2차, 5차 표적집단면접조사	5
[그림 2] 아트업서울 현장 방문 및 관계자 면담	6
[그림 3] 경기문화재단 관계자 면담	6
[그림 4] 데이비드 즈워너 온라인 뷰잉룸	9
[그림 5] 아트시 뷰잉룸	9
[그림 6] LG와 구겐하임 미술관의 아트&테크놀로지 협력 사례	11
[그림 7] BMW, 문화예술 후원 및 마케팅 활동 관련 기사	11
[그림 8] 예비전속작가제 지원 기획전 다이얼로그(Dialogue) [22년, 현대백화점 목동점]	26
[그림 9] 예술경영지원센터 ‘미술공유서비스’ 사이버전시관 최지원 (세 사람의 대화)	26
[그림 10] 작가 미술장터 지원사업 열여덟번째 장터 ‘예술산책4-아트슈퍼마켓’	26
[그림 11] 작가 미술장터 지원사업 열여덟번째 장터 ‘예술산책4-아트슈퍼마켓’	26
[그림 12] 아트페어 육성 지원 ‘더프리뷰 성수 with 신한카드’	26
[그림 13] 해외 아트페어 육성 지원 런던 델피나_단체전	26
[그림 14]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언폴드엑스 전시작품	28
[그림 15] 특성화지원 유망예술지원 선정 신민 개인전 ‘workers’	28
[그림 16] 경기예술지원사업 모든예술31 선정 예술인 송지형 전시회 fieldwork	30
[그림 17] 경기미술품활성화 사업(아트경기) 지원	30
[그림 18] 우리미술관 전시 공모 장우진 ‘파도가 머물던 자리’ 전시회	33
[그림 19] 트라이보울 초이스 선정작 ‘축적 새김 확장’	33
[그림 20] 땡큐아트플랜트 팀 <OPERATE>전	35
[그림 21] <라 코메디아-삶이 끝난 그곳> 전시 전경	35
[그림 22] 2023 광주시 청년작가 지원 이지원 작 <projection>	36
[그림 23] 2023 광주시 청년작가 지원 김지섭 작 <another life>	36
[그림 24] 대전청년작가장터 2021 전시 모습	39
[그림 25] 테미예술창작센터 2022 전시 모습	39
[그림 26] 김덕진 작가 작품	40
[그림 27] 유재희 작가 작품 <Body Mist-LY>	40
[그림 28] 김도영 작가 작품 <건너 바라보다II>	41
[그림 29] 김도연 작가 작품<'Naesudong-ro 102beon-gil No.10'>	41

[그림 30] 2022 청년예술인지원 교류 워크숍	43
[그림 31] 2022 전문예술지원 시각분야 선정예술인 이재열 작가 개인전 모습	43
[그림 32] 충북민족미술인협회 기획전 <이웃집 작업실> 전시 모습	45
[그림 33] 백송희 작가 <일상을 담아내다> 전시 모습	45
[그림 34] 2023년 충남다원예술사회적기특화예술교류 간접지원 과정 '메타적 실험실' 현장	47
[그림 35] 충남문화예술 서울전시장 CN갤러리 김성훈 작가 개인전 모습	47
[그림 36] 창작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도킹텍프로젝트협동조합 시사회	49
[그림 37] 순수예술작가 아트상품개발 지원사업 아트상품 전시행사	49
[그림 38] 창작공간활용사업 선정단체 도화헌 미술관 전시행사	51
[그림 39] 고차분 작가 작품 <창밖으로>	51
[그림 40] 148 아트스퀘어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사업 성과전 자료전시	52
[그림 41] 포항청년작가회 지난해 정기전 모습	52
[그림 42] 경남예술창작센터 입주작가 전문가 매칭비평 워크숍	53
[그림 43]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사업 결과전시회	53
[그림 44] 우수기획창작활동지원(에코오롯)	55
[그림 45] 창작공간프로그램지원사업(아트랩와산)	55
[그림 46] 부산 시각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전략 개요	86
[그림 47] 경일보(2022.11.22) 「예술가들을 응원하는 착한 전시, 경기문화재단 '생생화화 2022'	90
[그림 48] 아트업서울-성동 공유공간 및 작업실(연구진 직접 방문 및 촬영)	92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대상 및 방법

I. 연구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부산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방향 도출 필요

- 2019년 부산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를 시행하여 예술지원사업 체계 전반에 대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였음
- 이를 통해 부산문화재단 비전2030에 부합하는 지원사업 재구조 방안 도출, 목적 영역의 재정립을 통한 타당성과 실효성, 공정성과 결과 수용도를 높이는 지원제도 운영방향을 도출하였음
- 전체적인 지원체계 개선 이후의 후속작업으로서 세부적인 실천과제 도출이 요구되면서, 예술지원사업의 장르적 특성이 반영된 장르 맞춤형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시각예술 특화 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근거자료 수집

-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역예술생태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변화한 지역예술계 상황을 반영한 지원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2022년 부산지역 공연예술생태계 특성을 반영한 창작지원 기초연구를 수행하였고, 2023년에는 시각예술분야 맞춤형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특히 미술시장의 경우 아트페어 활성화,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전시 참관 문화 확대 등으로 팬데믹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가 지역 시각예술계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는지, 지역 시각예술가들의 활동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 지역 시각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수립

- 시각예술의 특성상 활동의 지역적 한계가 미술시장 진출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아님. 또한 활성화되어 있는 레지던시 사업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활동 영역을 확장하려는 시도도 상대적으로 열려있음
- 시각예술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등에서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시행하고 있음
- 부산문화재단의 시각예술 지원사업이 미술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시각예술가들을 적절하게 지원

하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또한 부산문화재단이 부산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예술작업을 하고 있는 시각예술가들이 안정적으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이렇게 시대적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 창작, 유통 및 확산 등 단계별 예술지원사업에 대한 세심한 설계가 필요함

[부산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2020.3.)

□ 예술창작 지원사업 개선과제

- 장르에 기초한 지원사업의 편성이 영역과 기능중심으로 배치
- 성장단계별 지원, 유통단계에 대한 지원 트랙 부재
- 변화하고 있는 예술창작 환경을 지원하는 사업의 부족
- 청년문화의 개념을 다원예술, 사회적 가치 실현의 영역으로 확장 필요

□ 개선방안 기본 방향

- 재단 비전2030에 부합하는 문화예술지원사업 체계 개선
- 변화, 확장되고 있는 예술적 실천을 뒷받침하는 지원사업 구축
- 지원사업의 선순환 구조 강화

□ 예술창작 지원사업 개선방안

○ 예술창작 지원사업

- 우수한 창작작품 지원 강화와 시민 향유 확대를 통한 예술지원의 당위성 확보
- 주제와 목적에 따른 사업의 재편과 신설로 새롭게 변화되는 다양한 예술활동 영역 포괄

○ 심의 평가단계

- 심의의 개방성과 전문성, 절차적 정당성 증진
- 심의와 평가 과정의 공유 제도 확대
- 사업에 대한 평가와 환류(피드백) 체계 구축

2) 연구 목적

□ 시각예술 분야 장르적 특성에 기반한 예술창작환경 구성 방안 모색

- 시각예술분야의 경우 세부 장르별로 창작 환경과 유통 확산 경로가 상이하기 때문에 다양한 경로를 반영한 창작환경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이를 위해 다양한 창작형태를 반영한 공간 전략이나 외부 진출 및 교류 기회의 적극적 창출을 위한 정책 제안을 도출할 예정임

□ 부산지역 시각예술지원사업의 다각화 방안 제시

- 부산문화재단의 예술지원체계에서 시각예술 장르는 공연예술 장르에 비해 다양한 지원체계가 다소 부족한 편임
- 창작 지원사업 외에도 준비, 유통 및 확산 단계의 지원사업 개발을 통하여 지역 예술인이 필요한 단계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또한 시각예술이 기술 등과 협력하여 새로운 창작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예정임

□ 부산지역 시각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전략 수립

- 예술지원사업의 목적은 장기적으로 부산지역 시각예술시장이 건강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공적 지원이 투여되는 것임
- 시각예술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작자 뿐만 아니라 관련 종사자층도 다양해져야 하고, 신규 창작자들의 진입 환경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
- 이 연구에서는 시각예술지원체계 개선과 더불어 장기적인 시각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과 역량강화에 대한 정책 전략도 함께 수립할 예정임

2.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 대상적 범위 : 부산지역 시각예술 지원사업 전반
- 내용적 범위
 - 시각예술시장의 변화 등 문화적 환경 및 동향 분석
 - 시각예술창작 지원 사례, 현황 조사 및 시사점 도출
 - 지역 시각예술 종사자 참여 부산지역 시각예술 생태계 진단 및 개선방향 도출
 - 시각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 중장기 방안 도출
 - 시각예술 창작 환경 개선
 - 지원사업체계 개선안 도출
 - 시각예술 생태계 중장기 발전 방향 제시 등

2) 연구 방법

□ 문헌 조사

- 시각예술 관련 변화 동향 분석
 - 시대적 변화에 따른 시각예술 관련 동향 및 중앙 기관 지원사업 분석
 - 타 광역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체계 분석을 통한 지원사업 변화 동향 파악
 - 부산문화재단 시각예술 지원사업 분석 및 개선사항 도출

□ 표적집단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 표적집단면접조사 기간 및 참여자 명단
 - 조사 기간 : 2023. 6. 2. ~ 21. 총 6회
 - 참여자 인원 : 부산지역 시각예술 관련 예술인 및 관계자 28명 참여
- 조사 내용
 - 예술창작 환경(공간, 지원제도, 레지던시 참여 등) 관련 실태 파악
 - 시각예술 창작 지원사업 참여 경험 공유 및 개선안 청취
 - 유통 및 확산 경험 공유 및 개선방안 청취
 - 시각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 및 우수 정책사례 공유

○ 조사 참여자 명단(회차별 가나다순)

[표 1] 부산 시각예술활성화 기초 전략 수립 연구 FGI 참여자 명단

	성명	성별	장르	소속	회의일시
1	김후분	여	판화·서예·평면	부산미술협회 서예분과 회장	6/2(금)
2	심점환	남		전업작가	
3	양은진	여		부산시립미술관 학예사	
4	탁경아	여		커뮤니티 아트센터 숲 대표	
5	김경화	여	조각·입체	전업작가	6/8(목)
6	김성연	여		부산대학교 조형학과 교수	
7	문병탁	남		부산조각가협회 회장	
8	우징	남		전업작가	
9	하석원	남	창작공간 마재고개14대표	6/9(금)	
10	김이석	남	동의대학교 영화학과 교수		
11	문진우	남	전업작가		
12	문창현	여	오지필름 대표		
13	이인우	남	사진·영상	전업작가	6/9(금)
14	장희철	남		부산외대 영상콘텐츠융합학과 교수	
15	김혜경	여		실험실C	
16	성백	남		복합문화공간 머지	
17	정선미	여	융복합·기획자	춘자아트갤러리 대표	6/13(화)
18	최상호	남		부산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19	최승현	여		독립기획자	
20	이창운	남	청년예술가	전업작가	6/15(목)
21	임봉호	남		전업작가	
22	정안용	남		전업작가	
23	박한샘	남	종합	전업작가	6/21(수)
24	신가윤	여		전업작가	
25	양재령	여		북청화첩	
26	이영아	여		전업작가	
27	이재균	남		(현)흥티아트센터 입주작가	
28	진영섭	남		아트팩토리 비 대표	



[그림 1] 2차, 5차 표적집단면접조사

□ 사례 조사

○ 예술인공유창작공간 [아트업서울] 사례 조사

- 일시 및 장소 : 2023. 8. 9. 15:00, 아트업서울(서울 성동구)
- 참여자 : 정윤주(사회적 기업 위누 매니징 디렉터), 조영미(문화와 예술 다다 대표) 등
- 조사 내용
 - 아트업서울(예술인 공유작업실 등) 시설 및 운영 현황 소개
 - 예술인 활동 지원프로그램(창작활동, 전시활동, 수익활동, 홍보활동) 설명 및 결과 공유
 - 운영프로그램(맞춤형 교육 '아트프레너', 멤버 간 네트워킹 '아트업데이', 아트콜라보, 전시, 워크숍 등 '아트업파트너', 포트폴리오 촬영, 컨설팅, 제휴할인 서비스) 소개 및 사례 나눔 등



[그림 2] 아트업서울 현장 방문 및 관계자 면담

○ 경기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사례 조사

- 일시 및 장소 : 2023. 8. 10. 15:00, 줌(zoom)을 통한 화상회의
- 참여자 : 이지희(예술진흥실 주임), 조영미(문화와 예술 다다 대표) 등
- 조사 내용
 - 경기예술특성화 성과전시(생생화화), 시각예술 작가 집중조명사업 전반 설명
 - 예술지원방식(생애주기, 창작단계), 작품 유통·확산 등 사업 설계과정 공유
 - 재단·경기도내 기초재단 협력사업 사례 소개 및 다년지원 등 지원방향성 논의



[그림 3] 경기문화재단 관계자 면담



시각예술분야 변화 동향 및 지원 사례

1. 시각예술분야 변화 동향
2. 시각예술 창작 활성화 지원사업 사례 조사
3. 시사점

II. 시각예술분야 변화 동향 및 지원 사례

1. 시각예술분야 변화 동향

□ 미술시장의 온라인화와 디지털화

-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2000년대 이후 미술 관련 데이터와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이 활용되다가,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을 연동하여 작가와 작품을 온라인상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진화하였음
- ‘비대면 시대’ 이전부터 미술계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특히 시각적으로 특화된 인스타그램(Instagram) 등을 대중과의 연결 매개로 적극 활용해왔으나(예술경영웹진, 447호), 코로나19 이후 모든 전시, 페어, 경매장이 비대면(온라인)으로 대체됨으로써 컬렉터들의 수요 증가로 이어지게 되었음
- 히스콕스 리포트의 2022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경력 5년 이상의 컬렉터 85%가 온라인에서 작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으며, 이것은 2019년 44%에 비해 두 배가량 늘어난 수치임. 또한 2021년 온라인 판매 작품들의 46%가량이 온라인 플랫폼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작품을 구매하는 등(예술경영웹진, 484호) 매우 활발한 온라인 소비가 이루어졌음
- 관계 비즈니스인 미술시장은 시장 참여자 간의 상호 관계 맺음이 가장 중요하므로 온라인이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는 있다는 장점이 있고, 무엇보다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¹⁾는 편리성, 투명성과 진입 장벽을 낮추었다는 지점에서 주목하고 있음(예술경영웹진, 447호)
- 또한 온라인 마켓의 투명성과 편리성을 경험한 컬렉터들은 온라인을 통한 작품 구매를 지속한다는 사실 또한 아트시 컬렉터 리포트²⁾를 통해 밝혀짐(예술경영웹진, 484호)
- 미술품 구매 시 고려사항 가운데 경매시장 데이터와 SNS 자료 수집 등도 작품을 선정하는 중요한 요소³⁾임과 동시에 온라인 뷰잉룸(Online Viewing Room)⁴⁾을 통한 양질의 콘텐츠를 제

1) 갤러리 인사이드 리포트는 온라인 미술시장의 양 주체인 구매자와 판매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230여만 이용자 데이터베이스와 3천여 개 갤러리 파트너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이면서, 마켓 플레이스 플랫폼에서만 확보할 수 있는 빅데이터임

2) 아트가 자사 플랫폼 컬렉팅 경험이 있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양상을 조사한 리포트임

3) 예술경영지원센터(2023), 「한국 MZ세대 미술품 구매자 연구」 p.157 참고. 경매시장 이외에도 프라이머리(갤러리 거래), 전속 갤러리, 대형뮤지엄 소장 여부, 비엔날레 등의 전시 여부, 경매시장 데이터, 갤러리 직접 문의와 SNS 자료 수집 등을 통해 작품을 구매한다고 함. 그러나 MZ세대 상위 컬렉터는 경매보다 갤러리를 통한 미술품 구매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음. 해당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다양한 구매 경로를 이용하고 있어 합리적인 소비자의 경향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음

4) 온라인 뷰잉룸은 단순히 미술품의 이미지와 크기 그리고 공간의 축적을 온라인을 통해 보여주는 도구(Tool)가 아니며, 작가의 작품 세계 그리고 작품과 이를 둘러싼 여러 정보를 하나의 줄거리 흐름으로 구축하여 컬렉터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컬렉터가 해당 온라인 뷰잉룸에 소개된 작품을 하나 정도는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 콘텐츠임

공함과 동시에 작품과 작가에 대한 흥미 있는 내용들을 대중이 원하는 트렌디한 방식으로 온라인상에서 풀어내며 대중들과 같이 호흡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면서 미술시장의 온라인화를 견인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음(예술경영웹진, 447호)



□ 미술품 향유집단의 대중화

-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된 미술시장의 온라인화와 디지털화는 편리하게 온라인 플랫폼이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작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MZ세대를 아우르는 영 컬렉터들의 유입이 증가하였음
- 또한 K-pop과 K-영화나 드라마의 열풍을 타고 거기에 열렬한 팬층을 이루는 젊은 층이 예술에 관심을 쏟으며 미술품 컬렉팅에 합류하고 있기도 함
- 아트마켓 2022에 따르면, 조사 이래 처음으로 한국이 ‘전후 및 동시대 미술’ 분야 전 세계 거래액 2%를 기록하면서,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에 이어 5위를 차지하였고, 그 원인으로 MZ세대로 불리는 신규 컬렉터의 다량 유입이 컸다고 밝히고 있음(예술경영웹진, 485호)
- 미술품 자문업체 슈워츠먼 앤(Schwartzman&)의 대표인 앤런 슈워츠먼은 세계 미술시장의 관점에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시점이며, 이 가운데 한국의 젊은 컬렉터들이 대량 출연한 것으로 보아 예술의 제작, 수집, 감상 측면에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예술경영웹진, 485호)
- 더불어 미술품 구매의 목적이 투자 효율성과 세제 혜택 등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미적 만족감과 가치관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즉 가치투자 측면이 커지면서⁷⁾ 미술을 향유하는 집단이 소수 미술 애호가뿐만 아니라 MZ 젊은 세대에까지 확장되는 결과를 가져옴

5) 데이비드 즈위너 홈페이지 <https://www.davidzwirner.com/>접속일 2023.07.26

6) 아트시 홈페이지 <https://www.artsy.net/viewing-rooms/>접속일 2023.07.26

7) 예술경영지원센터(2023), 「한국 MZ세대 미술품 구매자 연구」 p.157 참고



□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결합(collaboration)을 통한 미술시장의 저변확대

- 기업이 예술과 기술 융합, 예술과 기업 협업 등 단순 후원보다는 협업 또는 협력 방식으로 예술에 기여하고 있음. 그 사례로 LG와 구겐하임 미술관의 아트&테크놀로지 협력 사례⁸⁾, BMW의 예술후원 사례⁹⁾, 롯데백화점 사례¹⁰⁾가 있음(예술경영웹진, 485호)
- 유통, 패션 산업 등 다른 산업의 미술시장 진출이 본격화되었고, 미술품을 곁에 두고 감상하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더해 아트토이, 한정판 굿즈 등 미술시장의 저변도 커지고 있음(예술경영웹진, 485호)
- 블록체인 기술과 NFT 아트는 또 하나의 표현 매체이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마케팅 채널로 주목받고 있음
- 코로나로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 속에서 예술가와 단체들은 메타버스가 감각, 매체, 커뮤니케이션 등 모든 면에서 새로운 표현이자 확장임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디지털이 품고 있는 접근성과 확장의 잠재력에 주목하기 시작하였음(예술경영웹진, 480호)
- 메타버스 전시 플랫폼에서 NFT 아티스트들의 전시가 수시로 열리면서 3차원의 디지털 아트를 커뮤니티와 함께 즐기는 문화가 만들어지게 됨
- 갤러리는 세일즈의 주선자일 뿐만 아니라 작품 제작, 프로모션, 인터내셔널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파트너이므로, NFT 미술시장에서도 갤러리의 역할은 동일하게 필요함. 플랫폼이 증가하고 NFT 미술이 활발해질수록 갤러리의 역할도 확장되고 있음(예술경영웹진, 480호)

8) 5년간의 예술 및 기술 ini셔티브를 시작. 이러한 협업을 통해 구겐하임은 혁신적인 분야의 조사를 확장하고, 예술가, 특히 예술 매체로서 기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심 있는 예술가들을 지원함. 또한 장학제도를 통해 동시대 예술가들이 AR, VR, AL, NFT, 메타버스 등과 같은 신기술에 참여하도록 촉진함. LG그룹은 기술 혁신 기업으로서 이러한 예술가들이 작업에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여 신기술을 받아들이는 예술가를 지원하는 구겐하임의 노력에 힘을 실어 주고자 하였음. 2023년 'LG 구겐하임 상'이 출범, 예술가 1인을 선정하여 상금을 수여함.

9) BMW가 예술을 후원하는 이유는 기업 시민의 역할과 브랜드를 구축하고자 하는 열망 때문이라고 언급. 이것은 아티스트 후원을 통한 기업 이미지와 동시에 창작의 자유를 존중하여 예술성을 타협하지 않도록 하고 각자의 네트워크와 기술을 발판으로 협업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음(2022 KAMA 컨퍼런스에서 참석한 BMW 문화 부문 대표인 토마스 기르스트(Thomas Girst)의 발표 중에서)

10) 롯데백화점은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아트를 적극적으로 활용. 2014년 러버덕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2018년 Kaws프로젝트를 수행했고, 롯데뮤지엄을 설립하였으며, 이제는 백화점을 새로 설립할 때 미술관이나 갤러리처럼 구상하고 있음. ESG 프로그램인 리조이스(Rejoice)를 활용하여 여성 예술가를 소개하는 8개의 전시를 준비하고, 아트부산 기간에 롯데아트페어를 개최하여 박서보, 김창열 작가 등이 참여한 아트상품을 공개하는 등 다양한 매개 활동을 통해 많은 시민이 예술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함(2022 KAMA 컨퍼런스에서 참석한 롯데백화점 아트컨텐츠실 김영애 상무의 발표 중에서)

 <p>LG Display Newsroom 미디어 라이브러리 Related Posts NFT 작품 담은 LG 디스플레이 투명 OLED, 글로벌 디지털아트계가 주목</p>	 <p>현대미술, 재즈 클래식 음악,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100여가지가 넘는 문화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시사포커스 / 이명진 기자] BMW그룹은 지난 500년간 현대미술, 재즈, 클래식 음악,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100여가지가 넘는 문화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 문화예술 분야에 든든한 후원자로 여겨져 왔다.</p>
<p>[그림 6] LG와 구겐하임 미술관의 아트&테크놀로지 협력 사례¹¹⁾</p>	<p>[그림 7] BMW, 문화예술 후원 및 마케팅 활동 관련 기사¹²⁾</p>

11) LG 디스플레이 뉴스레터 <구겐하임의 '예술', LG의 '기술' 만나 이전에 없던 '창의적 경험' 만든다> 2022.6.2. <https://news.lgdisplay.com/2022/06/구겐하임의-예술-lg-기술-만나-이전에-없던/2023/07/26>

12) 시사포커스 <현대미술, 재즈 클래식 음악,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100여 가지가 넘는 문화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https://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7625/2023/07/26>

2. 시각예술 창작 활성화 지원사업 사례 조사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

□ 2023년 시각예술 지원사업 체계

- 시각예술분야 지원은 인력육성, 창작, 향유, 국제교류, 예술·기술융합 등 크게 5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으며 영역 안에 창작단계별 지원과 성장주기별 지원이 포함되어 있음
 - 창작단계별 지원은 [준비과정-창작발표-유통·확산]으로 세분화할 수 있으며 사전준비지원을 <창작의 과정>으로 묶어 ‘과정’ 중심의 지원으로 전환, 창작활동의 우수한 성과들이 다음 단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비평, 해외교류 지원, 창작공간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작품의 유통 및 확산 도모
 - 성장주기별 지원은 [인력양성-예비예술인-청년예술인-중견작가 지원]으로 이어지는, 창작의 성장 과정 전반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단계별 지원사업의 연결고리 강화
- 예술·기술을 융합한 예술창작콘텐츠의 지원 다각화와 온라인 플랫폼¹³⁾에 기반한 성과 공유로 시대적 변화에 따른 예술의 자생적인 협업체계 구축 및 향유방식 확대

□ 시각예술분야 지원사업

[표 2]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분야 지원사업 영역 및 체계

시각예술분야 지원사업 지원영역				
인력육성	창작	향유(미술관 등)	국제교류	예술과 기술융합
시각예술분야 지원사업 지원체계				
창작 단계 별 지원	준비과정	· [창작의 과정]시각예술		
	창작·발표	· [시각예술창작산실]우수전시 지원 · [시각예술창작산실]비평·연구활성화지원		
	유통·확산 (향유)	· [시각예술창작산실]공간지원① 민간전시공간 ② 사립미술관 ·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 지원 ·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 예술가 해외레지던스 지원		
성장주기별 지원	· 예비예술인지원사업 ·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 청년예술가 지원 · [시각예술창작산실]중견작가프로모션(경력개발) 기획지원			
예술과 기술융합	· 예술과 기술융합 · 메타버스 예술활동 지원사업 ·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아트 체인지업’			

13) 아트앤테크 (arko.or.kr/artntech)는 예술과 기술 융합 온·오프라인 창작품, 온라인미디어예술활동(artson.arko.or.kr)은 온라인 예술 실험 콘텐츠, 아르코데이터랩(lab.arko.or.kr)은 예술 데이터 수집·축적, 필요 데이터를 분석·가공하는 플랫폼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3년 주요업무추진계획」, 2022, 22쪽.

부산 시각예술 활성화를 위한 기초전략 수립 연구

구분	지원사업	사업대상	사업내용	사업특징
창작 단계별 지원	준비 과정	[창작의 과정] 시각예술 기획자 개인 및 단체(프로젝트 팀) ※ 최소 2회 이상 기획 실적이 있는 기획자 개인 또는 단체(팀), 프로젝트팀은 책임기획자 개인 신청 가능	[지원규모] - 총사업비: 1억원 - 지원규모: 5백만원~1천만원 [지원내용] - 2024~2025년 국내 개최 전시를 위한 사전연구 및 기획 지원(조사, 연구, 수집 등 전시기획 심화 및 준비에 소요되는 다양한 스펙트럼 지원)	사업완료 후, 향후 2년간('24~'25) 해당 주제 연구결과를 기획으로 <우수전시지원사업> 신청 시 1차 서류심의 면제
	창작	[시각예술 창작산실] 비평지원 최소 3회 이상 비평 관련 활동 또는 출판 실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지원규모] - 총사업비: 1억원 - 지원규모: (비평활동)5백만원~1천만원 (비평행사 및 비평서 출판, 간행물 발간) 5백만원~1천5백만원 [지원내용] - 비평활동, 비평행사, 비평서적 출판 및 비평 간행물 발간 지원	총사업비 10%이상 자부담 편성 필수(총사업비=지원금+자부담금)
	발표	[시각예술 창작산실] 우수전시지원 기획자 개인 및 단체(프로젝트 팀) ※신청자 이름의 독자적인 전시를 최소 2회 이상 기획·추진한 자로서 현재 국·공립미술관 상근 직원이 아닌 자	[지원규모] - 총사업비: 8억원 - 지원규모: (중규모)5천만 원/ (대규모) 1억 원 중 택1 [지원내용] - 기획전시(①장르: 회화, 설치, 미디어, 융·복합, 건축, 사진, 퍼포먼스 등 시각예술분야 전 장르, ②전시장소: 국내 미술관, 비영리 전시공간, 야외 등)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일부 지원	총사업비 10%이상 자부담 편성 필수(총사업비=지원금+자부담금)

II. 시각예술분야 변화 동향 및 지원 사례

구분	지원사업	사업대상	사업내용	사업특징
유 통 · 확 산	[시각예술 창작산실] 공간지원① (민간전시공간)	전시공간 운영 민간단체 (①신생형: 최소 1년 이상 3년 미 만('20.1~'21.12 개관) 운영 실적 을 가진 단체 ②성장형: 최소 3 년 이상('20.10이전 개관) 운영 실적을 가진 단체) ※상업화랑·갤러리 및 사업체 등 대관 중심 공간은 신청 불 가	[지원규모] - 총사업비: 4억4천5백만원(신규) - 지원규모: (단년) 연간 2천만원~5천만원 내외 (다년(2년)) 연간 2천만원~5천만원 내외 [지원내용] - 기획전시 및 프로그램(워크숍, 교육 등) 운영사업에 소요되는 직 접경비 일부 지원(공간 내 운영 예정인 기획전시 및 프로그램 자 율적 제안) ※전년도 선정단체(다년)의 경우 올해 심의 시 전년도 평가결과 25%반영	-다년(2년) 지원의 경우, 각 1차 년도에 각각 50%씩 배 정하여 최대 1억원 이내 책 정, 1차 년도 사업평가 및 환 류를 통해 차년도 지원여부 및 규모 조정 -전년도 선정단체(다년)의 경 우 올해 심의 시 전년도 평가 결과 25%반영 -총사업비 10%이상 자부담 편성 필수(총사업비=지원금+ 자부담금)
	[시각예술 창작산실] 공간지원② (사립미술관)	등록 사립미술관(최소 1년 이상 ('22년 이전 개관)의 운영 실적 보유) ※국·공립 및 대학미술관, 영리 및 대관이 주목적인 사립미술 관, 기업운영 또는 기업지원 등 의 사립미술관 제외	[지원규모] - 총사업비: 321백만원(신규사업 선정예산) - 지원규모: (단년) 연간 2천만원~5천만원 내외 (다년(2년)) 연간 2천만원~5천만원 내외 [지원내용] - 기획전시 및 기획 전시연계 운영사업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일부 지원(공간 내 운영 예정인 기획전시 및 프로그램 자율적 제안)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 지원	대상지 내 공공 유휴공간을 보유 운영하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 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2015년~2020년 동 사업을 통해 기 조성된 작은미술관을 보유 운 영하는 지자체, 공공기관과 협약 체결한 단체 등	[지원규모] -조성 및 운영지원: 최대 6천만원 -전시 활성화 지원: 최대 4천만원 [지원내용] -조성 및 운영지원: 작은미술관의 전시 및 부대 프로그램 구현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지원 ※공간조성비는 자체 활용 -전시활성화 지원: 조성 4년차 이상의 작은미술관과 다양한 공공지원 사업을 통해 조성된 전시 및 프로그램 등 활성화지원	조성 및 운영지원: 선정 후 최 대 3년간 지원가능 (사업평가와 연속지원평가회의 를 통해 결정)

부산 시각예술 활성화를 위한 기초전략 수립 연구

구분	지원사업	사업대상	사업내용	사업특징
	한국예술 국제교류지원	시각예술, 문학, 공연예술, 다원 예술 분야 예술가 개인 및 단 체	[지원규모] - 총사업비: 19억5천만원(정시공모 80%, 별도공모 20%) - 지원규모: (비지정형) 최대 5천만원 (지정형) 국제예술교류 프로그램에 따라 상이 [지원내용] - 국제예술교류사업 진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지원	-총사업비 10%이상 자부담 편성 필수(총사업비=지원금+ 자부담금)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에 선 정된 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예술경영지원센터, 전통공연예 술진흥재단 사업에 중복 선정 될 경우 택일
	예술가 해외레지던 스 지원	예술가 개인 및 단체(시각예술 을 포함한 전 분야)	[지원규모] - 총사업비: 400백만원(정시공모 80%, 별도공모 20%) - 지원규모: (비지정형) 최대 3천만원 이내 (지정형)프로그램별 상이 [지원내용] - 지원내용: 예술가의 해외 레지던스 참가에 필요한 직접경비 지원 (항공료, 숙박비, 프로그램 참가비 등) ※지정형(시각예술): 독일 베타니엔스튜디오, 핀란드 HIAP, 아르헨 티나 프로젝트 에이스피랄→후보군 선발형식/ 극지연구소 협력 아 라온호→최종참가자 선발형식	-지원횟수 제한제 적용: 최근 5년 내('18년~'22년) 2회 이 상 문예진흥기금으로 예술가 해외레지던스 참가 지원을 받 은 보조사업자는 신청 불가 -총사업비 10%이상 자부담 편성 필수(총사업비=지원금+ 자부담금)
성장 주기 별 지원	예비 예비예술인 지원사업	-현장연계 지원: 예술대학(원) 중심의 컨소시엄으로 고등교육법 에 의한 대학(원) 산학협력단 -발굴육성 지원: 공모전, 경연 대회, 축제 등 예비예술인 발굴 사업 실적이 있거나 예비예술인	[지원규모] - 예술대학의 예비예술인 현장연계: 최대 2억원 - 예술단체의 예비예술인 발굴육성: 최대 1억원 [지원내용] - 예술대학의 예비예술인 현장연계: 예술대학(원)이 민간예술단체, 문화재단, 공연장, 전시장 등의 다양한 현장단체들과 협력하여 대학교육을 받고 있는 예비예술인에게 창작, 실연, 기획, 기술, 행정 등의 현장경험 기회 제공 및 이후의 성장과 연계하는 교 육프로그램 지원	

II. 시각예술분야 변화 동향 및 지원 사례

구분	지원사업	사업대상	사업내용	사업특징
청년		다수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프로젝트 추진실적이 있는 민간예술단체 중심의 컨소시엄(문화예술전 분야)	- 예술단체의 예비예술인 발굴육성: 예비예술인을 발굴 및 참여시키는 공모전, 경연대회, 페스티벌, 오픈콜, 워크숍 등의 예술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성장연계(멘토링, 국내외연수, 차기작 발표, 네트워킹 등) 및 확산연계(아카이빙, 관객심사, 작품판매, 향유, 성과공유 등) 지원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만 39세 이하 개인(1983.1.1.이후 출생자)으로, 시각예술을 포함한 전 분야	[지원규모] - 총사업비: 9억7천7백만원 - 지원규모: 시각예술(2천만원~2천8백만원/7명 내외) [지원내용] -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에서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심화되는 신작의 창작 및 최종발표행사(〈차세대 열전 2023!〉) 진행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지원	자격요건: 시각예술 분야 전시 등의 발표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작가 및 기획자(작가: 기획전 및 단체전 2회 이상/ 기획자: 본인이 기획한 전시·연구 등 프로젝트 2건 이상)
	청년예술가 지원	만 39세 이하(1983.1.1. 이후 출생자) 청년예술가 개인(문화예술 전 분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금 수혜 이력이 없는 청년예술가	[지원규모] - 총사업비: 34억 2천만원 - 리서치·비평: (개인 또는 2인) 3백만원, (4인내외) 6백만원, (8인 내외) 8백만원 - 국내 발표: (개인 또는 2인) 8백만원, (4인 내외) 12백만원, (8인 내외) 2천만원 - 해외진출: 1천만원~2천5백만원 - [지원내용] - 작품 발표 및 창작을 위한 리서치·비평 활동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지원	지역균형제도 의무 적용: 비수도권 거주 청년예술가 지원유형 별도 마련(비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이외의 지역거주자)
중견	[시각예술 창작산실]	- - 만40세 이상 예술가(2023.1.1.	[지원규모]	- 결과물 제출 및 성과발표회 참여 의무

부산 시각예술 활성화를 위한 기초전략 수립 연구

구분	지원사업	사업대상	사업내용	사업특징
	중견작가 프로모션 (경력개발) 기획지원	<p>기준, 1982.12.31.이전 출생자 /주민등록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10년간('13년~'22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근거하여 등록된 국내 국공립·사립 미술관(2021년 문체부 문화기반시설현황 기준)에서 개인전 형식으로 최소 1회 이상 공식 초청 또는 3회 이상 단체전 참여 이력이 있는 한국 중견 작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사업비: 2억 4천만원(최대 10건 내외) - 지원규모: 3천만원 정액 지원 ※단순전시 개최지원 불가 <p>[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세계 구축활동: 작품창작준비, 작품제작변형, 국내외 비평원고 수집 및 번역, 작품 데이터베이스 정리 - 작품세계 확산활동: 비평집, 프로필 도록 발간, 로트폴리오 키트 제작·배포, 온라인 아카이빙(홈페이지 등), 해외 유력 매개자 연계활동, 기타(실적보고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사업비 10%이상 자부담 편성 필수(총사업비=지원금+자부담금)
예술과 기술 융합	예술과 기술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기술 융합 아이디어 기획·구현에 관심 있는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시각예술을 포함한 기초예술 전 분야) 	<p>[지원규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사업비: 29억1천3백만원(예정) - 지원규모: ①기획(1천5백만원/정액) ②기술융합 창제작 지원(3천~7천만원) ③우수작품 후속지원(최대 5천만원) <p>[지원내용]</p> <p>①기획(아이디어 기획·구현 지원)/ 기술 융합 예술작품 창작기획 및 아이디어 구현②기술 융합 예술작품 창·제작 발표 ③우수작품 후속 지원(기술융합 예술작품 보완 및 유통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사업비 10%이상 자부담 편성 필수(총사업비=지원금+자부담금)
	(국고) 메타버스 예술활동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험창작: 예술인·예술단체 기업 기관(단독 또는 공동협업, 단 개인일 경우 공동협업 필수) ·확장발표: 예술단체·기업·기관(단독 또는 공동협업) 	<p>[지원규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사업비: 15억원 - 지원규모: ①실험창작(준비단계/조사-기획-시연): 1천만원~3천만원, ②확장발표(작품발표단계) 제작·발표: 5천만원~1억원 <p>[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험창작: 확장가상세계 속성 및 기술을 적용한 시범프로젝트 발표(단순 리서치 과정이 아닌, 메타버스 예술창작 계획을 발전시키고 일부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이 포함) - 확장발표: 확장가상세계 속성 및 기술을 적용한 완성된 작품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사업비 10%이상 자부담 편성 필수(총사업비=지원금+자부담금) - 사업의 수행구조: 창작(예술인·단체/예술작품 기획, 창제작 및 실연)-발표·확산(예술단체·기관·기업/예술공간 운영 또는 매개)-기술 구현(메타버스 기술 전문가 및

II. 시각예술분야 변화 동향 및 지원 사례

구분	지원사업	사업대상	사업내용	사업특징
				기업/소프트웨어, 콘텐츠, 플랫폼 등 구현)의 구조를 갖춘 프로젝트 수행
	(국고)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아트 체인지업’	예술인(개인, 프로젝트팀, 기획자 포함) 및 예술단체·기업(중소기업, 스타트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 등), 문화예술 전 분야	<p>[지원규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사업비: 37억원 - 지원규모: ①콘텐츠 창작(진입): 1천만원/2천만원 택1(정액, 60건 내외), ②콘텐츠 창작(성장): 3천만원~5천만원(70건 내외 선정), ③확산서비스(매개): 3천만원~7천만원(7건 내외 선정), ④확산서비스(수익): 3천만원~7천만원(3건 내외 선정) <p>[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 창작(진입): 온라인미디어 활용, 콘텐츠 제작 실험 및 발표비 지원/프로젝트 직접 연계 교육비 포함(온오프라인 교육 수강, 국내 연관 전시회 및 박람회, 세미나 참여 등 최대 1백만원) - 콘텐츠 창작(성장): 온라인미디어 활용, 콘텐츠 제작 발표비 지원/프로젝트 직접 연계 교육비 포함(최대 1백만원) - 확산서비스(매개): 온라인 예술 향유 활성화 및 예술가치 확산을 위한 시장맞춤형 콘텐츠 서비스 제공 직접 경비 지원(①상용 플랫폼, ②신청주체 개발·구축·운영 자체 플랫폼) - 확산서비스(수익): 자체 구축·보유 플랫폼 기반의 시장맞춤형 창의적 예술서비스 개발 및 제공 직접 경비 지원(신청주체가 개발·구축·운영 자체 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 직접 연계 교육비 포함(온오프라인 교육 수강, 국내 연관 전시회 및 박람회, 세미나 참여 등 - 결과공유: (1단계)선정자·단체의 온라인 채널(SNS, 홈페이지, 플랫폼 등) 내 결과물(예술콘텐츠 등) 게시⇒(2단계)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누리집(artson.arko.or.kr) ‘즐거면서(메뉴)’작품소개’에 사업수행 결과물 등록 및 최초 공개 - 총사업비 10%이상 자부담 편성 필수(총사업비=지원금+자부담금)

2) 예술경영지원센터 지원사업

□ 시각예술 지원사업 특징

-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실행하고 있는 지원사업은 안정적 창작활동 기반과 유통 및 확산 지원에 집중하고 있음
- 공모사업 지원의 대상이 개인 창작자는 물론 화랑 등의 전시공간 그리고 민간단체에 이르기까지 다각화되어 있음
- 작가발굴을 위한 작가 활동 지원, 미술품 감정, 유통, 매개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지원,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아트페어 육성지원이나 미술품 대여사업, 더불어 한국미술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있음
- 특히 K-ARTMARKET, K-SHARING 등 디지털플랫폼 구축과 담론창출을 위한 KAMA 국제 컨퍼런스 등도 운영하고 있음

□ 2023년 시각예술 지원사업 체계

[표 3] 예술경영지원센터 2023년 시각예술분야 지원사업 체계

작가 활동 지원 및 인력양성	미술시장 육성 및 향유증진	한국미술 해외시장개척	정보생산 유통/담론창출
작가 활동 지원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우수 전속작가제 지원	미술시장 육성 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 아트페어 육성 지원	해외 기획전시 지원 해외 아트페어 참가 지원 온라인 플랫폼 홍보지원 한국미술 해외출판 지원	한국미술시장정보시스템(K-ARTMARKET) 미술시장조사 작가 디지털 아카이브
인력양성 미술품 감정,유통,매개인력 양성 교육과정 운영지원	미술향유 증진 미술품 대여사업지원 미술주간		

II. 시각예술분야 변화 동향 및 지원 사례

구분	지원사업	사업대상	사업내용	사업특징
작가활동 지원 및 인력양성	예비전속작가제 지원(2023~2025)	사업장 소재지에 전용 전시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화랑)	<p>[지원대상 사업]</p> <p>신진작가의 안정적인 창작환경 제공 및 중소화랑의 전속작가 발굴·육성 지원</p> <p>[지원내용]</p> <p>전속작가의 창작활동비 및 홍보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작활동비 : 작가 1인당 창작활동비 연간 1,200만원 정액 지원 - 홍보비 : 작가 1인당 연간 500만원 정액 지원 (아트페어 부스비, 광고매체, 평론, 비평, 번역) - 기타 : 기획전시 개최 및 국내외 작가 프로모션 지원 등 <p>[지원조건]</p> <p>작가: 만30세 이하 (*국공립 미술관 전시 및 레지던시 이력이 있을 경우, 만40세 까지 지원가능)</p> <p>단체 : 최근 2년(21년~22년) 단체 전용 전시공간에서 연 1회 이상 기획전을 개최한 단체</p> <p>[우대사항]</p> <p>사업의 참여 횟수가 적은 신진 작가</p>	다년(3년 지원)
	우수전속작가제 지원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작가	<p>[지원대상 사업]</p> <p>예술성과 시장 경쟁력을 갖춘 차세대 작가를 선정하여 국내외 프로모션 후속 지원 ('22년~)</p> <p>[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전시:우수작가 국내 기획전시 개최 -국내외 프로모션:작가 홍보 영상(영문 자막), 영문 도록, 전시 OVR 제작, 작가 1:1 멘토링 등 프로모션 지원 -언론홍보:기획전시 및 주요 프로그램, 참여단체(화랑/작가) 홍보 지원 	22, 23 예비 전속작가제 참여 작가 200여명 중 10인 내외 선정하여 '우수 전속작가제 기획전' 마련
	미술품감정, 유통 매개인력 양성교육과정지원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협회, 단체, 기관, 유관 학교, 학회, 연구소 등	<p>[지원대상 사업]</p> <p>현장에 종사하는 시각예술 분야 감정·유통·매개인력의 전문성 함양을 목표로 관련 전문성을 지닌 단체·기관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p> <p>[지원내용]</p> <p>최대 5천만원 이내 차등지원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건비, 자료제작비, 강사료, 장소 및 작품 대여비 등</p>	시가감정 인력 양성(고급과정) 및 유통·매개 인력 양성(중급과정) / 프로그램 운영 및 유사 경험 보유 필수
미술시장 육성 및 향유 증	작가 미술장터 개설지원	민간단체 주관의 중소규모 미술장터	<p>[지원대상 사업]</p> <p>신진작가의 시장 참여 문턱을 낮추고 일반 국민의 미술품 소장문화 확산을 위해 중·소규모 아트페어 '작가 미술장터' 운영 지원('15년~)</p>	4개소 내외, 총 4억원/장터별 50~150백만원/대면 및 병행 장터

진			<p>[지원내용]</p> <p>지원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10억원, 10개소 내외 -공모:중·소규모, 대면·비대면 미술장터 개설 지원(10건 내외) -홍보:관객개발 플랫폼 구축 운영 및 장터별 간접 홍보 지원 -공간지원:미술 콘텐츠에 수요가 있는 전시공간 발굴 및 공간 무상 지원 -평가 및 환류:사업 참가자 대상 성과공유회 운영 	<p>의 지원예산 차등지원 없음(2023년 공모-대면 5일이상, 비대면 1달이상)</p> <p>22년 대비 지원대상 완화-기획자 선임 필수, 화랑 전속작가/화랑.아트 페어 등 전시 출품 불가</p>
	아트페어 육성 지원	<p>국제형[제한공모]</p> <p>22년 아트페어 평가에 참여한 단체</p>	<p>[지원대상 사업]</p> <p>국내 아트페어의 시장성, 국제적 역량 강화 및 강소형 아트페어 육성을 통하여 한국 미술시장 활성화에 기여</p> <p>[지원내용]</p> <p>아트페어의 국제 미술시장으로의 도약을 위한 부대프로그램 지원</p> <p>선정단체 대상 정액(10~15천만원) 지원</p>	<p>국제형 제한사항: 22년 평가결과 및 23년 사업운영계획 종합적을 고려 총 5.4억 (최소 3천만원~최대 15천만원)/8개 단체 내외 (국제 2건 내외, 활성화형 6건내외)</p>
		<p>활성화형[자유공모]</p> <p>23년 아트페어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p>	<p>[지원대상 사업]</p> <p>국내 아트페어의 시장성, 국제적 역량 강화 및 강소형 아트페어 육성을 통하여 한국 미술시장 활성화에 기여</p> <p>[지원내용]</p> <p>한국 미술 활성화를 위한 부대프로그램 지원</p> <p>선정단체 대상 정액(3~4천만원) 지원</p>	
	미술품 대여사업 지원	<p>본 사업 취지에 적합한 전시를 기획운영하고자 하는 민간 기업]</p>	<p>[지원대상 사업]</p> <p>공공 다중시설 협력 기획 전시를 통한 미술의 대중화 및 향유·소비 문화 확산</p> <p>한국 차세대 유망 작가 발굴 및 프로모션을 통한 미술시장 진출 지원</p> <p>[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시 기획 및 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총 지원금의 30% 이상 작품 대여료의 무 책정) -선정단체 기획자 사례비 지급 가능 * 총 지원금 대비 30% 이하 책정 -전시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p>우대사항</p> <p>[전시기간 미술주간(9.1~9.11) 기간 포함]</p> <p>[부대행사] 미술주간 중 주말(9.2.~4./9.9.~11.)내 도슨트 프로그램 진행</p> <p>한국 차세대 유망 작가 발굴 전략 수립 및 프로모션에 주력한 전시 자부담금 10% 이상 책정 필수</p>
미술 주간	<p>국공립·사립미술관, 화</p>	<p>[지원대상 사업]</p> <p>국·공립 및 사립미술관, 화랑, 미술 관련 협회·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전국 최대</p>	<p>[지원 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무료 운영 및 홍보 	

II. 시각예술분야 변화 동향 및 지원 사례

		<p>랑, 아트페어, 비엔날레 및 기타 전시 관련 공간, 미술 관련 사업 및 교육을 운영하는 기관 및 협·단체</p>	<p>규모의미술 축제로 전 국민이 미술을 즐기는 분위기 조성 -전시 관람, 체험교육, 미술품 소장 등 미술 관련 다양한 소비 활동 장려의 계기 마련 [지원내용]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직접 경비 지원(예: 강사비, 단기 인력비, 소모품비, 홍보마케팅비 등) 2천만원, 5단체 내외 선정</p>	<p>- 장애인 대상 무장애 프로그램 필수 운영</p>															
한국미술 해외시장 개척	해외기획전시지원	<p>23년 5월~ 24년 11월까지 한국작가의 초청협력 전시를 개최하는 해외미술기관 및 갤러리</p>	<p>[지원대상 사업] 해외 우수 미술관 및 갤러리의 한국작가 초청 전시 지원을 통해 국제 미술시장 내 한국미술 위상 제고 및 파급력 확산 [지원내용] 미술관(비영리): 6천만원 이내 차등지원 갤러리(영리): 3천만원 이내 차등지원 [지원항목] 작가항공, 숙박비, 작품 운송비, 온오프라인 매체 홍보비, 한국작가 홍보용 영상 제작비, 한국작가 비평 원고비, 영문번역비</p>	<p>사업 선정 후 해외기관, 한국작가, 예술경영지원센터 간 MOU 체결 후 해외기관에 지원금 사후 교부</p>															
	해외아트페어 참가지원	<p>해외 아트페어 참여가 확정된 민간단체</p>	<p>[지원대상 사업] 한국작가 및 화랑의 해외 미술 시장 진출 기회 마련 및 한국 미술시장 국제화 기회 확대 [지원분야] 해외 아트페어 참여가 확정된 국내 화랑의 부스 참가 지원 [지원내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40%;">시장선도형</th> <th style="width: 45%;">일반형</th> </tr> </thead> <tbody> <tr> <td>대상페어</td> <td>프리즈, 피악, 테파프, 아트바젤</td> <td>참여페어 제한 없음</td> </tr> <tr> <td>기대효과</td> <td>국제무대 프로모션, 행사 브랜드 활용 파급력 확대</td> <td>화랑 해외 판로 개척, 작가 해외진출 기회마련</td> </tr> <tr> <td>지원규모</td> <td>최대 50백만원 이내 차등 지원</td> <td>최대 35백만원 이내 차등 지원</td> </tr> <tr> <td>지원항목</td> <td colspan="2">부스 임차료, 운송료, 보험료, 온라인 뷰잉룸, 위성부스 사용료</td> </tr> </tbody> </table>	구분	시장선도형	일반형	대상페어	프리즈, 피악, 테파프, 아트바젤	참여페어 제한 없음	기대효과	국제무대 프로모션, 행사 브랜드 활용 파급력 확대	화랑 해외 판로 개척, 작가 해외진출 기회마련	지원규모	최대 50백만원 이내 차등 지원	최대 35백만원 이내 차등 지원	지원항목	부스 임차료, 운송료, 보험료, 온라인 뷰잉룸, 위성부스 사용료		<p>[대상조건] 대표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국내에 전시공간을 운영하는 화랑</p>
	구분	시장선도형	일반형																
대상페어	프리즈, 피악, 테파프, 아트바젤	참여페어 제한 없음																	
기대효과	국제무대 프로모션, 행사 브랜드 활용 파급력 확대	화랑 해외 판로 개척, 작가 해외진출 기회마련																	
지원규모	최대 50백만원 이내 차등 지원	최대 35백만원 이내 차등 지원																	
지원항목	부스 임차료, 운송료, 보험료, 온라인 뷰잉룸, 위성부스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홍보지원	<p>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한국미술을 판매,</p>	<p>[지원대상 사업]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활성화 및 온라인 시장 확대를 반영하여, 해외 온라인 플</p>	<p>[공모대상] 참여작가 중 한국 작가의 비율이 반</p>																

부산 시각예술 활성화를 위한 기초전략 수립 연구

	홍보 또는 전시하려는 국내 화랑	<p>랫폼을 통한 한국 미술품의 홍보와 유통 활성화를 지원</p> <p>[지원내용]</p> <p>최대 2천만원 이내 차등지원, 플랫폼 이용비 (플랫폼 복수 선택 가능, 등록비 및 이용비 포함), 콘텐츠제작비(사진/영상 촬영비 및 편집비), 최대 3년 지원, 1년 단위 평가 시행 (평가조건에 탈락할 시 지원 중단), 제작된 콘텐츠는 온라인 게재 필수</p>	<p>드시 60% 이상이어야 함/ 대표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화랑/ 해외 아트페어 참가지원 중복지원불가</p>
	한국미술해외출판지원	<p>해외에서 출판하고자 하는 국내외 저자, 출판사, 미술관, 대학 및 연구소</p> <p>[지원대상 사업]</p> <p>국제 미술시장 진출과 담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미술 영문 자료 생산 및유통지원과 해외 미술시장 및 학계에서의 한국미술의 위상을 제고</p> <p>[지원내용]</p> <p>최대 5천만원 이내 차등 지원/ 한국미술 도서 연구, 집필, 번역, 감수 비용 및 출판 실비(인쇄 실비, 이미지카피라이팅 등)</p>	
	한국미술시각예술도록. 자료번역 지원	<p>시각예술 분야 개인 및 단체, 기관</p> <p>[지원대상 사업]</p> <p>한국미술 외국어 자료의 생산 및 유통을 활성화하여 해외 미술 전문가 및 연구자 뿐만 아니라해외 대중들에게 한국미술에 대한 접근성 확대</p> <p>[지원내용]</p> <p>최대 7백만 원 이내 차등 지원/번역 및 감수 실비/영어, 중국어, 일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지원 신청 가능(최대 2종 선택 가능) *지정 번역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심사하며, 지정 번역업체가 없는 경우, 입찰로 선정된 번역업체에 위탁 번역 진행함(1차 원고, 2차 번역심의 진행)</p>	<p>[지원대상별 도서유형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갤러리, 미술관: 아트페어 등 행사 참여를 위한 작가 소개자료, 전시 서문 및 관련자료 -연구자 및 출판사: 미술시장 관련 기사, 연구자료, 작가/작품론 등 -작가: 작가노트, 포트폴리오 자료 등 -시각예술 전문매체: 한국미술 관련 기사
정보생산, 유통/ 담론 창출	한국미술시장 정보시스템운영	<p>[사업목적]</p> <p>국내 미술작품의 거래정보 및 미술시장 분석 정보/미술시장 활성화 기반 조성</p> <p>[사업내용]</p> <p>국내 경매회사를 통해 거래된 미술작품 정보 및 미술시장 분석 리포트, 미술시장 주요 뉴스 정보 제공</p>	
	미술시장조사	<p>[사업목적]</p> <p>-미술품 유통(매매), 전시, 소비영역 운영현황 조사로 객관성·신뢰성 있는 시각예술 시장 통계 산출</p>	

II. 시각예술분야 변화 동향 및 지원 사례

			<p>-조사결과 분석을 통한 현장 지원·육성 및 제도 개선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 근거 자료 생산</p> <p>[사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유통영역 조사: 화랑, 경매회사, 아트페어의 운영 현황, 전시 현황, 작품 판매 현황 등 • 공공영역 조사: 국내 미술관의 운영현황, 전시현황, 작품구입 현황 등/(정부)미술은행 작품 구입 현황,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현황 등 • 전시영역 조사: 전시공간(복합문화공간, 다목적 전시공간 등)의 입장권 판매 현황./전시운영 현황, 관람형태 등 • 소비영역: 미술품 구매자 및 구매 의향자 대상 작품 구매 규모 등 • 해외시장 조사: 세계 미술시장 규모 및 트렌드 조사/ 한국 미술 해외진출 현황 조사(주요 경매사의 한국작가 작품 낙찰 현황, 전시현황 등) 	
	작가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p>[사업목적]</p> <p>시각예술 디지털화 콘텐츠 제공을 통한 한류 콘텐츠 기반 마련 및 프로모션 확장/ 한국미술에 대한 체계적 자료 구축으로 전시 및 유통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p> <p>[사업내용]</p> <p>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브 자료 수집·연구지원</p> <p>지원 규모 : 총 3팀 ('22년 신규연구 이후 '23년에 후속 연구를 진행하는 팀 지원)</p> <p>지원 금액 : 연구팀당 6천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진/중견작가 디지털 자료집 구축 • 작가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한국미술정보책 포럼 및 세미나 운영		<p>[사업목적]</p> <p>한국미술시장 동향 및 주요 이슈 중심의 실효성 있는 담론 생성 및 확산</p> <p>[사업내용]</p> <p>한국 미술시장 분석 세미나, 시각예술정책포럼 운영</p>	
예술*기업협력 오픈 이노베이션	예술*기업협력 오픈 이노베이션	선도기업이 제안한 주제를 바탕으로 예술기업이 보유한 아이디어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p>[지원대상 사업]</p> <p>2023년 개관 예정인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새로운 공간이자 사업으로, 실험적인 예술과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라는 두 개의 큰 축을 중심으로 예술의 미래형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플랫폼</p> <p>[지원내용]</p>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보유 필수 트랙 1-예술인)-예술+기술 융합 창제작-)유통까지 종합 지원

		<p>통해 협업 제안이 가능한 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업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1천만원~ 25백만원) - 선도기업의 인적 및 물적 자원 제공 - 기업 간 원활한 협업을 위한 교육·컨설팅 및 사전검증에 필요한 간접 지원 - '예술+기업 만남의 날'을 통한 외부 자원 연계 및 우수기업 포상 지원 <p>[협업주제]</p> <table border="1" data-bbox="846 432 1574 683"> <tr> <td data-bbox="846 432 947 683">아모레퍼시픽 재단</td> <td data-bbox="947 432 1491 6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 : 일반 대중 대상 ▶ 협업주제 : 융합예술로 바라본 '아름다움' ③ '아름다움'을 주제로 전통예술(무용, 음악, 민요, 미술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복원하여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모델 ④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아름다움'을 재해석한 사업모델 ▶ 후속지원 : 재단 내 타 사업과 연계하여 작품 연계 세션을 진행하거나 전시할 수 있는 방안 모색 가능 </td> <td data-bbox="1491 432 1574 683">1~2개사</td> </tr> </table>	아모레퍼시픽 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 : 일반 대중 대상 ▶ 협업주제 : 융합예술로 바라본 '아름다움' ③ '아름다움'을 주제로 전통예술(무용, 음악, 민요, 미술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복원하여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모델 ④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아름다움'을 재해석한 사업모델 ▶ 후속지원 : 재단 내 타 사업과 연계하여 작품 연계 세션을 진행하거나 전시할 수 있는 방안 모색 가능 	1~2개사	<p>(트랙 2-예술기업)-예술(특화)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플랫폼</p>			
아모레퍼시픽 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 : 일반 대중 대상 ▶ 협업주제 : 융합예술로 바라본 '아름다움' ③ '아름다움'을 주제로 전통예술(무용, 음악, 민요, 미술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복원하여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모델 ④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아름다움'을 재해석한 사업모델 ▶ 후속지원 : 재단 내 타 사업과 연계하여 작품 연계 세션을 진행하거나 전시할 수 있는 방안 모색 가능 	1~2개사								
<p>아트코리아랩 (랩추진단)</p>	<p>파트너사에서 제시한 주제로 PoC 협업이 가능한 예술기업</p>		<p>[지원대상 사업] 예술의 산업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종합지원 플랫폼<아트코리아랩(Arts Korea Lab)>의 예술×기술 융합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참여 예술기업 모집</p> <p>[지원내용] 총사업비:5억(단체별1억)</p> <p>[협업주제]</p> <table border="1" data-bbox="835 963 1632 1190"> <thead> <tr> <th data-bbox="835 963 947 991">파트너사</th> <th data-bbox="947 963 1632 991">주제</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835 991 947 1090">(주)호텔롯데 롯데월드</td> <td data-bbox="947 991 1632 1090"> 1) 캐릭터 IP 기반 신규 아트웍 개발 2) NFT(PFP) 개발 및 커뮤니티 운영 3) 글로벌 K-공연 콘텐츠 기획 운영 4) 융복합 영상 디지털 복원 및 상영 </td> </tr> <tr> <td data-bbox="835 1090 947 1190">(주)현대리바트</td> <td data-bbox="947 1090 1632 1190"> 1) 예술 IP를 활용한 홈퍼니싱 아이템 개발 및 AR 활용 미디어 콘텐츠 제작 2) CGI 기반의 제품 홍보 디자인 및 홍보 콘텐츠 기획 3) 모듈러 시스템 가구 온라인 쇼룸, 견적 및 주문을 위한 AR Configurator 제작 4) DIY 원목가구 기획 및 조립/활용 콘텐츠 제작(에듀테인먼트) </td> </tr> </tbody> </table>	파트너사	주제	(주)호텔롯데 롯데월드	1) 캐릭터 IP 기반 신규 아트웍 개발 2) NFT(PFP) 개발 및 커뮤니티 운영 3) 글로벌 K-공연 콘텐츠 기획 운영 4) 융복합 영상 디지털 복원 및 상영	(주)현대리바트	1) 예술 IP를 활용한 홈퍼니싱 아이템 개발 및 AR 활용 미디어 콘텐츠 제작 2) CGI 기반의 제품 홍보 디자인 및 홍보 콘텐츠 기획 3) 모듈러 시스템 가구 온라인 쇼룸, 견적 및 주문을 위한 AR Configurator 제작 4) DIY 원목가구 기획 및 조립/활용 콘텐츠 제작(에듀테인먼트)	
파트너사	주제									
(주)호텔롯데 롯데월드	1) 캐릭터 IP 기반 신규 아트웍 개발 2) NFT(PFP) 개발 및 커뮤니티 운영 3) 글로벌 K-공연 콘텐츠 기획 운영 4) 융복합 영상 디지털 복원 및 상영									
(주)현대리바트	1) 예술 IP를 활용한 홈퍼니싱 아이템 개발 및 AR 활용 미디어 콘텐츠 제작 2) CGI 기반의 제품 홍보 디자인 및 홍보 콘텐츠 기획 3) 모듈러 시스템 가구 온라인 쇼룸, 견적 및 주문을 위한 AR Configurator 제작 4) DIY 원목가구 기획 및 조립/활용 콘텐츠 제작(에듀테인먼트)									

II. 시각예술분야 변화 동향 및 지원 사례



[그림 8] 예비전속작가제 지원 기획전
다이얼로그(Dialogue) [22년, 현대백화점 목동점]¹⁴⁾



[그림 9] 예술경영지원센터 '미술공유서비스'
사이버전시관 최지원 (세 사람의 대화)¹⁵⁾



[그림 10] 작가 미술장터 지원사업
열여덟번째 장터 '예술산책4-아트슈퍼마켓'¹⁶⁾



[그림 11] 작가 미술장터 지원사업
열여덟번째 장터 '예술산책4-아트슈퍼마켓'



[그림 12] 아트페어 육성 지원
'더프리뷰 성수 with 신한카드'¹⁷⁾



[그림 13] 해외 아트페어 육성 지원
런던 델피나_단체전¹⁸⁾

14) 매일경제, 22.10.29, <https://www.mk.co.kr/news/culture/10507781/검색일:2023/04/20>

15) 뉴스데일리, 2020.12.08.,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2/08/2020120800021.html/](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2/08/2020120800021.html/검색일:2023/04/20)
검색일:2023/04/20 '미술공유서비스' 홈페이지는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과 연계해 2021년 공모 진행. 창작활동
비 지원을 원하는 작가는 '미술공유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작가등록'을 완료해야함

16) 작가미술시장 공식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p/CkzbtQtEd4/?igshid=MmJiY2I4NDBkZg==/검색일:2023/04/20>

17) <https://www.white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372/검색일:2023/04/20>

18) <https://www.economidaily.com/view/20190614092029454/검색일:2023/04/20>

3) 국내 광역문화재단 예술창작 지원사업

□ 서울문화재단

○ 2023년도 지원사업 특징

- 예술지원 통합공모 개선사항

- 연중 2회차 통합 공고를 시행, 본인에게 필요한 지원사업을 사전에 인지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함(2023년 시행하는 주요 예술지원사업에 대해 '22년 9월 말'과 '23년 1월 말' 2회로 나누어 통합 공지
- 공고와 발표 시기 앞당겨, 한 해의 시작과 함께 예술활동을 충분히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함
- 연중 예술활동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기인 10월 경 신청접수를 하는 것을 고려하여 신청 준비 기간을 더 확보함(전년 대비 7일 추가 운영)
- 심의의 공정성과 타당성 제고를 위한 노력(심의위원풀 재검토/ 심의지표 전면 정비)
- 2023년 시각분야 예술창작지원은 서울에서 예술 창작활동 및 작업을 진행할 예술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예술기반지원은 예술계의 다양한 주체(창작자, 매개자, 기획자, 공간운영자 등)를 대상으로 창작활동 독려를 위한 기반(공간, 네트워크, 컨설팅)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계획함

○ 2023년도 주요사업

[표 4] 2023년 서울문화재단 시각예술분야 주요 지원사업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내용
예술창작활동지원	A트랙: 첫 발표 이후 5년 내 외의 예술활동을 한 예술인 및 예술단체 -예술인으로서의 작업세계 형성	최대 15백만원 (창작지원금)	예술창작활동: 작품 제작/발표 외에도 창작, 실연, 연주 등 예술활동 전반을 포함 작품제작/발표: 서울에서 오프라인(실내/실외 모두 가능)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창작활동비: 선정자(단체)별 정액 3백만원 별도 지급
	B트랙: 첫 발표 이후 6년 내 외에서 15년 내외의 예술활동을 한 예술인 및 예술단체 -예술인으로서의 작업세계 안정화	최대 25백만원 (창작지원금)	
	C트랙: 첫 발표 이후 16년 내 외 및 그 이상의 예술활동을 한 예술인 및 예술단체 -예술인으로서의 작업세계 및 가치 확장	최대 3천만원 (창작지원금)	
언폴드엑스 (Unfold X)	(전시참여) “제 2회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을 통해 융합예술프로젝트·	총 10명(팀) 내 외/(언폴드엑스 5~6인(팀) 내외,	(기획자캠프) 프로젝트 디벨롭을 위한 기획·기술분야 전문가 멘토링 및 강의 프로그램 진행

II. 시각예술분야 변화 동향 및 지원 사례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내용
	작품을 발표하고자 하는 창작자 (기획자캠프) 융합예술프로젝트를 창작 및 발표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프로젝트팀 등	기획자캠프 5~6인(팀) 내외) 프로젝트별 최대 5천만원	
금천예술공장 입주작가 정기공모	시각예술분야 전 장르 예술가 16명(팀)	-	스튜디오(총 16실), 공용시설, 프로그램(오픈스튜디오, 전문가 지원 프로그램 등)
신당창작아카데미 입주작가정기공모	공예디자인분야 예술가 32명(팀) 내외	-	스튜디오(총 32실 내외), 공용시설, 프로그램(기획전시, 제휴협력전시, 신당아틀랩, 오픈스튜디오, 기타 창작 프로젝트 등)
서울장애예술 창작센터 입주작가정기공모	대한민국 거주 20세(만19세) 이상 시각예술 분야 장애예술가 6명(개인)	-	스튜디오(총 6실), 공용시설, 프로그램(기획전시, 전문가 연계 프로그램,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등)
예술기반지원 RE:SEARCH	서울에 거주하는 예술인(개인)	3백만원 정액지원(시상금)	새로운 실험과 도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여 안정적 예술창작활동 준비 및 구상, 창작활동 지원
예술기반지원 창작예술공간지원	창작예술활동을 목적으로 서울시 소재의 공간을 월세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예술인(단체)/공간운영자(단체)	최장 6개월 순임차료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창작예술공간 임차료 지원을 통한 안정적 활동거점 확보 및 창작 활성화 도모
예술기반지원 시각예술 작품집 발간지원	시각예술작품을 집대성한 작품집을 발간하고자 하는 예술인	1천만원 정액(시상금)	작품집 발간을 지원하여 동시대 미술계의 유의미한 작업의 흐름과 예술인 철학 공유 및 확산하는 계기 마련
특성화지원 유망예술지원	작품제작 및 발표를 계획 중인 데뷔 3년 이상 10년 이하 예술인 및 예술단체	창작지원금 최대 3천만원 이내	작품개발지원, 중간과정 공유회 개최, 발표 및 연습 지원, 선정예술인/단체 주요 사진 및 영상 촬영 제작 진행, 오프라인 홍보 진행



[그림 14]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언폴드엑스 전시작품¹⁹⁾



[그림 15] 특성화지원 유망예술지원 선정 신민 개인전 'workers'²⁰⁾

□ 경기문화재단

○ 2023년도 지원사업 특징

- <기초예술 창작지원-시각예술 창작지원금>이 ‘평균’에서 ‘정액’으로 변경되었음
 - 선정 건당 ‘평균’ 1,200만원으로 결정되었던 시각예술 창작지원 분야의 지원금을 ‘정액’ 1,200만원 지원으로 변경하여 선정작가에게 균등 지원함
- 기초예술 창작지원 장르별 지원 신설 및 확대
 - (신설)시각예술 창작준비 지원: 신작 구상을 위한 준비단계에서 발생하는 기획, 실험, 리서치 등 창작준비활동 일체를 지원(전시 개최 불필요)

○ 2023년도 주요사업

[표 5] 2023년 경기문화재단 시각예술분야 주요 지원사업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내용
경기예술지원사업 시각예술분야	경기도 주소 작가로 개인전 1회 이상 혹은 그룹전 2회 이상 활동실적을 보유한 작가 *경기도내 시·군 지역제한 없으나 ‘신작’ 창작 지원사업임	창작준비: 3백만원(정액) 창작지원: 1천2백만원	창작준비: 창작준비금 지원 창작지원: 신작 계획에 대한 창작 실비 지원/ 평론가 매칭/ 신작 발표를 위한 단체전 “생생화화” 초청
모든예술31 (경기예술지원사업)	<9개 시·군 예술활동지원> 경기도 주소이며, 경기도 9개 시·군에서 예술활동을 실행할 예술인·예술단체 *9개 시·군: 가평, 남양주, 동두천, 시흥, 안성, 양주, 연천, 의왕, 파주 *기초문화재단을 보유한 21개 시군은 각 기초문화재단에서 사업수행	1천만원(평균)	기초예술분야의 모든 예술활동(신작, 기존작업 무관) 지원 해당 도시의 다양한 문화기반 시설 및 문화거점에서 실행되는 모든 예술활동 지원 *해당 시·군에서 창작 또는 발표해야 함
경기생애 첫 지원 (경기예술지원2차)	공모 선정 이후 2023년 연내에 경기도 내 개인전 개최가 가능한 작가 *만19세이상~만64세 이하/선정이력이 없으며, 경기 거주 전문 예술인	5백만원(정액)	시각예술 작가의 작품 창작 실비와 도록, 개인전 개최 지원
원로예술활동지원 (경기예술지원2차)	만 65세 이상 경기도 거주 작가	3백만원(정액)	시각예술 작가의 신작 창작지원/ 미발표작 개인전 개최 지원 중 택 1 지원
경기 시각예술 집중조명	경기도 거주 -경기도 소재 개인 작업실 레지던스인	3인(2022년 공모사업기준) 2천만원	신작 창작 지원금을 포함한 작가비(2천만원)/

19) 융합예술플랫폼 언폴드엑스 공식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p/Ck2kNNmSsNx/?igshid=MmJiY214NDBkZg==/검색일:2023/04/15>

20) 신민 작가 공식 홈페이지, <https://cargocollective.com/daughternose/workers-2020/검색일:2023/04/15>

II. 시각예술분야 변화 동향 및 지원 사례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내용
프로젝트	경우 작업실 세입증명서, 입주 증명서 등 증빙 -2014~2022 시각예술 성과발표 전시(생생화화)참여 작가, 10년 이상 예술활동 경력을 가진 중견작가로 인정된자 *위의 요건 모두 충족시 지원 가능, 이전 동일사업 초청 작가의 경우 불가		경기도미술관 기획전시 초청/ 연구 자료집 발간
경기 미술품 활성화 사업(아트경기) -협력사업사 공모지원	미술품 전문 유통사업자 및 예비창업자(갤러리, 기획사 등)	총 3억7천4백만원	아트경기 선정작가의 미술품 유통 관련 사업비(미술장터, 팝업갤러리 사업지원, 미술품 임대·전시, 아트페어 등) 지원
경기 미술품 활성화 사업(아트경기) -작가 공모지원	경기도 거주 시각예술작가	1백만원(정액)	작품 출품지원금 지급, 전시 및 판매사업 출품, 작품 판매 수익 배분, 작가 프로모션 지원
경기창작센터 창의예술학교 운영 예술인 모집	창작활동을 기반으로 예술교육 콘텐츠를 개발·실현하고자 하는 경기도 거주 현업 예술인/ 키워드 '섬'과 연계된 예술교육 콘텐츠 기획 가능한 예술인/ 경기창작센터 인근(대부도) 및 경기 전역 교육 가능한 예술인/ 본인 작품 연계 대면 예술교육 가능한 자	시간 당 강사료(재단 규정에 따름), 재료비, 연구비 1백만원(세전)	창작공간, 전시, 교육, 교류 등 예술활동 지원 및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젝트 지원



[그림 16] 경기예술지원사업 모든예술31 선정 예술인 송지형 전시회 fieldwork²¹⁾



[그림 17] 경기미술품활성화 사업(아트경기) 지원²²⁾

21) 송지형 작가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p/CkLaskzhv0a/?igshid=MmJiY2I4NDBkZg==>/검색일:2023/4/20

22) 서울일보. 경기문화재단, 미술품 활성화 사업 공모. 23.03.16. <http://www.seoulilbo.com/news/articleView.htm?idxno=598454/검색일:2023/4/20>

□ 인천문화재단

○ 2023년도 지원사업 특징

- 직관적인 사업 명칭으로 개편(2022 예술표현활동 지원사업/ 인천형 예술인 지원사업) 2023 예술창작 지원사업-일반지원/단년, 집중지원/다년, 신진/원로지원)
- 주요 공모사업 시기 일원화
- 최근 3년간의 경력 확인에 대한 기간 폐지
- (개인) 인천 출생, 인천 소재 학교 졸업/재학자, 공고일 기준 인천 거주자, 인천 내 활동실적 증빙이 가능한 경우, (단체) 공고일 기준 인천 내 등록 단체, 인천소재 문화예술공간(국공립 제외)
- 행정시스템 간소화
- 예술인e음카드로 본인 사례비 지급을 통한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장
- 1천만원 미만: 100만원,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200만원, 2천만원 이상: 250만원

○ 2023년도 주요사업

[표 6] 2023년 인천문화재단 시각예술분야 주요 지원사업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내용
예술창작 일반지원사업	시각예술	개인전: 최대 9백만원 단체전 또는 기획전 최대 2천4백만원 시각관련 출판: 최대 6백만원	시각예술 분야 개인전, 단체전 또는 기획전, 시각 관련 출판 지원/ 예술, 인문학, 기술, 장르 등 결합 혹은 융합형태 전시
	국제교류	최대 1천만원	작가/작품의 국내외 입출국을 전제로 하는 국제교류 활동 지원
	작은예술공간: 인천에 소재한 복합전시공간을 운영하는 민간 단체 또는 개인	최대 22백만원	작은 예술공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일회성이 아닌 시리즈 프로그램) 제작 지원
	신진(생애최초 1회 지원) 예술 창작활동 3년이하 예비예술인 (기획자 및 독립큐레이터 포함)	최대 5백만원	대표자 기획자: 인천e음카드 100만원 별도 지급
	만70세 이상 원로 *격년제 지원(2022년 선정자 지원 불가)	최대 5백만원	
예술창작 집중지원사업	개인	1차년도 최대 1,5백만원 2차년도 2천만원~3천만원	개인 창작물을 활용한 시민 교류, 문화 향유가 가능한 기획 프로그램 장기 지원/ 시각, 공연 분야 인천 예술인 창작준비 과정부터 실연까지 장기 지원
	단체	1차년도 2천만원	인천 예술 현장에 파급력을 불

II. 시각예술분야 변화 동향 및 지원 사례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내용
		2차년도 5천만원	러일으킬 수 있는 기획전 장기 지원
미술활성화 기획사업	인천 연고 전문 시각예술인의 창작 작업물	시각예술분야 작품 구입	1인 2점 응모가능 1인(1팀) 1건 구입 원칙/ 시리즈 작품에 한해 3점까지 구입 가능/ 구입가격제한 1점에 2천만원 이내/ 시리즈 작품은 3점 합산 2천만원 이내
트라이보울 초이스 [전시]	시각예술작품 2팀, 미디어아트 작업 1팀	시각예술2팀: 5백만원 미디어아트: 1천만원	트라이보울 공간을 재해석하는 성향의 시각예술 작업 지원
우리미술관 레지던스 입주작가 모집	국내 거주 중이며 타 레지던스 참여기간과 중복되지 않으며, 개인전용 스튜디오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자	프로젝트 진행비 1천5백만원 지급	레지던스 공간지원/ 전시관 및 스튜디오 공간지원/ 전시관 비품 및 장비 지원/ 전시프로그램 홍보지원/ 프로젝트 진행비 지원
우리미술관 전시 공모	시각예술가(단체)	공모1(전시집중형) 진행비 최대 3천5백만원 지원 공모2(전시 및 교육연계형) 진행비 최대 450만원 지원	전시회 개최 및 전시연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프로그램 입주예술가 모집	시각예술 예술가 및 연구자	1인(팀)당 스튜디오 1실 제공 창작지원 프로그램 및 발표 기회 제공 등	시각예술 예술가와 연구자들이 창작과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인천예술가 스튜디오지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인천 연고 활동자	1인(팀)당 스튜디오 1실 제공 창작지원 프로그램 및 발표 기회 제공 등	비평가(혹은 기획자) 매칭 등/ 프로젝트 발표에 필요한 공간 및 창작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인천미술 올해의 작가 추천 공모	시각예술 분야에서 수준 높은 창작업적을 낸 인천 연고의 예술인 또는 단체	-	23년 12월 중 인천아트플랫폼의 [인천미술_올해의 작가] 전시(개인전 등) 개최 지원/ 전시 개최 시까지 인천아트플랫폼 스튜디오 1실 제공/ 작품제작비 일부 및 작품 출품 사례비 지급
청년문화공간 활성화사업	인천 소재 공간을 직접 임차해 운영하는 개인 혹은 단체	최대 2천5백만원 내외(지원금)	기획프로젝트비, 공간사용료, 인건비 등 지원하여 청년공간 구성하여 청년문화공간 활성화 도모

23) 아키비스트 기록보관소, https://archivist.kr/show/show_scroll.php?idx=1665907768/검색일:2023/4/20

24)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2428/검색일:2023/4/20>



[그림 18] 우리미술관 전시 공모
장우진 ‘파도가 머물던 자리’ 전시회²³⁾



[그림 19] 트라이보울 초이스 선정작
‘축적 새김 확장’²⁴⁾

□ 대구문화예술진흥원

○ 2023년도 지원사업 특징

- 분야별 맞춤형 사업체계 보완, 행정절차 간소화
- 청년들의 창의적 예술 프로젝트 <청년예술활성화지원> 추진
- 해외진출·교류를 위한 해외활동지원 정기공모 및 다베네트워크사업 재개
- 지원금 집행 및 정산
 - 개인예술가 최소 지원규모 상향(청년-경력-원로 구분없이 일괄 5백만원)
 - 개인예술가 지원신청자격 증빙서류 간소화(①주요 예술활동 증빙자료 ②예술활동증명서 중 택 1)
 - 개인예술가 정산 시 증빙서류 제출 폐지(원천징수 후 지급, 지원금 5백만원 이하 시)

○ 2023년도 주요사업

[표 7] 2023년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시각예술분야 주요 지원사업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내용
개인 전시지원	공고일 기준 대구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관련분야 예술인(청년, 경력, 원로예술인)	(청년) 만35세이하, 무경력 (경력) 만36세~만64세 이하, 3년 경력 이상 (원로) 만65세 이상, 경력30년 이상 개인: 5백만원(정액)	작품 제작, 발표 및 전시 등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다베네트워크 사업	만50세 이하 대구광역시 거주 또는 대구에서 3년 이상 활동 경력을 가진 전문예술인(미술작가, 큐레이터)	개인: 월1백만원 (창작지원금, 원천징수)	독일 베를린 파견 지원(항공료, 창작 공간, 숙소, 전시 기회 제공 등)
지속전시지원	공고일 기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관련 분야 예술단체	단체: 5백만원~2천만원	2인 이상의 작가가 참여하는 정기 전시, 회원전시, 교류 전시 지원
우수기획	공고일 기준 대구광역시에 소재	단체: 2천만원~3천만원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기획

II. 시각예술분야 변화 동향 및 지원 사례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내용	
전시지원	재하며, 최근 5년간 기획전시 2건 이상 또는 최근 3년간 지역 외 기획자와 협업전시 실적 1건 이상인 예술단체		전시, 학술세미나-워크숍을 포함한 기획전시, 지역대표 작고 작가를 조명하는 기획 전시, 공공 미술 프로젝트 등 지원	
명작산실 전시지원	공고일 기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며, 최근 5년간 기획전시 3건 이상, 최근 3년간 지역 외 기획자와 협업전시 실적 1건 이상인 예술단체	단체: 8천만원	사회적 이슈, 지역 예술생태, 동시대 예술 등의 기획 전시, 국내·외 단체 및 예술가 교류 및 네트워크 기획 전시, 지역 시각 예술의 연구, 기록 등 아카이빙 기획 전시 지원	
해외활동지원	공고일 기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전문예술단체(예술인)	개인: 최대 5백만원 단체: 5백만원~1천만원	해외진출 및 역량강화 활동, 해외 예술축제 및 비엔날레 참가 등 다양한 해외 문화예술활동 전시	
학술조사 활동지원	공고일 기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며, 1건 이상의 관련 활동 실적의 예술단체(예술인)	개인: 5백만원 단체: 5백만원~1천만원	지역 문화예술 아카이빙, 예술비평 및 학술활동 지원	
청년예술활성화 지원	공고일 기준 대구광역시에 주소지를 두고 최근 3년간 1건 이상의 관련 분야 기획 실적이 있는 대표를 둔 프로젝트팀	프로젝트팀: 3천만원	동시대 이슈를 반영하거나 예술 방향을 제시하거나, 국내·외 단체(예술가)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획 공연, 전시, 행사	
청년예술가육성 지원	최근 3년간 대구광역시 내 활동실적 3회 이상인 만 35세 이하의 개인예술가	개인: 월 80만원씩 지급 (월별 활동지원금) ※다년 지원(2년)	1년차(컨설팅, 역량교육, 성과공유 및 평가회), 2년차(컨설팅, 워크숍, 결과발표회) 활동지원	
ArtLab:범어 (아트랩범어) 창창레지던시	한국 국적을 가지며 공고일 기준 주소지가 대구광역시인 예술단체(예술가) 대학원생 지원 가능	개인 및 단체: 20만원 (활동지원금) ※매년 연장심사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입주 가능	창작공간(임대료 등), 공용시설, 네트워킹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예술창작공간 실험적 프로젝트 공모	실험적인 프로젝트 공모에 기획자 및 기획이 가능한 예술단체(예술인)	기획비: 1천만원(팀당 메인기획자 1명 5백만원, 서브기획자 2명(2백50만원)) 프로젝트 경비: 6천9백만원 이내 ※프로젝트 경비는 진흥원에서 직접 집행	대구예술발전소 또는 수창청춘맨숀 전시 및 공연프로그램, 공간구성, 시민참여이벤트 등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지원	
예술창작공간 기술융합 전시 기획자 공모	미디어 전시 공모에 기획자 및 기획이 가능한 예술단체(예술인)	기획비: 2백만원 전시경비: 1천8백만원 ※전시 경비는 진흥원 직접 집행	대구예술발전소 공간 내 미디어 전시(2~3회), 체험프로그램 등 기획 전시	
올해의 청년작가전	1983~1998년생의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작가	개인: 5백만원 (창작지원금)	전시 개최 및 도록 제작, 1인 1전 사실, 평론가 매칭 및 평론 원고비 등 지원	
지역작	참여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증(초본)	1작품 당 2백만원	미술품 운송, 배송, 설치, 보험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내용
가 미술품 대여사 업	작가	상 대구광역시 거주자이며, 청년 또는 일반에 적합한 조건을 1개 이상 충족하는 (예비)예술인	(사례비/ 1년 대여료 및 저작권료 각 1백만원)	가입, 관리 지원
	대여기관	별도의 전시 공간 또는 개방형 공간을 보유한 공공·의료시설 등	1시설당 10~20점 대여 (20개소 내외)	'23년 선정된 미술품 대여, 미술품 대여 및 전시 과정에 필요한 운송·설치·보험료, 홍보마케팅 지원

	
[그림 20] 땡큐아트플랜트 팀 <OPERATE>전 ²⁵⁾	[그림 21] <라 코메디아-삶이 끝난 그곳> 전시 전경 ²⁶⁾

□ 광주문화재단

○ 2023년도 지원사업 특징

- 연간 1개 단체(개인) 사업 지원(신청은 2건까지 가능)
- 지원금액 심의제 시행: 창작공간프로그램지원, 문화예술교류지원, 광주문화자산콘텐츠화제작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그 외 사업 정액지원
- 단체의 대표자가 개인예술인으로 신청 시, 단체 및 개인예술인을 동일한 인격체로 간주(동시 선정×), 휴식년제 시행

○ 2023년도 주요사업

[표 8] 2023년 광주문화재단 시각예술분야 주요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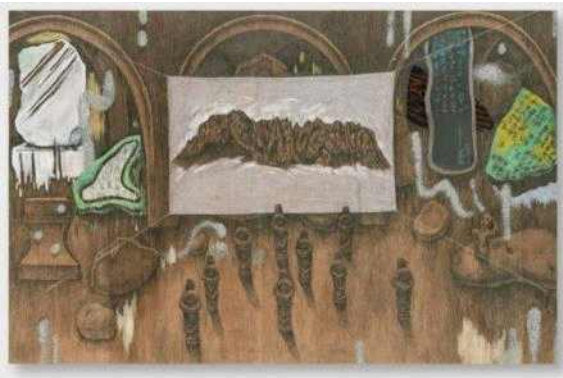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내용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①광주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며 공고일로부터 설립 1년 이상 된 문	단체: 8천5백만원/3건 '24년도 3개 단체 8천만원	창작물의 사전제작비(기획, 기초조사), 연출비, 제작비, 쇼케

25) 대구문화예술진흥원 홈페이지, 2022 대구예술발전소 차세대문화기획프로젝트 <operate>전시, https://dgfca.or.kr/article/ARTICLE_NEWS_LETTER/detail/9296/검색일:2023/07/11

26)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운영하는 아트랩범어 스페이스 1~4에서 열린 2022 범어길 프로젝트 2부 전시, https://dgfca.or.kr/article/ARTICLE_NEWS_LETTER/detail/9205/검색일:2023/07/11

II. 시각예술분야 변화 동향 및 지원 사례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내용
문화자산콘텐츠 화 제작지원	화예술단체 (2021년까지 신고 된 단체)	내외 추가지원	이스 비용 '23년 중간발표회(쇼케이스)를 통해 '24년도 연속지원
지역문화예술특 성화지원②창작 공간프로그램 지원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며 창작 공간을 보유하고, 공고일로부 터 설립 3년 이상 된 문화 예술단체	거주형: 4천만원~4천5백만 원/2개 단체 비거주형: 2천5백만원~3천 만원/3개 단체	입주 예술가의 창작·발표·역 량강화활동(필수), 지역주민 연 계 퍼블릭 프로그램(필수), 기 타 입주작가 교류 등
지역문화예술특 성화지원③문화 예술교류지원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며 공고 일로부터 설립 3년 이상 된 문화예술단체 (2019년까지 신고 된 단체)	단체: 최소 1천7백만원~2천 4백만원/5건	국내교류(타 지역 예술단체), 국 외교류(2개 이상 국가간 상호 교류) 문화예술 교류활동 및 행사 지원
지역문화예술특 성화지원④지역 문화예술육성 지원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문화 예술단체 및 예술인 -개인(①원로: 만65세이상/ ②전문: 경력5년 이상(연령제 한없음)/ ③신진: 경력 5년 미만(만40세 이상)) -단체(①전문: 5년이상단체)/ ②기초:5년미만단체)	기초예술단체: 8백만원/20건 전문예술단체: 1천5백만원/40건 원로예술인: 5백만원/15건 전문예술인: 5백만원/50건 신진예술인: 4백만원/15건	단체(예술인)의 전시회나 학술 ·연구·발간물 제작 등 창작 및 예술활동 지원
지역문화예술특 성화지원⑥청년 예술인 창작지원	광주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만19세~39세 청년예술인 및 수혜실적이 없는 청년예술인	청년예술인: 4백만원/48건 생애최초: 4백만원/17건	신청예술인의 전시회나 학술· 연구·발간물 제작 등 지원



[그림 22] 2023 광주시 청년작가 지원
이지원 작 <projection>²⁷⁾



[그림 23] 2023 광주시 청년작가 지원
김지섭 작 <another life>²⁸⁾

27) 광주시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s://www.nsart.or.kr/perform.do?act=detail&pfrmId=339&pageIndex=1&searchGuideType=ING&orderBy=DATE/검색일:2023/07/11>

28) 광주시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s://www.nsart.or.kr/perform.do?act=detail&pfrmId=339&pageIndex=1&searchGuideType=ING&orderBy=DATE/검색일:2023/07/11>

□ 대전문화재단

○ 2023년도 지원사업 특징

-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보장: 실적증빙기간 기존 3년→5년 확대
- 예술창작의 현장성 반영: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의 경우 자율파견형 포함
- 심의제도 공정성 강화: 검토위원회를 통해 심의위원 후보군 구성
- 예술인 행정편의 제공
 - 같은 사업으로 연속 선정될 경우 교부 신청 시 기존통장 사용
 - 성과보고 시 계좌 이체 집행 건에 대해 견적서, 이체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만 제출
- 낙선작 모니터링 평가: 지원신청서 내 ‘낙선작 모니터링 평가 수용 여부’를 작성, 낙선 후에도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재단의 모니터링 평가를 받으면 그 결과는 다음해 사업심의 시 환류 예정

○ 2023년도 주요사업

[표 9] 2023년 대전문화재단 시각예술분야 주요 지원사업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내용
청년·중견·원로 예술인지원	- 개인: 개인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예술인 · 청년: 만39세이하⇒①최초: 대전문화재단 지원금 수혜경험이 없는 청년예술인 ②경력: 최근 5년간 1회 이상 개인전 실적 또는 최근 5년간 7회 이상 그룹전 실적이 있는 개인 · 중견: 만40세~만65세 미만 · 원로: 만65세 이상 ※중견 및 원로예술인은 최근 5년간 1회 이상 개인전 실적 또는 최근 5년간 7회 이상 그룹전 실적 보유 - 단체: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해당예술인 비중이 높은 단체(①청년: 만39세 이하 ②중견: 만40세~만65세 미만 ③원로: 만65세 이상이며 중견·원로 단체의 최근 5년간 2회 이상 활동실적 단체)	- 개인: 2백만원~7백만원 - 단체: 2백만원~1천2백만원	시각예술 분야 창작활동 지원
차세대 ArtiStar지원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최근	- 1년차: 4백만원~6백만원 - 2년차: 5백만원~1천2백만원	(1년차) 역량강화(자료구입, 학술연구, 연수 등) 및 창작활동,

II. 시각예술분야 변화 동향 및 지원 사례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내용
(다년지원)	2년간 1회 이상의 개인전 및 3회 이상 그룹전 실적이 있는 만39세 이하 전문예술인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2년간 지원 가능	(2년차) 창작활동 지원 등 선정자 대상 멘토링, 워크숍, 결과보고 등도 진행
국제문화예술 교류지원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대전에서 활동 중인 전문예술인 및 전문예술단체	단체: 3백만원~2천만원 (①아웃바운드 교류: 대전 또는 국외지역 ②인바운드 교류: 대전 내)	국제문화예술교류활동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일부 지원
문화예술연구 및 평론지원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대전에서 활동 중인 전문예술인 및 전문예술단체	개인 및 단체: 3백만원~1천만원	대전 문화예술의 조사연구, 기록보존, 비평 등에 소요되는 직접사업비 일부 지원
장애예술인 창작활동지원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대전에서 활동 중인 ①전문예술인(최근 5년간 1회 이상 개인창작 또는 7회 이상 초대활동) 및 ② 전문예술단체(최근 5년간 문화예술 사업실적이 있고 구성원 50% 이상이 대전에서 거주하는 장애예술인으로 구성)	- 개인: 3백만원~1천만원 - 단체: 5백만원~5천만원	창작활동에 소요되는 직접사업비 일부 지원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입주예술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창작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시각예술인(2명 이내 팀)	입주예술가 프로젝트(재료비 지원), 개인 스튜디오 및 창작공간, 멘토링 등 창작활동 지원	재단창작센터 내 입주작가 창작활동 지원
아티언스대전 (다년지원)	예술가(그룹)	- 1년차: 최대 7백만원 - 2년차: 최대 1천만원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2년간 지원 가능	대전 대덕연구단지 인프라를 기반으로 예술과 과학 융·복합 창작지원(1년차: 협업기관 연구원과 매칭하여 융복합예술 창작활동 진행/ 2차: 결과보고전)
청년예술인 대관료지원	- 개인: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전문예술인 - 단체: 구성원 주소지가 대전광역시 또는 구성원의 출신 대학(원)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인 경우 ※청년구성원의 비율이 70% 이상인 단체	개인·단체: 최대 3백만원	대전 지역 내 전시 및 공연 활동 시 대관료 항목 지원
해외레지던시작가파견지원	대전지역 예술인 중 해외레지던시 공모에 선정 또는 초청된 개인	개인: 6백만원~1천1백만원 (2명 내외)	해외 레지던시 예술활동 소요경비 일부 지원(사업기간 내 최소 3주 이상 해외레지던시 입주 필수)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내용
대전 청년작가장터 (D_ART+)	대전에서 활동 중인 만 39세 이하의 시각예술분야 청년작가(주소지, 학력, 최근 5년간 개인전 2회 이상, 단체적 5회 이상 활동실적 중 1개이상 조건 충족 자)	별도 사업비 지원 없음(20명 내외) ※장터운영(예정): 대전신세계백화점 신세계갤러리, 야외장터, 대전예술가의집 전 시설	작품 판매 장터(공간) 최대 2회 지원, 작품 판매 수익금 전액 작가 지원, 작가별 홍보 영상(1분 내외) 제작



[그림 24] 대전청년작가장터 2021 전시 모습²⁹⁾



[그림 25] 테미예술창작센터 2022 전시 모습³⁰⁾

□ 울산문화관광재단

○ 2023년도 지원사업 특징

- 울산예술지원사업은 기초예술분야 개인 창작활동 중심으로 운영⇒개인 지원사업 지원규모 확대
- 예술가 창작활동비 지원: 예술가(선정자)의 창작활동 전반에 대한 활동 인정(지원예산의 10%이내 편성)
- 경력 및 활동 제한기간 폐지
- 기존 <생애처음-청년예술 지원>, <울청아티스트 지원> 사업을 <울산청년예술 지원>으로 일원화하여 2개 유형(생애처음, 창작발표)으로 운영
- 울산형 예술지원시스템 별도 구축 운영 본격화
- 휴식년제 및 졸업제도 운영

29) 대전문화재단 디지털아카이브 <http://archives.dcaf.or.kr/web/dcaf/progrmInfo/progInfoListView.do>/검색일:2023/07/11

30) 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archives.dcaf.or.kr/web/dcaf/progrmInfo/progInfoListView.do>/검색일:2023/07/11

○ 2023년도 주요사업

[표 10] 2023년 울산문화관광재단 시각예술분야 주요 지원사업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내용
예술창작활동 지원	울산광역시 관내 예술인	- 개인: 5백만원~1천만원	울산에서 창작·발표될 예술 활동 직접 경비 지원
울산 청년예술 지원	공고일 기준 울산광역시에 거주 중이며, 최근 3년 이내 총 거주 기간 1년 이상인 만 39세 이하 청년예술인 (수혜경험이 없거나 활동 실적 2건 이상)	- 생애처음: 4백만원(시상금) - 창작발표: 5백만원~8백만원	울산에서 창작·발표될 예술 활동 직접 경비 지원 ※창작발표지원부문은 다년(2년)사업으로 1년차 사업 평가 후 2년차 지원여부 결정('24년 공모 없음)
장애예술인 창작지원	공고일 기준 울산광역시에 거주 중이며, 최근 5년 이내 총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예술인 중 개인전 또는 기획전·단체전 참여 실적 3건 이상인 자	- 개인: 4백만원(시상금)	울산에서 창작·발표될 예술 활동 직접 경비 지원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증빙 필수



□ 세종시문화재단

○ 2023년도 지원사업 특징

- 전문예술 창작지원사업의 개인지원에 한해 휴식년제 시행(2년 연속 선정 시 1년 휴식)
- 전문예술 창작지원사업의 지원금 하한액 설정(문학분야 제외)
- 심의제도: 무기명 심의 도입(문학분야만 해당)

○ 2023년도 주요사업

31) 울산매일utv, '올해의 작가 개인전' 20년간 발자취 되짚다'기사 중 사진 발췌 <https://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3330/검색일:2023/07/13>

32) CNB뉴스, '울산문화예술회관, 올해의 작가 (5~6월) '유재희 전(展)' 기사 중 사진 발췌 <https://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489369/검색일:2023/07/13>

[표 11] 2023년 세종시문화재단 시각예술분야 주요 지원사업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내용
전문예술 창작지원	공고일 이전 세종시에 주소지를 둔 전문예술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최근 4년간 총 3회(연 1회만 인정) 이상 활동실적 필수	- 개인: 3백50만원~7백만원 - 단체: 7백만원~2천만원	장르별 창작전시 지원(회화·조각·사진·서예·공예·설치·디자인·민화 등)
청년예술 창작지원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최근 3년 간 1회 이상 활동실적을 보유한 전문예술인 및 전문예술단체, 또는 사업 수혜경험이 없는 예술인 및 설립 3년 미만 예술단체	- 청년예술 · 개인: 7백만원 · 단체: 2천만원 - 생애최초 · 개인: 5백만원 · 단체: 1천5백만원	장르별 창작전시 지원(회화·조각·사진·서예·공예·설치·디자인·민화 등)
갤러리 대관료 지원	공고일 이전 세종시에 주소지를 둔 예술인 또는 4인 이상 그룹, 예술단체(최근 3년간 1회 이상 또는 최근 4년간 총 3회(연 1회) 이상 활동실적)	- 관내 갤러리: 1천만원 - 관외 갤러리: 1천5백만원	관내 갤러리 대관료 및 관외(서울지역) 갤러리 공간 지원 ※(관내) 부가가치세 제외한 대관료, (관외) 서울갤러리 대관료, 운송료, 설치비 등(재단 직접 지출)
전시공간 지원	공고일 이전 세종시에 주소지를 둔 예술인 또는 2인 이상 그룹, 예술단체(개인전 1회 또는 그룹 참여 2회 이상/ 그룹 2/3 이상 실적 기준 총족, 단체적 2회 이상 실적)	예산지원 없음(35건) ※연간 총 2차례 공모 진행('23.2월~'24.2월 35회차 진행, 전시기간은 회당 11일~12일), 취소 발생대비 예비 2순위까지 선정	전시 공간 무료 지원 (박연문화관 전시실, BRT작은미술관)



33) 디트뉴스24, '세종시 작가 8인방, 오는 26일 서울 인사동 전시 무대 선다' 기사 중 사진 발췌 <http://www.dtnews24.com/news/userArticlePhoto.html?검색일:2023/07/13>.

34) 중부매일, '쉐마미술관서 토요일에 만나는 '예술 산책' 기사 중 사진 발췌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91836/검색일:2023/07/13>.

□ 강원문화재단

○ 2023년도 지원사업 특징

- 예술창작활동 지원자격 완화(활동기간 3년→5년, 예술활동 10년 이내 조건 폐지)
-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유형 다각화, 조력자(가족 등) 참여 확대
- 강원도형 창작콘텐츠 육성 강화: 다양한 지원사업의 창작콘텐츠 지속 관리지원(홍보, 유통)까지 업무영역 확대, 기획-창작-유통으로 이어지는 육성형 지원사업으로 추진

○ 2023년도 주요사업

[표 12] 2023년 강원문화재단 시각예술분야 주요 지원사업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내용
예술나래지원 (구.전문예술지원)	강원도 소재 또는 강원도에서 최근 3년 이상 활동한 전문예술단체 및 전문예술인	- 개인: 5백만원~20백만원 - 단체: 5백만원~30백만원	전문예술인 및 전문예술단체의 창작활동 지원
예술첫걸음지원 (구. 생애최초)	강원도에 거주하며 도내 공공지원 실적이 없는 예술가(나이 제한이 없으며 도외 지역 공공지원 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가능)	개인: 3백만원~5백만원	도내 공공지원 실적이 없는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청년예술지원	강원도에 거주 또는 최근 3년간 지속 활동하고 있는 만 39세 이하의 청년예술인	개인: 최대 10백만원	역량 있는 청년예술인 발굴 및 창작활동 지원
장애예술인 문화활동지원	도내 거주 및 창작활동 중인 장애예술인	개인: 2백만원~5백만원	도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문화예술교류지원	강원도 소재 예술단체 및 예술인(최근 3년간 단체 2회, 개인 1회 이상 활동)	국내·국제 교류/국제레지던시 · 개인: 최대 10백만원 · 단체: 최대 30백만원	국내 및 국제 교류, 국제레지던시(자율형) 등 문화예술 교류 활동 지원
문화예술공간지원	도내 비영리 창작공간을 소유한 문화예술단체	- 유휴공간 활용형 최대 1억원 (성과평가로 3년 연속 가능) - 창작공간 지원형 최대 5천만원	도내 문화공간 개발 및 지원 (사업 및 공간 운영비 지원)
강원작품개발지원(강원다운) - 다년지원	강원도 내·외 전문예술인 및 전문예술단체 ※지원주제: 강원도 문화자원(인물, 설화, 장소 등) 및 사회적 이슈(다양성, 평화, 환경 등)	- 1년차: 최대 10백만원 - 2년차: 최대 50백만원	다년간 단계별 지원을 통한 강원도 특화 작품 개발(1년차: 리서치, 연구 기획, 2년차: 작품 제작 및 발표)

35) 강원문화재단, 2022 강원문화예술지원사업 결과자료집(웹용), 2022, p.18.



[그림 30] 2022 청년예술인지원 교류 워크숍³⁵⁾



[그림 31] 2022 전문예술지원 시각분야 선정예술인 이재열 작가 개인전 모습³⁶⁾

□ 충북문화재단

○ 2023년도 지원사업 특징

- 시각분야 시상금 형태 지원방식 도입
- 지역균형: 청주/ 청주 외 지원신청 비율을 고려하여 지역 쿼터제를 탄력적으로 운영
- 장애예술인(예술단체) 지원 시 가산점(2점) 부여
- 예술활동 범위 확대: 지원금 내 개인 창작활동비 편성 유지(지원금 20% 이내 편성)
- 휴식년제: 문화예술육성지원, 우수창작활동지원사업 중 개인 선정자에 한해 1년 휴식

○ 2023년도 주요사업

[표 13] 2023년 충북문화재단 시각예술분야 주요 지원사업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내용
창작거점공간지원	공고일 이전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며, 최근 3년간 매년 2회 이상 활동실적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1개, 작가작업실2개 이상의 공간을 보유한 (전문예술)단체	- 단체: 3천만원~4천만원 ※전문예술법인·단체(충청북도 지정), 장애예술단체 가산점 각 2점 부여	기본프로그램(①창작 및 연구 활동, 리서치, 아카이브 작업 등 ②입주예술가역량강화프로그램 ③타기관, 단체와의 교류 프로그램 ④퍼블릭(지역민대상) 프로그램 ⑤자유기획프로그램) 중 3가지 선택 추진
청년예술가창작 활동지원	만19세~만39세의 충북 연고의 예술가 (①공고일 이전 충청북도에 거주 ②충북출생자 ③충북에 1년 이상 거주 경험자 ④충북 소재학교(초, 중, 고 대 중 1개 이상) 졸업생	- 개인: 5백만원 정액 ※개인 창작활동비 (월 25만원, 최대 8개월까지) 편성 가능 ※장애예술인 가산점 2점 부여	회화, 서예, 입체, 설치, 영상, 사진 등 시각예술 분야의 전시 지원 ※2가지 유형(일반/연속지원) - 일반지원: 충북에서 예술창작 활동 계획이 있는 청년 예술가의 전시지원

36) 강원문화재단, 위의 결과자료집, p.34

II. 시각예술분야 변화 동향 및 지원 사례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내용
	①~④중 하나만 부합하면 신청 가능)		- 연속지원: 전년도 사업 선정자가 지원가능하며 지원 내용은 일반지원과 동일(전시지원) ※연속지원은 자격요건만 부여, 일반지원과 심의 동일
청년예술단체지원	청년예술가로 구성된 문화예술단체 (①만19세~만39세 이하 청년 3인 이상 구성 ② 설립 3년 이내인 단체 ③구성인원50% 이상이 충북도민 또는 충북 연고인으로 구성) ①~③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단체: 5백만원~7백만원	회화, 서예, 입체, 설치, 영상, 사진 등 시각예술 분야의 전시 지원 ※프로젝트 그룹 인정(본 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조직된 개인 예술가 중심의 집단, 그룹 구성원 중 1인이 대표로 '개인'으로 선택하여 신청)
예술창작활동지원 (육성/우수)	공고일 이전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최근 5년간 1회 이상 활동실적 예술인 및 단체(육성-A유형), 최근 5년간 3회 이상 활동실적 예술인 및 단체(우수-B유형)	- 육성(A유형) · 개인: 3백만원~7백만원 · 단체: 4백만원~1천만원 - 우수(B유형) · 개인: 5백만원~1천만원 · 단체: 7백만원~2천만원 ※개인선정자의 창작활동비 지급 가능(지원금 20% 이내)	예술활동 가치를 확장시킬 수 있는 우수한 예술창작 활동 지원 ※A유형은 지역균형 유지(청주/ 청주외 지역의 지원신청 비율을 고려하여 지역쿼터제 탄력적 운영)
국제교류지원	공고일 전일 현재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최근 5년간 3회 이상 활동 실적이 있는 예술인 및 전문예술단체(국제문화예술 교류활동 계획이 있어야 함)	- 자유공모형/지정공모형 · 개인:3백만원 이내 · 단체: 1천2백만원 이내	- 자유공모형: 국외 예술인(단체, 기관)과의 국제문화예술 교류활동 지원 - 지정공모형: '23년부터 재단 해외협력(협약)기관과 연계 추진 ※별도공모
충북형 기획지원	공고일 전일 현재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최근 5년간 3회 이상 활동 실적이 있는 예술단체(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 중 1종을 보유한 문화예술단체) ※ 타지역 단체일 경우 사업 주요 참여자(활동가, 예술가 등)의 50% 이상 충북 지역민 필수 구성	단체: 2천만원~2천5백만원 ※단체 선정 후 워크숍(기획서 보완)을 거쳐 예산심의(지원금 확정) ※장애예술인 가산점 2점 부여	사회적 이슈를 예술가의 언어로 해석해 보는 모든 프로젝트(연구, 실험, 발표, 전시, 출판, 포럼 등) 지원
온라인미디어 예술콘텐츠	공고일 전일 현재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최근 5년간 1회 이상 활동	- 미디어 활용형: 5백만원~1천5백만원 - 미디어 실험형: 5백만원	- 미디어활용형: 미디어를 활용한 콘텐츠 지원(숏폼 형태 공연 제작, 음원 및 뮤직비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내용
지원	실적이 있는 예술인 및 예술단체	원~2천만원 ※개인 선정자는 창작활동비 지급 가능(지원금 20% 이내)	디오제작, 메이킹 필름, 다큐, 플랫폼 구축 등) - 미디어실험형: 예술과 기술을 융합한 기술중심적 새로운 콘텐츠 지원(실감형 콘텐츠(VR, AR 등) 및 기술 기반 인터랙티브 콘텐츠, 메타버스 전시, NFT 등)



[그림 32] 충북민족미술인협회 기획전 <이웃집 작업실> 전시 모습³⁷⁾



[그림 33] 백송희 작가 <일상을 담아내다> 전시 모습³⁸⁾

□ 충남문화관광재단

○ 2023년도 지원사업 특징

- 단체 주요 참여인력 충남 거주 비율 80% 준수
-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창작활동 인정
- 충남문화예술 서울전시장 CN갤러리 사업 장소 확대
- 공모 신청 효율화: 공모 시기 일원화, 행정절차 간소화
- 단체 대표자 기획료(보조금 총액 5%) 및 사례비(사례비 15%이내), 예술가 개인 창작비(아티스트 피/최대 1백50만원) 인정 계속
- 간접지원과정 적용: 전문가 멘토링, 사례공유(교육), 활동강화 체험, 워크숍, 교류협력 등의 과정이며 기획안 심의 사업(충남다원예술, 사회적가치특화지원, 충남예술교류지원) 적용⇒ 간접지원을 감안하여 예술인 아티스트 피 5% 상향 조정

※아티스트 피: 간접지원 미포함 사업 20%, 간접지원 포함 사업 25%

37) 충북문화재단, 2022 연차보고서, 2022, p.30

38) 충북문화재단, 위의 보고서, p.32

- 격년휴식년 적용: 충남(문학·시각·음악·연극·무용·전통)예술지원-개인 분야

○ 2023년도 주요사업

[표 14] 2023년 충남문화관광재단 시각예술분야 주요 지원사업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내용
생애최초창작지원	공고일 전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만29세 이하, 예술대학 및 유사학과 졸업자로 보조금 수혜 경험이 없는 개인 또는 팀(초·중·고·대학 재학생 제외)	- 개인: 5백만원 이내 - 팀(10명 이내): 8백만원 이내	한국화, 서예, 서양화, 사진, 회화(판화), 조각, 공예, 조소, 영상, 평론 등 전시 및 창작·발표활동 지원
신진예술창작지원	공고일 전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만39세 이하 개인예술가(최근 3년간 수상 실적, 최근 2년간 1회 이상 전시, 2회 이상 참가경험자) 및 충남에서 활동하는 설립 3년 미만 전문예술단체	- 개인: 6백만원 이내 - 단체: 8백만원 이내	한국화, 서예, 서양화, 사진, 회화(판화), 조각, 공예, 조소, 영상, 평론 등 전시 및 창작·발표활동 지원 등 전시 및 창작·발표활동 지원
충남시각예술지원	공고일 전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최근 3년간 매년 1회 이상(총3회 이상)의 시각예술활동(전시회 등) 실적이 있는 예술인 및 전문예술단체	- 개인: 7백만원 이내 - 단체: 1천2백만원 이내	시각예술 장르별 발전·창작의욕 고취를 위한 전시 및 창작활동 지원
충남다원예술지원	최근 3년간 매년 1회 이상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예술인(개인) 및 만39세 이하에 한해 최근 3년간 1회 이상 예술 활동실적을 보유한 예술인(개인)(예술대학 및 관련학과 졸업자에 한함)	개인: 4백만원 정액 지원	실험적 시도가 살아있는 예술활동 지원(예술과 기술 융·복합, 장르 간 융·복합(장르 나열식 제외) 등 ※간접지원 필수
예술연구과정지원	최근 3년간 매년 1회 이상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예술연구 과정 등의 실적 또는 창작 분야 실적이 있는 예술인(개인) 및 팀, 전문 예술단체	- 개인: 4백만원 이내 - 팀: 6백만원 이내 - 단체: 8백만원 이내	지역문화예술 및 예술의 역사와 흐름, 동시대 예술 현안 등에 대한 연구 등 예술 활동 전체와 과정을 포괄하는 사업 지원
지역특화문화브랜드 기획지원	최근 3년간 매년 1회 이상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단체	단체: 3천만원 이내	충남의 지역문화자원·역사문화자원·자연환경·이야기자원을 연계하거나 활용한 창작 기획사업 등
사회적 가치특화지원	최근 3년간 매년 1회 이상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예술인(그룹) 및 만39세 이하에 한해 최근 3년간 1회 이상 예술 활동 실적 보유(예술대학 및 관련학과 졸업자에 한함)	- 개인: 4백만원 이내 - 팀: 6백만원 이내	충남의 문화적, 환경적, 사회적 이슈 등을 주제로 한 활동 지원 ※간접지원 필수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	충청남도에 소재한 공간으로 최근 3년간 매년 1회 이상 문화예술활동(전시기획 등) 실적이 있고 창작공간, 숙박공간을 보유한 전문문화예술 법인 및 단체	- 단체: 5천만원 이내 ※매칭지원제: 3년 연속지원 대상 단체의 4년차 지원 시 보조금 70%, 자부담 30% 비율로 매	창작 활동 및 교류의 장 프로그램, 예술가 창작 지원 및 지역 연계 퍼블릭(지역민 대상) 프로그램, 레지던스 간 전시 교류 등 거점 지원 필수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내용
		칭지원(4배수 연도에만 해당), 자부담 정산 완료된 경우만 보조금 지원	
충남예술교류지원 (협력교류/ 거점교류)	(협력교류)①최근 3년간 매년 1회 이상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예술인 개인 및 팀 ②(청년예술인)만39세 이하에 한해 최근 3년간 1회 이상 예술 활동 실적 보유(예술 대학 및 관련학과 졸업자에 한함) 중 하나 이상 조건 충족 (거점교류) ①예술 공간 보유 예술인(개인) 또는 공간 운영 예술인(개인), ②문화 예술공간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공간운영 예술인(개인), ③공간 보유 확인 서류 증명 필수(임대차계약서 가능) ①~③을 모두 충족해야 함	- 협력교류 · 개인: 4백만원 이내 · 팀: 6백만원 이내 - 거점교류: 8백만원 이내	예술창작교류, 역량강화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무형의 예술교류 및 도내 문화예술 활용가능 공간 개발 및 거점간 교류를 통한 공간 인큐베이팅 등 유형의 거점 교류 활동 지원 ※간접지원 필수



[그림 34] 2023년 충남다원예술·사회적가치특화·예술교류 간접지원 과정 ‘메타적 실험실’ 현장³⁹⁾



[그림 35] 충남문화예술 서울전시장 CN갤러리 김성훈 작가 개인전 모습⁴⁰⁾

□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 2023년도 지원사업 특징

-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지원예산 상향 조정: 문화예술창작-육성, 창작집 발간/ 청년예술창작 전년대비 1백만원 증액
- 창작공간활성화지원사업 지원 장르 확대: 시각예술·문학→시각예술·문학·영상 콘텐츠(영화)
- 휴식년제: 지역문화예술특성화사업 중 육성사업은 개인은 격년제, 단체는 3년 연속 지원 후 휴

39) 충남문화관광재단 뉴스레터 https://www.cacf.or.kr/_kor/developer/m_mailing_de/m_board.php?m_mode=view&pds_no=2023070710282147001&PageNo=1/검색일:2023/07/13.

40) 충남문화관광재단 뉴스레터 https://www.cacf.or.kr/_kor/developer/m_mailing_de/m_board.php?m_mode=view&pds_no=2023070710273889346&PageNo=1/검색일:2023/07/13.

- 식년, 집중 및 기획사업은 4년 연속 지원 후 휴식년
- 가산점 부여: 전라북도 군 단위(8개), 장애인(단체), 신규(최초지원) 지원시 2.5점 부여, 합계 5점까지 인정
- 전북 아트플랫폼 낙서창고 井 개관: 재단이 전라북도 정읍시와 지역의 유휴공간을 개선하여 문화뉴미디어를 주제로 미디어아트 기반의 문화공간 운영

○ 2023년도 주요사업

[표 15] 2023년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시각예술분야 주요 지원사업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내용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_문화예술창작(육성, 심화)	전라북도 소재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①육성: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또는 ②심화: 최근 5년 이내 5회 이상 활동)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중 1개 필수 제출(개인주소지 및 단체 소재지 전북 제한)	- 육성: 4백만원 - 심화: 6백만원~8백만원 ※전 분야 온라인 예술활동(e-book, 온라인 전시 및 공연) 형태 허용	- 육성: 정기연주회, 발표회, 개인전 및 중소 규모 전시 지원 - 심화: 대규모 전시 지원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_문화예술 기반구축	전라북도 소재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활동)	개인 및 단체: 7백만원~1천1백만원	문화예술가 발굴·육성사업 및 연구프로그램 지원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_청년예술창작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하 예술인 및 단체(단체의 경우 전원 청년예술가로 구성)	개인 및 단체: 4백만원	창작 및 발표활동 지원
문화예술교류지원사업	전라북도 소재의 예술단체 및 예술인	개인 및 단체: 5백만원~1천만원	교류활동(국내초청, 국외진출, 비대면 교류)에 필요한 경비 일부 지원
민간문화시설 기획프로그램 지원사업	관련법에 따라 등록된 전라북도 소재의 민간 문화시설(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문학관)을 운영하는 단체	단체: 1천만원~3천만원 ※공립(도·시·군립) 기관 및 지자체에서 운영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문화원, 문화의집, 민간위탁문화시설 지원 불가	기획 프로그램(4개 이상) 제작 및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지원
창작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전라북도내 창작 공간(전시공간, 작업공간, 숙박공간)을 보유 또는 운영 중인 단체 ※신청단체 대표자와 공간 운영주가 동일해야 하며 숙박 공간은 '거주형'에만 해당	- 거주형: 4천만원~7천만원/전시(상영)·작업·숙박 공간 모두 갖춰야 함 - 비거주형: 3천만원~4천만원/전시(상영)·작업 공간을 갖춰야 함	창작 공간 활성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경비 지원 ※면적조건: 전시(상영)공간은 단일공간 기준으로 66㎡(20평) 이상, 작업공간은 다중 공간 합산가능하며 33㎡(10평)/전시(상영)·작업·숙박 공간은 모두 구분되어야 함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내용
전북미술시장 활성화 미술품 대여 지원사업	지정된 전시공간 내 미술품 대여, 전시를 진행하고자 하는 도내 문화예술 전문역량을 가진 시각예술분야 민간 단체	단체: 8백만원~1천1백만원 ※대여기간 2개월	미술시장 활성화 협약기관(기업) 내 미술작품 전시에 따른 작품 대여비 및 기획자 인건비
순수예술작가 아트상품개발 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도내작가로서 시각예술분야 전업작가팀으로 지원가능하나 모든 구성원이 지원자격 충족 필수(전원 예술활동증명완료자)	개인 및 팀: 3백~4백만원	작품 원작을 활용한 굿즈(아트상품) 개발·제작비 지원



[그림 36] 창작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도키텍프로젝트협동조합 시사회(41)



[그림 37] 순수예술작가 아트상품개발
지원사업 아트상품 전시행사(42)

□ 전라남도문화재단

○ 2023년도 지원사업 특징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육성사업) 단체지원액 상향: (기존)5백만원→(변경)7백만원
- 지역문화예술특성화(기획사업) 사업이관 및 신설
 - 이관사업: ‘사회적가치지향 프로젝트’를 재단 기금사업으로 이관 ※ 별도 공모
 - 신설사업: 현 지원사업 사각지대 해소 및 지원영역 확장을 위한 ‘자율기획형 공모사업’
- 휴식년제: 지역문화예술특성화사업 중 육성사업은 개인은 격년제, 단체는 3년 연속 지원 후 휴식년, 집중 및 기획사업은 4년 연속 지원 후 휴식년
- 미술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남도예술은행, 예술작품 멤버십 렌트사업, 남도사이버갤러리 운영

41)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2022 연차보고서, 2022, p.26

42)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위의 책, 2022, p.30.

○ 2023년도 주요사업

[표 16] 2023년 전라남도문화재단 시각예술분야 주요 지원사업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내용	
지역문화예술특성화(육성)_지역문화예술육성	전라남도 내 거주 예술단체 및 예술인	- 개인: 3백만원 - 단체: 7백만원	창작, 전시, 연구 활동(행사, 창작활동, 책자 발간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 홍보비, 인쇄출판비 등)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집중)_창작공간활용	전라남도 내에 소재하며 도내 창작공간을 소유한 예술단체 또는 도내 창작 공간으로 활용가능한 시설과 협약한 문화예술 단체	- 거주형: 6천만원 - 비거주형: 3천만원	입주작가 아티스트 피 지원(월 50만원이내, 3개월 이상), 필수프로그램(결과발표회·역량강화교육·주민연계·아카이브 활동 등) 운영 지원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집중)_청년 예술가 활동	전라남도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예술가(개인)	- 1년차: 1천만원 이내 - 2년차: 1천5백만원 이내 ※1년차 사업수행 실적 성과평가를 통해 2년차 지속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결정	창작활동비 및 창작 공간 지원 ※단계별 지원체계: (1년차-창작준비)창작역량 강화 기초 지원, (2년차-창작발표)창작발표 지원 및 창작역량 심화 지원	
지역문화예술특성화(기획)_자율 기획형 '모두의 예술'	전라남도 도내·외 문화예술 단체	단체: 최대 40백만원 이내 ※책임심의제 운영: 사업 선정, 컨설팅, 평가까지 일원화	주제와 형식에 제한이 없는 완성형 프로젝트 지원(생태, 예술·기술융합, 국내외 문화 예술 교류 등)	
미술시장 활성화 사업	ArtMotion	전라남도에 2년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전남 출신 미술작가	전남도문화재단 홈페이지(http://www.jncf.or.kr/jact/active/artmarket.do) 참조	서울 옥션 온라인 경매 '제로베이스 in 전남', 서울 아트페어, 블루아트페스타 기획전 참여 지원
	작품 판매 및 임대	공공기관, 기업, 문화예술기관, 비영리기관, 개인 등	작품임대비 별도 있음 유상(원칙), 무상(사회공헌 목적)	재단 소장작품 100여점 대여, 대여기간 및 임대비는 기획전시(비영리목적), 환경조성(영리목적) 적용
	지역 미술작가 작품 구입	전라남도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전남 출신 미술작가	전남도문화재단 홈페이지(http://www.jncf.or.kr/jact/active/artmarket.do) 참조	지역미술작가들의 창작활동 지원, 작품 구입방법은 공모제 원칙

43) 이데이뉴스, 'oh! 友 도화현' 기사 중 사진 발췌 <http://edaynews.com/detail.php?number=19662/검색일:2023/07/13>.

44) 광주일보, '작가지원, 컬렉터 발굴'일석이조' 기사 중 사진 발췌(<https://kwangjuilbo.tistory.com/3296/검색일:2023/07/13>).



[그림 38] 창작공간활용사업 선정단체 도화헌 미술관 전시행사(43)



[그림 39] 고차분 작가 작품 <창밖으로> 44)

□ 경북문화재단

○ 2023년도 지원사업 특징

- 신청자격 완화
 -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시 3년간, 군 1년간 연 1회 이상 실적→최근 3년간 1회 이상 실적
 -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 경북 소재 2년 이상 단체 및 최근 2년간 연 1회 이상 활동실적 단체 →경북 소재 단체 및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활동실적 단체
- 공모유형 신설: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중 장애예술인 및 단체(육성형, 기획형) 유형 신설
- 공유예술장터 23아트 마켓 운영

○ 2023년도 주요사업

[표 17] 2023년 경북문화재단 시각예술분야 주요 지원사업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내용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 공고일 기준 주소지가 경상북도이며 최근 3년간 1회 이상 실적을 가진 문화예술단체(①육성형: 예술단체(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②기획형: 전문예술단체·법인 ※전문예술단체(법인) 지정서 없을 시 사업참여자 중 50%이상 인원의 예술활동증명서 제출시 인정) - 개인: 공고일 기준 주소지가 경상북도인 장애예술인 또는 청년예술인(장애예술인은 장애인등록증 필수, 청년예술인은 만39세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성형: 2백만원~5백만원 · 기획형: 7백만원~1천만원 -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예술인: 2백만원~5백만원 · 청년예술인: 2백만원~5백만원 	작품활동에 필요한 직접경비 지원(재료비 등)

II. 시각예술분야 변화 동향 및 지원 사례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내용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	공고일 기준 주소지가 경상북도이며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기관·단체 ※개인지원불가	단체: 2천만원~4천5백만원	입주예술인 역량강화, 자유기획프로그램(필수) 등
예술작품 대여사업 경북미술은행	- 경상북도내 복지시설 및 기관 ※작품의 보존관리를 위해 적합한 습도, 조도, 잠금장치 등 조건이 만족되어야 함	단체: 시설 당 최대 3점, 6개월간	경북예술인의 미술작품 무상대여 ※추진절차: 대여 신청 →작품 확인 및 약정 체결→작품 운송 및 전시→약정 종료 및 반납



[그림 40] 148 아트스퀘어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사업 성과전 자료전시⁴⁵⁾



[그림 41] 포항청년작가회 지난해 정기전 모습⁴⁶⁾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 2023년도 지원사업 특징

- 지원금액 및 분야 개편
 - 지원금액: 분야별 차등지원→지원한도 10백만원 이내
 - 지원분야: 문학, 시각, 공연예술, 다원, 예술서적, 원로, 신진→기초문화예술분야 집중지원
- 신청자격 변경(개인)
- 중복지원신청은 가능하나 1개 사업만 선정·지원

45) 경북일보, '영주문화관광재단, 경북문화재단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사업 최종 선정' 기사 중 사진 발췌 <http://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6676/검색일:2023/07/13>.

46) 노컷뉴스, '포항청년작가회 '38회 정기전' 청년미술의 현 수준 점검' 기사 중 사진 발췌 <https://www.nocutnews.co.kr/news/5869785/검색일:2023/07/13>.

○ 2023년도 주요사업

[표 18] 2023년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시각예술분야 주요 지원사업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내용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경상남도 소재 및 경남도에서 최근 3년 이상 활동한 전문예술단체 및 전문예술인	개인 및 단체: 1천만원 이내	경상남도에서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창작활동 및 작품 활동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	공고일 기준 경상남도내 설립일 3년 이상, 단체 등록증 발급받은 단체로서, 도내에서 최근 5년간 3회 이상 문화예술 활동실적 단체	단체: 시설당 4천만원~8천만원	기획 공모형 사업 지원(지역연계, 역량강화, 오픈 스튜디오, 전시 등)
경남예술창작센터 지원	전국(만25세 이상 만 45세 미만 창작활동이 활발한 작가/시각·문학)	- 월 70만원(재료비 20, 활동비 50) - 창작공간 및 숙소 제공 등	진흥원 청사(합천) 내 공간을 통해 창작 활동 지원
문화예술기획지원	기초지자체 사업협의체(컨소시엄)	-단체: 5천만원~8천만원	기획형 지역문화예술콘텐츠 발굴 및 브랜드화 지원



[그림 42] 경남예술창작센터 입주작가 전문가 매칭비평 워크숍⁴⁷⁾



[그림 43]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사업 결과전시회⁴⁸⁾

□ 제주문화예술재단

○ 2023년도 지원사업 특징

- 공모시기 일원화, 지원규모 정액제 확대, 지원자격 완화 및 자부담 예산편성 폐지
- 지원자격 명확화 및 지원 확대: 신진·원로 예술인, 장애예술인 등 사각지대, 생애주기별 지원 확대

47) 경남문화예술진흥원, 2021 연차보고서, 2021, p.53

48)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위의 책, 2021, p.54

- ESG 관련 심의 지표 신설하여 ESG 가치를 기반으로 기후위기, 탄소중립, 안전관리 등 지속가능한 문화예술활동이 될 수 있도록 심의 지표 마련(지표/GREEN(예술활동계획)-세부내용/일회용품 자제,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사용 등, 안전관리 지침 등)
- 환류점수 심사 반영: '22년 지원사업자가 '23년에 지원 신청한 경우, 심의위원 심의 결과에 전년도 평가 등급에 따른 점수(+3점~-2점)를 합산

○ 2023년도 주요사업

[표 19] 2023년 제주문화예술재단 시각예술분야 주요 지원사업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내용
예술창작활동 (진입, 안정화, 고도화)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 및 예술단체 - A형(진입): 첫 활동 이후 경력 6년 미만/설립 3년 미만의 해당분야 단체 - B형(안정화): 첫 활동 이후 경력 6년 이상 16년 미만/설립 3년 이상, 최근 3년간 해당분야의 2회 이상 실적단체 - C형(고도화): 첫 활동 이후 경력 16년 이상	- A형(진입) · 개인: 3백만원 · 단체: 5백만원 - B형(안정화) · 개인: 5백만원 · 단체: 최대 2천만원 - C형(고도화) · 개인: 6백만원	전시 기획 및 구현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제주원로 예술인 활동지원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소재(거주)한 만 70세 이상, 경력 30년 이상의 예술인	개인: 1천만원 ※ 사업 전담 인력(기획자, 행정전담 등) 1인 이상 필수로 두어야 하며 예산 편성 가능	전시 기획 및 개최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장애예술 창작활동지원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거주)한 장애예술인 및 대표자가 장애인 단체(단체 구성원 또는 프로젝트 참여자 중 장애인이 30% 이상 포함)	- 개인: 5백만원 - 단체: 최대 2천만원 ※ 사업 전담 인력(기획자, 행정전담 등) 1인 이상 둘 수 있고 예산 편성 가능, 대표자 사례비 총 지원금 20%내 편성 가능	시각예술분야(한국화, 서예, 문인화, 서양화, 판화, 조각, 공예, 설치, 디자인, 미디어, 사진, 건축, 기타(복합장르) 등) 전시, 행사 활동 지원
우수창작 활동지원 (다년지원)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거주)하는 관련 분야 예술가 및 예술단체	- 1년차(준비단계): 1천5백만원 - 2년차(결과발표): 3천만원	시각예술 등 예술 전 분야의 2개년도 계획의 우수기획 프로젝트 지원
국제예술교류 지원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관련 분야 예술인 및 예술단체	- 개인: 1천만원 - 단체: 최대 3천만원 ※법인단체 사례비 편성	- 제주지역: 문화예술 상호 교류 활동 및 발표, 해외 예술가, 단체를 초청사업 ※제주 외 불가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내용
		(직접적 활동(기획, 연출 등)을 한 경우는 총 지원금 20% 이내)	- 국외지역: 공신력 있는 국외 기관, 단체와 공동 제작 발표, 국외 레지던스 및 예술사업 참여 지원
E로운 제주 예술프로젝트 지원	공고일 기준 제주에 소재하는 관련 분야 예술인 및 예술단체로 수행1회 이상 실적	- 1년차(준비단계): 2천만원 - 2년차(결과발표): 4천만원 ※대표자 사례비(총지원금 20% 내) 편성 가능	예술 전 분야의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2개년도 예술 프로젝트 지원(교육, 리서치, 연구, 워크숍, 갈등관리 등 준비단계 및 실현 지원) ※1년차 성과 평가 및 심의통해 2년차 지원여부 결정
창작공간 프로그램지원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예술 단체 및 기초예술 창작 공간	시설: 2천5백만원 ※예술인의 창작 활동에 필요한 참여예술가 아티스트 피(월 60만원 이내) 편성 가능, 추가 사례비 불가	예술인 발굴 및 역량 강화, 교류 및 협업 등 창작 공간 프로그램 지원
작은예술공간 프로그램지원	최근 3년간 2회 이상 문화예술 프로그램 활동 실적이 있는 도내 소재 복합예술공간	시설: 5백만원	복합예술공간 내 소규모 행사(문학행사, 전시, 공연 등) 지원
문화예술 연구 및 비평지원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관련 분야 예술인 및 예술단체	개인 및 단체: 8백만원 ※디지털 매체를 통한 비평활동 포함	연구, 비평, 학술 등 예술비평 관련 활동(워크숍, 세미나, 심포지엄 등)
창작역량강화 지원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둔 예술단체	단체: 5백만원	예술단체 예술적 및 예술경영 역량 강화 프로그램



[그림 44] 우수기획창작활동지원(에코아웃)⁴⁹⁾



[그림 45] 창작공간프로그램지원사업(아트랩와산)⁵⁰⁾

49) 제주문화예술재단, 2021 연차보고서, 2021, p.25

50) 제주문화예술재단, 위의 책, 2021, p.25

3. 시사점

□ 지원사업 대상자(참여자)의 다각화

- 기존의 지원사업은 예술인 및 예술단체 즉, 창작자나 단체가 지원대상의 핵심이었다면, 최근 지원대상의 범위를 기획자 개인 및 단체, 프로젝트팀으로 다각화하는 사업을 공모하고 있음
- 시각예술분야의 특성상 단체보다 개인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어, 개인이 아닌 단체 자격 필요시, 지원 및 선정률이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지원대상이 다각화됨으로써 더 많은 사업지원 기회에 도전할 수 있게 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창작단계별 지원⁵¹⁾, 인천문화재단 예술창작일반지원의 신진예술인 선정 사업⁵²⁾,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예술창작공간 실험적 프로젝트 사업과 예술창작공간 기술융합 전시 기획자 선정 사업의 경우 기획자 및 기획이 가능한 예술인(단체)의 지원이 가능함⁵³⁾
- 서울문화재단 언폴드엑스 사업의 기획자캠프 프로젝트나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청년예술활성화 지원, 충북문화재단의 청년예술단체지원사업의 경우는 프로젝트팀의 지원이 가능함
-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각화하는 양상은 다음의 사업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과 예술기반지원 창작예술공간 지원사업의 경우는 서울에서 작품제작 및 발표를 진행하거나 창작예술활동을 목적으로 서울시 소재의 공간을 월세로 임차하는 예술인(단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인천문화재단의 경우 인천 연고 기준을 완화하면서 지역 예술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경력주기에 따른 맞춤형 성장을 위한 사업 설계 변화

- 생애주기별 사업과 더불어 개인이나 단체의 예술활동 경력이나 단체설립 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경력주기별 사업으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서울문화재단의 예술창작활동지원은 첫 발표 이후 활동기간을 기준으로, 광주문화재단에서는 단체설립 연도를 기준으로 지원사업을 세분화하여 설계하고 있음

□ 예술의 수월(秀越)성을 높이기 위한 다년지원과 집중지원

- 예술 창작준비부터 실연까지의 과정을 다년, 집중 지원함으로써 창작결과물의 수월(秀越)성을

5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단계별 지원사업 <준비과정-창작의 과정>과 <창작 및 발표 과정-우수전시지원>의 경우 기획자 개인 및 단체, 프로젝트팀(책임기획자 개인 신청 가능)의 신청이 가능하며, 우수전시지원 신청자는 독자적인 전시를 최소 2회 이상 기획 추진한 자로서 현재 국공립 미술관 상근 직원은 제외함

52) 인천문화재단 예술창작일반지원의 신진예술인 선정 사업의 지원대상은 예비예술인, 기획자나 큐레이터를 포함하고 있음

53)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예술창작공간 실험적 프로젝트 사업과 예술창작공간 기술융합 전시 기획자 공모사업은 기획자 및 기획이 가능한 예술인(단체)의 지원이 가능토록 함

기대하고 우수 예술창작을 통해 지역 예술가와 창작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데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음

- 인천문화재단의 예술창작집중지원사업의 경우 개인 창작물을 활용한 시민 교류, 문화 향유가 가능한 기획 프로그램으로 창작준비부터 실연까지의 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전문화재단의 차세대 ArtiStar는 1년차 역량강화(자료구입, 학술연구, 연수 등) 및 창작활동 지원, 2년차 창작활동 지원, 선정자 대상 멘토링, 워크숍, 결과보고의 진행과정을 집중 지원하고 있음. 이러한 다년, 집중지원사업은 참여 예술인의 동반성장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이 외에도 제주문화재단의 우수창작활동지원 역시 지원사업 2개년도 계획의 우수 기획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으로, 1년차 준비단계, 2년차 결과발표 과정으로 다년, 집중 지원하고 있음
- 우수예술 집중지원은 지역의 문화예술 생태계를 안정화하고 유통 확산을 견인하는 중요 요소이며, 지역사회 문화저변 확대를 위한 필요 지원이라고 할 수 있음

□ 유통 확산 단계의 지원사업 개발

- 준비/과정, 제작/발표, 유통/확산으로 이어지는 예술의 단계별 지원 필요성이 충분히 인지되고 있으며, 특히 유통과 확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관객을 확보하거나 시민들로부터 회자되는 기회가 다양해지고 있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도 올해 지원사업 설명회를 통해 창작활동의 우수한 성과들이 다음 단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비평, 해외교류 지원, 창작공간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작품의 유통 및 확산도모 계획을 밝혔음
- 시각예술분야 창작물의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대중시설 등에서 미술품을 대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미술품대여사업,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지역작가 미술품대여사업, 경북의 예술작품 대여사업 경북미술은행 등이 대표적인 사례임
- 지역내외 전시장소를 확대하여 지역작가 미술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은 충남문화관광재단의 충남문화예술 서울전시장 CN갤러리, 대전문화재단 청년작가장터(D_ArRT+), 부산문화재단의 청년예술작품구독 사업⁵⁴⁾ 등이 있음
- 또한 작가의 작품을 직접 구입하거나 전시기관에 대여해주는 방식의 미술품 활성화 사업등도 눈에 띄는데, 인천문화재단의 미술활성화 기획사업이나 전남문화재단의 미술시장 활성화 사업 등이 그러한 예임⁵⁵⁾

54) 부산문화재단의 청년예술작품 구독사업은 부산시 및 산하공공기관, 교육기관, 민간기업 등 13개소에 청년예술가 작품을 전시 지원하는 것으로 13~39명 가량의 예술가를 선발하고, 작품지원비 1백만원을 지급, 그 외 전시작품에 대한 보험료와 홍보는 재단이 직접 진행하고 있음

- 그 밖에도 세종시문화재단의 갤러리 대관료 지원사업은 지역예술인의 전시활동에 필요한 대관료(서울 등의 타지역 전시활동에 대한 대관료 포함)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시공간 지원사업의 경우는 무료로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임
- 유통 확산 단계 지원사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실행되고 있으며, 지역 예술생태계의 구성과 내용에 맞게 개발 실행되어야 효과를 높일 수 있음

□ 기술융합, 사회적 가치 등 시각예술 영역의 확장

- 4차산업혁명의 흐름에 맞춰 예술과 기술을 융합한 기술 중심적 새로운 예술에 대한 다양한 협력 사업들이 확대되고 있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과 기술융합, 메타버스 예술활동 지원사업,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예술x기술 오픈이노베이션, 서울문화재단 언폴드엑스 등이 있음
-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예술발전소 프로젝트 지원의 실험적 프로젝트 지원, 충북문화재단 온라인미디어 예술콘텐츠 지원⁵⁵⁾ 등은 시각예술분야의 지평을 넓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음
-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예술단체가 사회적 이슈와 변화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 탄소중립, 안전관리 등 지속가능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심의지표 체계를 갖추었음.
- 또한 창작 지원의 주제를 사회적 이슈나 지역 예술생태계에 집중하는 대구 명작산실 지원, 충북 기획지원사업의 프로젝트 지원, 충남 사회적가치특화지원사업 등이 있음
- 이러한 사업의 경우는 선정 이후 멘토링, 워크숍, 사례공유(교육) 등의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사업목적과 목표에 대한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임

□ 민간 창작 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개발

- 창작자와 소비자(관람객)를 잇는 매개자로서 창작(전시)공간의 역할도 매우 중요함. 이에 예술활동기반조성 사업으로 민간 창작(전시)공간 활성화를 위한 기획전시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그리고 임대료 지원사업 등이 개발되고 있음
-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사업에는 전북문화관광재단의 민간문화시설 기획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는데, 전북 소재의 민간문화시설(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문학관)을 운영하는 단체가 4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55) 인천문화재단의 미술활성화 기획사업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작품을 3점 합산 2천만원 이내로 구입하고 있으며, 전북문화관광재단의 전북미술시장 활성화 미술품 대여지원사업, 전남문화재단의 미술시장활성화 사업에서도 지역작가들의 작품을 구입, 대여하는 사업을 실행하고 있음

56) 온라인미디어 예술콘텐츠 지원사업은 미디어 활용형과 실험형으로 분류함. 후자의 미디어 실험형은 VR, AR 등 실감형 콘텐츠 및 메타버스 전시, NFT 등 예술과 기술을 융합한 기술중심적 새로운 콘텐츠를 지원하는 것임

- 민간 창작(전시)공간 임대료 지원사업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민간전시공간 임대료 사업이나 서울문화재단의 창작예술공간지원 임차료 지원사업, 인천문화재단의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사업이 대표적임

□ 신진예술가 유입을 위한 특화지원 사업

- 수도권으로 쏠리는 청년인구의 이동은 예술계에서도 심각한 문제임. 이제는 지역 청년예술가의 유실을 막는 것과 동시에 타지역의 신진예술가를 유입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함. 수도권은 보다 개방적인 방식으로 전국의 예술가를 집결시키고 있으며, 이에 지역도 특화사업지원을 통해 신진 및 청년예술가가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제공을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음
- 지역문화재단의 경우 신청자의 지역 연고 기준을 완화해서 지역예술계의 활력을 도모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인천문화재단은 올해 예술활동 경력사항을 폐지하면서 개인의 경우 인천출생, 인천소재 학교 졸업/재학자, 공고일 기준 인천 거주자, 인천 내 활동실적 증빙이 가능한 경우 등의 기준 중 하나라도 부합하는 경우 지원 신청이 가능토록 하였음
- 부산문화재단의 경우는 청년예술가활동지원사업을 단계별로 세심하게 기획하고 있어 예비 및 청년예술인들에게 참여 후 사업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이번 연구기간 중에 실시했던 FGI 면담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음
- 건강한 예술생태계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신진예술가 유입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지역 제한 또는 지역 완화의 정도나 부여되는 가산점 등의 기준에 있어 주의가 필요함

□ 지원사업 선정예술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 선정 예술인(단체)과 작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획전시를 통해, 관객, 기획자, 비평가들이 지역예술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음
- 대표적으로 경기문화재단 경기예술지원사업의 창작지원은 신작 계획에 대한 창작 실비를 지원, 평론가 매칭과 더불어 신작 발표를 위한 단체전 ‘생생화화’에 초청하고 있으며, 인천문화재단 인천미술 올해의 작가 추천 공모 사업은 인천아트플랫폼의 ‘인천미술_올해의 작가’ 전시(개인전 등) 개최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사업에 선정된 우수예술을 집중 조명하고 있음. 서울문화재단 특성화지원 유망예술지원사업⁵⁷⁾,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올해의 청년작가

57) 서울문화재단의 특성화지원 유망예술지원의 경우 작품개발지원, 발표 및 연습 지원, 선정예술인이나 단체의 사진 및 영상 촬영 제작, 그리고 오프라인 홍보를 진행해주고 있으며,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올해의 청년작가전은 전시, 도록, 평론가 매칭 등을 통해 집중조명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전사업⁵⁸⁾도 지속적인 우수예술 전시와 해당 기획 홍보를 통해 선정 예술인(단체)의 작품에 대한 예술적 권위를 부여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음

58)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올해의 청년작가전 사업은 1983~1998년생의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작가를 대상으로 창작지원금 5백만원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전시개최 및 도록 제작, 1인 1전시실, 평론가 매칭 및 평론 원고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부산 시각예술 활성화 지원 전략 수립을 위한 여건 분석

1. 부산문화재단 시각예술 창작 지원사업 분석
2. 부산지역 시각예술분야 종사자 대상
표적집단면접조사(FGI) 결과
3. 시사점 및 종합분석

III. 부산 시각예술 활성화 지원 전략 수립을 위한 여건 분석

1. 부산문화재단 시각예술 창작 지원사업 분석

1) 부산문화재단 시각예술지원체계의 변천

□ 부산문화재단 시각예술지원사업 개요

- 부산문화재단의 시각예술 관련 지원사업은 크게 창작 지원과 창작공간 레지던시, 국제교류 지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창작지원의 경우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시각예술, 사진영상으로 구분되어 있던 영역을 2015년부터 미술, 사진, 영상으로 세분화하여 지원해오고 있음
- 레지던시 지원의 경우에는 부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또따또가, 감만창의문화촌, 훙티아트센터 레지던시 지원과 민간 창작공간의 레지던시 사업 지원으로 구분되어 운영되었음. 2012년부터 시작된 국제레지던시 파견사업은 시각예술 뿐만 아니라 공연예술, 문화기획자 등으로 확대되어 코로나 이전 시기인 2019년까지 운영되었음. 특히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독일 쿤스틀러 하우스 베타니엔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부산지역 작가 레지던시를 공동으로 운영하였음
- 2017년부터는 청년예술가 특화지원사업으로 청년 아트마켓, 아트페어 활성화 사업을 운영하였고, 2019년부터는 청년예술가 창작지원사업을 지역문화예술특성화사업과 별개로 운영하였음. 2022년부터는 청년예술작품 구독지원사업을 운영하여 부산광역시청을 비롯한 총 5개 공간에 청년예술가들의 작품 전시를 지원하고 있음

□ 부산문화재단 시각예술지원사업 추진결과

[표 20] 부산문화재단 시각예술 분야 지원사업(2011~2022)

연도	사업명	총 지원금액(천원)	추진결과					비고
			장르	신청건수	선정건수	선정율(%)	전체 선정율(%)	
2011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	17억2천2백만 원 (시각예술 2억5천3백만 원)	시각예술	119	58	49	52	시각분야 입주작가: 개인 26명(1기: 2010~2012) 선정단체: 4개 (재미난복수/오픈스페이스 배/열린소극장 예술공동체/대안공간 반디)
	사진영상	38	22	58				
	원도심 창작공간 운영(또따또가)	-						
	레지던스 활성화 지원사업	2억 원						
2012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	16억7천7백만 원 (시각예술 3억1천백만 원)	장르	신청건수	선정건수	선정율(%)	40	시각분야 입주작가: 개인 26명(1기: 2010~2012)
	미술	156	58	37				
	영상사진	36	17	47				
	원도심 창작공간 운영(또따또가)	-						

부산 시각예술 활성화를 위한 기초전략 수립 연구

연도	사업명	총 지원금액(천원)	추진결과	비고																		
	레지던스 활성화 지원사업	2억 원	선정단체: 4개 (재미난복수/오픈스페이스배/생활기획공간 등/부산자연예술인협회)																			
	아시아 레지던스 파견	1억 원	시각분야 참여작가 30명, 1~2개월 동안 4개국 파견																			
2013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	20억7천6백만 원 (시각예술 4억3천9백만 원)	<table border="1"> <thead> <tr> <th>장르</th> <th>신청건수</th> <th>선정건수</th> <th>선정율(%)</th> <th>전체 선정율(%)</th> </tr> </thead> <tbody> <tr> <td>미술</td> <td>209</td> <td>88</td> <td>42</td> <td rowspan="3">47</td> </tr> <tr> <td>영상사진</td> <td>42</td> <td>19</td> <td>45</td> </tr> </tbody> </table>	장르	신청건수	선정건수	선정율(%)	전체 선정율(%)	미술	209	88	42	47	영상사진	42	19	45					
	장르	신청건수	선정건수	선정율(%)	전체 선정율(%)																	
	미술	209	88	42	47																	
	영상사진	42	19	45																		
	원도심 창작공간 운영(또따따가)	-	시각분야 입주작가: 개인 32명, 단체 3팀(2기: 2013~2015)	자립작가 포함																		
	홍티아트센터	-	시각예술 입주작가: 7명																			
감만창의문화촌 운영	-	시각예술 입주작가: 10명																				
레지던스 운영 활성화 지원	1억8천만 원	선정단체:4개 (재미난복수/문화소통단체 숨/부산자연예술인협회/오픈스페이스 배)																				
국제 레지던스 파견	1억 원	30명 예술가 참여(시각, 공연, 기획 등), 5개국 파견																				
2014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	28억5천7백만 원 (시각예술 6억5천7백만 원)	<table border="1"> <thead> <tr> <th>장르</th> <th>신청수</th> <th>선정건수</th> <th>선정율(%)</th> <th>전체 선정율(%)</th> </tr> </thead> <tbody> <tr> <td>미술</td> <td>236</td> <td>152</td> <td>64</td> <td rowspan="3">60</td> </tr> <tr> <td>영상사진</td> <td>36</td> <td>21</td> <td>58</td> </tr> </tbody> </table>	장르	신청수	선정건수	선정율(%)	전체 선정율(%)	미술	236	152	64	60	영상사진	36	21	58					
	장르	신청수	선정건수	선정율(%)	전체 선정율(%)																	
	미술	236	152	64	60																	
	영상사진	36	21	58																		
	원도심 창작공간 운영(또따따가)	-	시각분야 입주작가: 개인 32명, 단체 3팀(2기: 2013~2015)	자립작가 포함																		
	홍티아트센터	-	시각예술 입주작가: 13명																			
감만창의문화촌 운영	-	시각예술 입주작가: 8명																				
레지던스 운영 활성화 지원	1억 9천만 원	선정단체: 4개 (재미난복수/문화소통단체 숨/신은주무용단/오픈스페이스 배)																				
국제 레지던스 파견	1억 원	29명 예술가 참여, 5개국 파견																				
2015	지역문화예술 특성화지원사업	36억3천만 원 (시각예술 8억2천7백만 원) (창작공간 지원-2억 원)	1) 기초예술지원-미술, 사진, 영상 <table border="1"> <thead> <tr> <th>장르</th> <th>신청수</th> <th>선정건수</th> <th>선정율(%)</th> <th>전체 선정율(%)</th> </tr> </thead> <tbody> <tr> <td>미술</td> <td>291</td> <td>137</td> <td>47</td> <td rowspan="3">44</td> </tr> <tr> <td>사진</td> <td>11</td> <td>6</td> <td>55</td> </tr> <tr> <td>영상</td> <td>25</td> <td>11</td> <td>44</td> </tr> </tbody> </table> 2) 예술창작공간 지원: 선정단체 5개 (신은주무용단/재미난복수/오픈스페이스 배/ 부산자연예술인협회/예술지구P)	장르	신청수	선정건수	선정율(%)	전체 선정율(%)	미술	291	137	47	44	사진	11	6	55	영상	25	11	44	
	장르	신청수	선정건수	선정율(%)	전체 선정율(%)																	
	미술	291	137	47	44																	
	사진	11	6	55																		
	영상	25	11	44																		
	원도심 창작공간 운영(또따따가)	-	시각분야 입주작가: 개인 32명, 단체 3팀(2기: 2013~2015)	자립작가 포함																		
홍티아트센터	-	시각예술 입주작가: 8명																				
감만창의문화촌 운영	-	시각예술 입주작가 : 7명																				
국제 레지던스 파견	1억 원	개인 1명(베타니엔 레지던스), 단체 2개 팀 총 3개국 파견																				
2016	지역문화예술 특성화지원사업	34억1천8백만 원 (시각예술 8억1천7백만 원) (창작공간 지원-2억 원)	1) 기초예술지원-미술, 사진, 영상 <table border="1"> <thead> <tr> <th>장르</th> <th>신청건수</th> <th>선정건수</th> <th>선정율(%)</th> <th>전체 선정율(%)</th> </tr> </thead> <tbody> <tr> <td>미술</td> <td>290</td> <td>135</td> <td>47</td> <td rowspan="3">46</td> </tr> <tr> <td>사진</td> <td>14</td> <td>6</td> <td>43</td> </tr> <tr> <td>영상</td> <td>24</td> <td>10</td> <td>42</td> </tr> </tbody> </table> 2) 예술창작공간 지원: 선정단체 7개 (신은주무용단/재미난복수/오픈스페이스배/부산자연예술인협회 /예술지구P/웅스튜디오/아트975)	장르	신청건수	선정건수	선정율(%)	전체 선정율(%)	미술	290	135	47	46	사진	14	6	43	영상	24	10	42	
	장르	신청건수	선정건수	선정율(%)	전체 선정율(%)																	
	미술	290	135	47	46																	
사진	14	6	43																			
영상	24	10	42																			
원도심 창작공간 운영(또따따가)	-	시각예술 입주작가: 개인 28명, 단체 8팀(3기: 2016~2018)	자립작가																			

III. 부산 시각예술 활성화 지원 전략 수립을 위한 여건 분석

연도	사업명	총 지원금액(천원)	추진결과	비고																		
	홍티아트센터 운영	-	시각예술 입주작가: 개인 7명, 단체 1팀	포함																		
	감만창의문화촌 운영	-	시각예술 입주작가: 6명																			
	국제 레지던시 파견	-	개인 1명(베타니엔 레지던시), 단체 2개팀 총 3개국 파견																			
2017	지역문화예술 특성화지원사업	38억8천7백만 원 (시각예술 7억4천4백만 원) (창작공간 지원 2억4천만 원)	1) 기초예술지원-미술, 사진, 영상 <table border="1"> <thead> <tr> <th>장르</th> <th>신청건수</th> <th>선정건수</th> <th>선정율(%)</th> <th>평균 선정율(%)</th> </tr> </thead> <tbody> <tr> <td>미술</td> <td>302</td> <td>175</td> <td>58</td> <td rowspan="3">55</td> </tr> <tr> <td>사진</td> <td>15</td> <td>8</td> <td>53</td> </tr> <tr> <td>영상</td> <td>18</td> <td>8</td> <td>44</td> </tr> </tbody> </table> 2) 창작공간 활성화 지원 : 선정단체 7개 부산자연예술인협회/오픈스페이스배/예술지구P/엑터스소극장/ 문화공간숲/공간소극장/신은주 무용단)	장르	신청건수	선정건수	선정율(%)	평균 선정율(%)	미술	302	175	58	55	사진	15	8	53	영상	18	8	44	
	장르	신청건수	선정건수	선정율(%)	평균 선정율(%)																	
	미술	302	175	58	55																	
	사진	15	8	53																		
	영상	18	8	44																		
	원도심 창작공간 운영(포타포가)	-	시각예술 입주작가: 개인 28명, 단체 8팀(3기: 2016~2019)	자립작가 포함																		
	홍티아트센터 운영	-	시각예술 입주작가: 8명																			
감만창의문화촌 운영	-	시각예술 입주작가: 7명																				
국제 레지던시 파견	-	개인 1명(베타니엔 레지던시), 단체 3팀, 총 4개국 파견																				
청년 아트마켓 활성화	1억1천6백만 원	아트마켓 6회 운영, 참여작가 301명 아트페어 4회 개최, 참여작가 122명 참여																				
2018	지역문화예술 특성화지원사업	41억6천7백만 원 (시각예술 7억4천5백만 원) (창작공간 지원 2억4천만 원)	1) 기초예술창작영역 - 미술, 사진, 영상 <table border="1"> <thead> <tr> <th>장르</th> <th>신청건수</th> <th>선정건수</th> <th>선정율(%)</th> <th>평균 선정율(%)</th> </tr> </thead> <tbody> <tr> <td>미술</td> <td>275</td> <td>141</td> <td>51</td> <td rowspan="3">51</td> </tr> <tr> <td>사진</td> <td>12</td> <td>7</td> <td>58</td> </tr> <tr> <td>영상</td> <td>28</td> <td>12</td> <td>43</td> </tr> </tbody> </table> 2) 창작공간 활성화 지원 : 선정단체 8개 (극단자갈치/춘자아트갤러리/예술지구P/문화공간숲/재미난복수/ 오픈스페이스 배/신은주무용단/하늘바람소극장)	장르	신청건수	선정건수	선정율(%)	평균 선정율(%)	미술	275	141	51	51	사진	12	7	58	영상	28	12	43	
	장르	신청건수	선정건수	선정율(%)	평균 선정율(%)																	
	미술	275	141	51	51																	
	사진	12	7	58																		
	영상	28	12	43																		
	원도심 창작공간 운영(포타포가)	-	시각예술 입주작가: 개인 28명, 단체 8팀(3기: 2016~2019)	자립작가 포함																		
	홍티아트센터 운영	-	시각예술 입주작가: 6명 1팀																			
감만창의문화촌 운영	-	시각예술 입주작가 : 7명																				
국제 레지던시 파견	-	개인 2명, 단체 2팀, 총 3개국 파견																				
동아시아 레지던시 파견	-	총 7명 개인 작가 참여 부산, 가나자와, 하얼빈 교류 협업																				
청년아트마켓 및 아트페어	-	아트상품 제작지원 : 9명, 총 6천9백만원 지원 아트마켓 7회 운영 / 아트페어 2회 운영																				
2019	지역문화 예술 특성화지원사업	40억2천5백만 원 (시각예술 7억4천4백만 원) (레지던시 활성화 2억 원)	1) 기초예술창작영역 - 미술, 사진, 영상 <table border="1"> <thead> <tr> <th>장르</th> <th>신청건수</th> <th>선정건수</th> <th>선정율(%)</th> <th>평균 선정율(%)</th> </tr> </thead> <tbody> <tr> <td>미술</td> <td>299</td> <td>148</td> <td>50</td> <td rowspan="3">47</td> </tr> <tr> <td>사진</td> <td>23</td> <td>10</td> <td>43</td> </tr> <tr> <td>영상</td> <td>23</td> <td>13</td> <td>57</td> </tr> </tbody> </table> 2) 레지던시 활성화 지원 : 선정단체 4개 (예술지구P/재미난복수//신은주무용단/부산자연예술인협회)	장르	신청건수	선정건수	선정율(%)	평균 선정율(%)	미술	299	148	50	47	사진	23	10	43	영상	23	13	57	
	장르	신청건수	선정건수	선정율(%)	평균 선정율(%)																	
	미술	299	148	50	47																	
	사진	23	10	43																		
	영상	23	13	57																		
	원도심 창작공간 운영(포타포가)	-	시각예술 입주작가: 개인 29명, 단체 6팀(4기: 2019~2021)	자립작가 포함																		
홍티아트센터 운영	-	시각예술 입주작가: 7명																				
감만창의문화촌 운영	-	시각예술 입주작가: 6명																				
국제레지던시 파견	-	총 12명 작가 참여 총 10개국 파견																				
청년	청년예술가	2억 원	기초예술분야지원-시각예술 : 10팀																			

부산 시각예술 활성화를 위한 기초전략 수립 연구

연도	사업명	총 지원금액(천원)	추진결과	비고																		
2020	예술가 지원 창작활동지원 아트마켓 및 아트페어	1억 5천만 원	아트상품 제작지원: 7팀, 총 6천5백만 원 지원 아트페어 참여작가: 40명																			
	지역문화예술 특성화지원사업	37억8천6백만 원 (시각예술-6억8천2백만 원) (레지던시 활성화-1억만 원)	1) 우수예술지원 - 미술, 사진, 영상 <table border="1"> <thead> <tr> <th>장르</th> <th>신청건수</th> <th>선정건수</th> <th>선정율(%)</th> <th>평균 선정율(%)</th> </tr> </thead> <tbody> <tr> <td>미술</td> <td>274</td> <td>128</td> <td>47</td> <td rowspan="3">45</td> </tr> <tr> <td>사진</td> <td>19</td> <td>10</td> <td>53</td> </tr> <tr> <td>영상</td> <td>20</td> <td>11</td> <td>55</td> </tr> </tbody> </table> 2) 기획특화-레지던시 활성화 지원 : 선정단체 4개 (신은주무용단/예술지구P/부산자연예술인협회/재미난복수)	장르	신청건수	선정건수	선정율(%)	평균 선정율(%)	미술	274	128	47	45	사진	19	10	53	영상	20	11	55	
	장르	신청건수	선정건수	선정율(%)	평균 선정율(%)																	
	미술	274	128	47	45																	
	사진	19	10	53																		
영상	20	11	55																			
원도심 창작공간 운영(따따따)	-	시각예술 입주작가: 개인 29명, 단체 6팀(4기: 2019~2021)	자립작가 포함																			
흥티아트센터 운영 감만창의문화촌 운영	-	시각예술 입주작가: 8명 시각예술 입주작가: 3명																				
청년 예술가 지원 청년예술가 창작활동지원 아트마켓 및 아트페어	2억 원 1억 2천만 원	1) 기초예술분야지원- 시각예술: 11건 2) 생애첫창작활동지원-시각예술: 8건 아트상품 제작지원: 8명, 총 6천5백만 원 지원 아트페어 참여작가 : 36명(부산 30명, 충청 6명)																				
2021	부산문화예술 지원사업	38억9천만 원 (시각예술-6억7천8백만 원) (레지던시 활성화-1억만 원)	1) 우수예술지원 - 시각예술 <table border="1"> <thead> <tr> <th>장르</th> <th>신청건수</th> <th>선정건수</th> <th>선정율(%)</th> <th>평균 선정율(%)</th> </tr> </thead> <tbody> <tr> <td>미술</td> <td>309</td> <td>120</td> <td>39</td> <td rowspan="3">32</td> </tr> <tr> <td>사진</td> <td>23</td> <td>8</td> <td>35</td> </tr> <tr> <td>영상</td> <td>21</td> <td>9</td> <td>43</td> </tr> </tbody> </table> 2) 주제특화 - 레지던시 활성화 지원 : 선정단체 5개 (극단 자유바다/시민도예가회/예술지구P/오픈스페이스 배/재미난복수)	장르	신청건수	선정건수	선정율(%)	평균 선정율(%)	미술	309	120	39	32	사진	23	8	35	영상	21	9	43	
	장르	신청건수	선정건수	선정율(%)	평균 선정율(%)																	
	미술	309	120	39	32																	
	사진	23	8	35																		
	영상	21	9	43																		
	원도심 창작공간 운영(따따따)	-	시각분야 입주작가: 개인 29명, 단체 6팀(4기: 2019~2021)	자립작가 포함																		
흥티아트센터 운영 감만창의문화촌 운영	-	시각예술 입주작가: 8명 시각예술 입주작가: 6명																				
청년 예술가 지원 청년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기업협력형 창작활동 지원	2억 원	1) 기초예술분야 - 시각예술 : 11건 2) 생애 첫 창작활동지원 - 시각예술 : 9건 청년예술가 3인 전시 개최 지원(신세계 갤러리)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	40억9천만 원 (시각예술-6억8천만 원) (레지던시 활성화-1억 원)	1) 우수예술지원 - 시각예술 <table border="1"> <thead> <tr> <th>장르</th> <th>신청건수</th> <th>선정건수</th> <th>선정율(%)</th> <th>평균 선정율(%)</th> </tr> </thead> <tbody> <tr> <td>미술</td> <td>298</td> <td>102</td> <td>34</td> <td rowspan="3">33</td> </tr> <tr> <td>사진</td> <td>29</td> <td>10</td> <td>35</td> </tr> <tr> <td>영상</td> <td>27</td> <td>10</td> <td>37</td> </tr> </tbody> </table> 2)주제특화 - 레지던시 활성화 지원: 4건 (시민도예가회/자연예술인협회/예술지구P/523쿤스트독)	장르	신청건수	선정건수	선정율(%)	평균 선정율(%)	미술	298	102	34	33	사진	29	10	35	영상	27	10	37		
장르	신청건수	선정건수	선정율(%)	평균 선정율(%)																		
미술	298	102	34	33																		
사진	29	10	35																			
영상	27	10	37																			
원도심 창작공간 운영(따따따)	-	시각예술 입주작가: 개인 9명, 단체 4팀(5기: 2022~2024)	자립작가 미포함																			
흥티아트센터 운영 감만창의문화촌 운영	-	시각예술 입주작가: 8명 시각예술 입주작가: 6명																				
청년 예술가 지원 청년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2억 2천만 원 (시각예술 1억 2백만 원)	1) 기초예술분야 - 시각예술 : 11건 2) 생애 첫 창작활동지원 - 시각예술 : 9건																				

III. 부산 시각예술 활성화 지원 전략 수립을 위한 여건 분석

연도	사업명	총 지원금액(천원)	추진결과					비고
			구분	신청건수	선정건수	선정율(%)	평균 선정율(%)	
			기초예술	55	9	16	15	
			생애 첫	23	8	34	30	
지원	기업협력형 창작활동 지원	3천5백만 원	1) 청년예술가 3인전 : 11.18.~12.18. 신세계 갤러리, 청년예술가 3명 참여 2) 작가의 방 : 12.19.~12.30. 기장 아난티힐튼, 청년예술가 5명 참여					
	청년아트페어	8천만 원	참여작가 : 35명 출품작품 : 244점 전시, 86점 판매, 판매액 1천6백8십만 원					
	청년 예술작품 구독	2천만 원	참여작가: 15명 전시작품: 44점(평면 36, 입체 8점)					

2) 2023년 부산문화재단 시각예술 지원사업

○ 2023년도 부산문화재단 주요 예술지원사업 개요

[표 21] 2023년도 부산문화재단 주요 예술지원사업 개요

구분	지원분야	사업예산	
부산문화 예술지원	창작활동 지원	1억 5천만 원	
		우수예술지원	47억 원
	예술가치 확산지원	다원예술	2억 원
		공공예술	2억5천만 원
		상시지원(자율기획)	2억 원
	주제특화 예술지원	레지던시 활성화	1억 원
국제예술교류		2억 원	
올해의 포커스온(공연)		2억 원	
청년문화 육성지원	청년신진예술가 창작지원	청년신진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1억 원
		우수예술인 집중지원(공연)	1억 5백만 원
		우수예술인 집중지원(시각)	5천만 원
		청년예술가 자율기획 지원	5천만 원
	네트워크 지원	청년예술가 국제교류	1억 원
		기업협력형 창작활동 지원	3천5백만 원
홍보	아트페어 운영	8천만 원	
	청년 예술작품 구독사업	5천만 원	
창작공간 지원	홍티아트센터 운영	입주작가 창작지원사업(8명)	2억6백만 원
	원도심 창작공간 운영	원도심 창작공간 운영지원(30팀)	4억5천만 원
	감만창의문화촌 운영	입주작가 창작지원(12팀)	3천만 원

○ 2023년도 부산문화재단 시각예술 지원사업 주요 내용

[표 22] 2023년도 부산문화재단 시각예술 지원사업 주요 내용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내용
창작준비지원	-부산 소재 고유번호증 도	정액 3백만 원	-자체 워크숍 및 교육, 연구 등 예술

부산 시각예술 활성화를 위한 기초전략 수립 연구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예술단체 -활동실적 1건 필수 -부산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체의 작품 준비활동지원 -창작 아이디어 구체화, 사전제작을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창작 활동 지원(피칭, 연구, 리서치, 쇼케이스, 워크숍 등) -예술단체 구성원 및 단체 관계자의 역량강화프로그램 지원
우수예술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 공고일 이전 1년 이상 부산소재(거주) 부산예술인 2) 단체 : 부산소재 고유번호증을 갖고 있는 부산예술단체 -부산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예술창작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 정액 4백만 원 -단체: 최대 2천5백만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시기획 및 작품 창작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의 일부 금액 -[사진 미술 부산에서 진행되는 전시 지원
다원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 소재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예술단체 -부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지원신청 한 단체 	최대 3천만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탈장르적 새로운 내용 및 형식, 매체를 활용한 복합장르 등 실험적 창작 예술활동 지원 -예술과 기술융합 창작 및 활동 지원
공공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 소재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보유 예술단체 -2회 이상 국내외 공공예술 관련 사업수행실적 보유 단체 -최소 3년 이상의 관련 경력이 있는 책임 기획자가 필수로 참여할 수 있는 단체 -부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지원신청한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예산(2억5천만 원) 안에서 3개 단체 내외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의 흐름을 반영한 공공성, 예술성을 갖춘 우수 예술기획 지원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예술 프로젝트 및 공공예술 관련 연구 활동 지원
국제예술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 소재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보유 예술단체 -최근 5년 간 2회 이상 국제예술교류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최대 1~3천만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광역시 또는 국외에서 개최하는 국제예술교류사업 지원 국내: 문화예술 상호교류활동 국외: 해외예술가,기관 등과 공동 협업 또는 국제예술교류사업에 초청받아 진출, 참가
레지던시 활성화 [일반형] - 지역 창작공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3회 이상 부산 활동 실적이 있는 부산소재 예술 단체 -레지던시 공간을 갖추고 있어야 함 -부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지원 신청한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개 단체 당 5백만 원 ~ 최대 3천만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가의 창작 환경 제공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레지던시 프로젝트 지원 (전시 공연 등 결과발표, 멘토링, 세미나, 창작활동 프로그램 등)
레지던시 활성화 [기획형] - 해외레지던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고일 이전 1년 이상 부산 소재(거주) 예술인 -최근 5년 간 최소 3회 이상 전시경력 및 활동실적이 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류기간 : 3주 ~ 최대 3개월 - 지원금(대만 : 최대 6백만 원 / 스코틀랜드 : 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료, 작품활동비, 일비 등 - 대만 : 타이페이 보강암국제예술촌 / 가오슝 보얼예술특구 피어2 아트센터 - 스코틀랜드 : Cove Park

III. 부산 시각예술 활성화 지원 전략 수립을 위한 여건 분석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내용	
청년 예술가 창작 지원	는 예술인	대 8백만 원		
	청년신진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산인 39세 이하 청년 예술가 및 단체(또는 최근 3년 이내 부산에서 3건 이상 활동 내역 보유) -부산문화재단 및 공공기금 3회 이하 지원받은 경력	정액 4백만 원 선정인원 25명	부산 청년예술가의 분야별 창작활동 지원
	우수예술인 집중지원 (시각) -국제 레지던시 파견 지원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산인 39세 이하 시각 분야 청년작가(또는 최근 3년 이내 부산에서 3건 이상 활동 내역 보유) -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 참여 예정자(최소 45일 이상)	5천만 원 예산 범위 내 선정인원 2~5명	-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 참여 직접경비 (항공, 숙박, 프로그램 참가 등) 지원 -귀국 후 해외 레지던시 파견 성과공유 워크숍 운영비 지원
	청년예술가 자율기획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부산인 39세 이하 청년예술가 개인 및 단체 (또는 최근 3년 이내 부산에서 3회 이상 활동 내역 보유)	최대 5천만 원	문화예술을 소재로 한 청년예술가의 프로젝트 지원
	청년예술가 국제교류	-추진 예정		
	기업협력형 창작활동 지원	-만39세 이하 예술가로서 다음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산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부산에서 전시 및 활동 이력 · 부산광역시 소재 대학교, 대학원 졸업생 및 예정자	참여예술가 3명 선발, 창작지원금 400만원 지급	신세계백화점 갤러리 무상 임대 및 전시 지원, 온 오프라인 홍보 지원
	아트페어 운영	-2023년 하반기 추진 예정		
창작공간 지원	청년예술작품 구독사업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부산인 39세 이하 청년 예술가(또는 최근 3년 이내 부산에서 3회 이상 활동 내역 보유)	참여예술가 13~39명 선발 제작 완료된 작품에 한해 공모신청 가능	부산시 및 산하공공기관, 교육기관, 민간 기업 등 13개소에 청년예술가 전시 지원
	홍티아트센터 운영	-시각분야 전문예술가	장기 2명, 단기(5개월) 4명, 단기(3개월) 2명	-입주작가 창작지원공간, 월 50만원 창작지원금 지원 -개인전, 비평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네트워크 사업 지원
	감만창의문화촌 지원	-최근 3년 간 부산에서 활동 실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 -모집분야 : 전 분야	최대 12개 팀	-창작공간 제공, 창작지원금 지원, 부대시설 무상 사용, 홍보 및 프로그램 제공
원도심 창작공간 지원	-5기 입주작가	총 30개 단체 및 개인	-창작공간 제공, 자립프로그램, 플랫폼 구축, 네트워크 프로그램 제공	

□ 부산문화재단 주요 시각예술 창작 지원사업 분석

- 시각예술분야 창작지원사업은 크게 창작지원, 레지던시 지원, 청년예술가 특화지원 영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이 영역은 부산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초창기부터 이어져 왔으며, 국제교류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잠시 중단되었으나 2023년부터 다시 교류의 물꼬를 틔우고 있음
- 예술창작지원사업의 경우 창작준비지원사업이 신설되어 창작 이전 준비활동에 대한 지원 트랙이 신설되었음. 그러나 단체 중심의 지원사업으로 개인이 활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으나 활동실적 최소 1건으로 단체 지원 요건이 다소 완화된 형태이므로 새로운 창작시도를 하기 위한 단체의 지속적인 활동 지원에 유용할 것으로 예상됨
- 우수 예술지원 영역의 개인 지원 사업의 경우 정액 400만 원이 지급되고 사후 정산을 하지 않아 예술가가 자유롭게 창작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국제교류 및 레지던시 지원사업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되었다가 2023년부터 재개되어 예술가들이 새로운 창작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증대되었음
- 2023년 기준 부산문화재단 시각예술분야 지원사업을 창작단계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23] 창작단계별 부산문화재단 시각예술분야 지원사업 구분

창작단계 구분	창작		발표	유통
	준비지원	창작공간/레지던시		
예술인 및 단체	-창작준비지원	-홍티아트센터 -김만창의문화촌 -원도심 창작공간 -레지던시 지원	-우수예술지원 -국제예술교류 -다원 · 공공예술	
청년	-청년예술가 국제 교류	-우수예술인 집중지원	-청년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기업협력형 창작활동지원 -아트페어 운영 -청년예술작품 구독사업

2. 부산지역 시각예술분야 종사자 대상 표적집단면접조사(FGI) 결과

1) 조사개요

- 조사기간: 2023년 6월 2일 ~ 6월 21일
- 조사횟수: 총 6회(판화·서예·평면 1, 조각·입체 1, 사진·영상 1, 융복합·기획자 1, 청년예술가 1, 종합 1)
- 조사대상: 부산지역에서 활동하는 시각예술분야 예술인 및 예술단체 대표, 예술계 및 예술대학 종사자 등

○ 조사 참여자

- 1차(판화·서예·평면)

이름	소속	이름	소속
김후분	부산미술협회 서예분과 회장	심점환	작가
양은진	부산시립미술관 학예사	탁경아	커뮤니티 아트센터 숲 대표

- 2차(조각·입체)

이름	소속	이름	소속
김경화	전업작가	김성연	부산대학교 조형학과 교수
문병탁	부산조각가협회 회장, 부산미술협회 조각 분과 회장	우징	전업작가
하석원	창작공간 마재고개14대표		

- 3차(사진·영상)

이름	소속	이름	소속
김이석	동의대학교 영화학과 교수	문진우	작가
문창현	오지필름 대표	이인우	작가
장희철	부산외대 영상콘텐츠융합학과 교수		

- 4차(융복합·기획자)

이름	소속	이름	소속
김혜경	실험실C	성 백	복합문화공간 머지
정선미	춘자아트갤러리 대표	최상호	부산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최승현	독립기획자		

- 5차(청년예술가)

이름	소속	이름	소속
정안용	전업작가	임봉호	전업작가
이창운	전업작가		

- 6차(종합)

이름	소속	이름	소속
박한샘	전업작가	신가윤	전업작가
양재령	북청화첩	이영아	전업작가
이재균	(현)흥티아트센터 입주작가	진영섭	아트팩토리 비 대표

2) 조사내용

- 질문구성: 시각예술 장르별 공통질문과 기타분야는 특화질문으로 구성하여 진행
- 질문내용
 - 공통질문
 - 개인별 활동장르, 활동기간, 활동지역 등 활동 현황
 - 창작지원제도 경험 여부와 경험에 대한 평가
 - 창작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주된 공간과 평가
 - 국·내외 창작공간 레지던시 경험과 평가
 - 공동작업실(테크니션 상주)이나 공유창작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 주된 창작발표(전시) 방식과 창작발표(전시)의 작품 유통 도움 여부
 - 주로 활용하는 작품 판매 경로
 - 국내외 아트페어 및 마켓 등에 참여한 경험과 평가
 - 특화질문
 - 부산 시각예술계의 활성화를 위한 방향성과 지원정책 제언
 - 시각예술 생태계를 위한 선결과제 및 우수 정책사례 공유

3) 조사결과

- 그룹면담은 총 6회 진행되었으며 진행자의 질문에 따라 모두 발언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전 과정은 글과 녹음을 통해 기록하였음
- 녹취 전사 후 조사지를 재점검하여 보완하였음

- 면접조사를 통해 시각예술분야의 장르별 활동현황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부산 지역 시각예술의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진단하였음
- 시각예술 실태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참여자의 경험과 제안을 바탕으로 사업 사례와 정책을 도출하였음
-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토대로 부산 시각예술 활성화를 위한 의견들을 5가지 유형별로 정리하였음

4) 주요 조사 결과

□ 지원금 및 지원제도

- 소액다건 방식은 지원금의 실효성이 떨어지며 선택과 집중이 요구됨
 - 지원금 책정 시 작가의 개인 인건비를 감안했으면 좋겠음
 - 지원금이 도움 되지만 소액의 정액지원으로 인하여 재료비는 자부담으로 감당하며 작가 역량을 발휘할 수 없음
 - 작품 재질 등 규모에 따른 지원금 차등을 두어야 하며 인원이 많다고 해서 지원금을 많이 배분하는 것은 문제
 - 소액다건의 정액지원으로 지원금의 강점에 의문이 듦
 - 적은 지원금과 배분 방식은 예술창작지원이 아닌 예술인 복지제도로 오해되기도 함
 - 소액다건은 실효성 떨어지며 지원금의 정액배분 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장지원과 혜택을 위한 제도 고민 필요
 - 선택과 집중 방식을 통해 지원금의 실효성을 높여야 함
 - 지원금이 부족하니 지원금의 강점에 의문이 들며 장르별 예산배분이 필요함
 - 재단의 해외레지던시 지원사업의 지원금 부족하며 장르별로 예산을 배분해야 함
 - 작가 개인 인건비 감안해서 지원금 반영
 - 정액배분은 맞지 않고 성장했으면 지원을 더 해줘야 하는데 후속지원이 요구됨
 - 재단사업과 영상위원회 사업에 동시 선정되어 재단 지원금을 포기했던 적 있음
 - 영상분야(영화)는 영화진흥위원회, 영상위원회에서 제작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음
- 예술생태계를 위해 진입장벽은 낮추고 지원대상을 세분화
 - 별도의 중견지원이 필요하고 중견 이상 작가의 창작지원이 도움
 - 신진, 중견, 우수작가 지원 등 창작환경을 위한 중장기적이고 안정적 지원 필요함
 - 예비·청년·중견·원로 예술인, 장애예술인 지원 등 지원제도 세분화 필요
 - 전업작가와 퇴임교원 구분해야 하며 지원대상자의 기준이 명확해야 함
 - 지원대상자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전업 작가와 퇴임교원을 구분 지원해야 함

- 기존의 단체가 계속 지원받아 작품의 수준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음
- 전시 경력이 없어서 지원을 못 받는 신생예술단체 및 장애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제도 진입경로가 필요함
- 예술생태계를 위해 큐레이터, 비평가, 기획자 중심의 지원 필요하며 지원의 틀을 세분화해야 함
- 영화를 기초예술로 볼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많아 재단과 영상위원회의 논의 필요
- 영화를 상업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많아서인지 창작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
- 단조로운 지원사업을 세심한 설계로 개선해야 함
 - 재단 사업이 인큐베이팅으로서 청년 작가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하이엔드 시장으로 진출하는 방식에는 도움이 되지 않음
 - 재단의 시각예술지원이 대체로 단조롭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지원 단계에 대한 세심한 설계 필요함
 - 지원사업이 예술인들에게 충분한 창작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획되고 실행되기를 원함
 - 지원 프로세스의 명확한 제시와 섬세한 지원 필요함
 - 작가 개인의 창작지원금 외에도 전체를 아우르고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됨
 - 당해연도 지원에 대한 성과가 좋으면 다음 해 연속지원 하거나 메세나 사업과 연결을 해 주는 등 후속지원이 필요함
 - 재단이 큰 틀을 가지고 지원하되 작가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대신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작가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나이가 들수록 지속적으로 활동하기가 힘들어 중장기적이고 지속성 있는 지원제도가 필요함
 - 재단의 영화 지원과 영상위원회 지원이 아쉬움
 - 재단의 영화분야 지원사업의 정체성이 모호하여 지원 시 어려움이 있음. 예술영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데 지원형태의 변화가 있으면 좋겠음

□ 창작공간 및 레지던시 지원

- 커뮤니티 아트, 플랫폼 기능이 약한 레지던시 사업 아쉬움
 - 레지던시의 장점은 작가들과의 커뮤니티이며 아티스트 교류, 좋은 기획자와의 교류, 디렉터와의 활발한 교류 지원 필요함
 - 부산 레지던시는 작가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 플랫폼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움
 - 레지던시 기본 프로그램에 작가를 맞추는 경향이 많고 제약이 많음

III. 부산 시각예술 활성화 지원 전략 수립을 위한 여건 분석

-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입주작가에게 과도하게 요구하여 작업할 시간이 적어 아쉬움
- 레지던시는 입주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한정된 기간 안에 작업이 완성되기 어려운 실정으로 장기간의 지원이 필요함
-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보다는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작가들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함
- 단기 프로그램 지원과 공간 지원을 구분해서 지원해야 하며 자율적인 프로그램 참여와 의무조건에 대한 자유가 있어야 함
- 작가를 받쳐주는 기획자와 작가의 집요함도 있어야 성장할 수 있음
- 기획자와 작가들의 교류가 형성되고 시스템이 잘 갖춰진 레지던시가 필요함
- 영화작업을 하면서 창작공간을 활용했던 점은 좋았으나 관련분야 제작와의 소통이 어려웠음
- 기존의 창작공간은 제반시설이 미비하거나 물리적 한계성을 지님
 - 작업크기에 따른 기계장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작업이 가능한 공간이 없으며 공간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의 물리적 한계성을 지님
 - 부산시와 재단이 협의하여 부산 내 빈집을 창작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면 좋겠음
 - 갤러리, 작품보관이 가능한 시설, 시스템이 잘 갖춰진 창작공간이 요구됨
 - 자생력 있는 전시공간의 확산과 젊은 작가가 생활하고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지원이 필요함
 - 청년예술작가 공모가 많지만 대학원생은 전시공간도 없기에 나이제한을 고려해 주면 좋겠음
 - 창작공간에서 행사를 개최할 시 그에 따른 제반 공간 제공, 다양한 장르 교류를 통한 콘텐츠를 창작하면 좋을 것 같음
 - 작업을 위한 기계 등을 보유한 경우 작업실을 옮기거나 이사하는데 부담이 되며 레지던시도 기간이 끝나면 작업실을 다시 찾아야 하는 고민과 이사비용이 부담되어 장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음
 - 작가들이 모여 활동하는데 창작공간을 장기간으로 임대해주면 좋겠음
- 공동작업실이나 임대료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
 - 큰 작업기계를 활용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작업이 가능한 공동작업실이 필요함
 - 작품보관소, 테크니션이 있는 작업실이 갖춰진 공동공간이 필요함
 - 작업기계 이동이 쉽지 않아 개인작업실을 두지만 비용, 임대료가 비싸 공동으로 사용함
 - 부산에 공간다운 공간이 없어 재단, 기업가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내면 좋겠음
 - 기업은 물품이나 공간 후원, 작가는 작품 활동, 재단은 보관 등으로 운영되는 공동작업실이 필요함

□ 유통과 확산

- 아트페어에 지역작가의 참여기회가 적고 일부 유명작가에 쏠림
 - 아트페어가 많아지고 있지만 부산 지역작가들의 참여기회가 잘 없고 유명작가에만 집중되어 있음
 - 아트페어에 참여하고 싶지만 화랑마다 성향이 다르고 대중성을 따지는 경우가 많음
 - 비엔날레 등 행사에 지역작가의 참여기회가 적음
 - 화랑의 정체성에 따라 작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어중간한 작가는 설 자리가 없음
 - 아트페어에 작가들이 원하는 작품을 전시해야 하는데 화랑주가 원하는 작품을 전시하고자 해서 작가의 정체성을 잃을 수 있음
 - 타 지역의 아트페어에 작가들이 직접 선택한 작품들로 부스 전시를 진행했었는데, 판매실적은 저조했지만 작품선택부터 전시까지의 과정에 참여했던 활동 자체에 만족도가 높았음
 - 아트페어는 대중의 작품선호도에 따라 작업형태가 바뀌게 되며 설치작품은 많은 공간을 차지해서 아트페어에 출품을 잘 안함
- 예술인(단체)의 작품 유통 및 판매는 현실적으로 힘들
 - 갤러리 등 전시 대관 비용이 비싸 공간지원이 요구됨
 - 좋은 전시공간은 임대료가 비싸고 임대료를 줄여 전시하면 관객이 찾아오지 않음
 - 오프라인 상에서의 유통은 버겁고 보통 지인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가 많음
 - 지인찬스가 아닌 네이버 스토어, 플랫폼을 활용해서 작품을 판매한 경험이 있으며 작품 감상, 판매가 이어지도록 함
 - 영화는 스크린 수가 적어 배급사를 잡아서 하는 경우도 소수임
 - 부산에도 영화배급사가 있으며 부산에서 만들어진 작품들이 수도권 배급사를 통해 개봉하며 주로 독립예술전문관에서 상영
 - 멀티플렉스 개봉이 없고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에서 산발적으로 상영
 - 영화제를 통해서 영화관계자들에게 선보이며 단편영화는 OTT를 활용하지만 부산 작품은 본적 없음
 - 작품 구매의 일상화와 작품의 유통, 확산을 위해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예술인 및 일반인 대상의 교육이 필요함
 - 예술인 저작권, 이용료, 아이디어에 대한 비용 지불도 있어야 하며 가치인식의 전환을 위한 교육이 필요함
- 전문적인 홍보·마케팅 어려움

- 작품의 유통·확산을 위한 인프라(공간), 예산이 필요함
- 작품 유통을 위한 에이전시가 필요하며 에이전시를 통한 콜라보나 작가 작품을 어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아쉬움
- 작품의 유통확산을 위한 전문적인 홍보 필요하며 홍보에 대한 구체적 지원 필요함
- 유통의 장 형성을 위한 환경 필요하며 기획자/컬렉터 등의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음
- 확산 유통의 중요성은 알지만 SNS 외 방식이 어려움
- 전문적인 마케팅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아 아쉬움
- 소액 구매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작가와 구매자를 연결할 수 있는 홍보 매개가 필요함
- 에이전시 연계할 수 있는 루트,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마케팅 전략을 재단에서 해주면 좋겠음
- 재단에서 홍보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술가, 전문가 참여해 지원해야 함
- 백스코 등 아트페어에 재단의 부스를 만들어 좋은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면 좋을 것 같음

□ 운영구조

- 심의제도 정밀성과 심의위원 전담제 시행 요구
 - 심사의 정밀성이 필요함
 - 심사위원이 신청단체나 개인을 잘 모르고 서류만 심사해서 퀄리티가 보장이 안 됨
 - 지원금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제도는 차이가 없고 중복지원이 많아 심의제도 개선이 요구됨
 - 재단의 보고서(신청서류)를 보고 심사,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이 없음
 - 심사 시 흐름을 모르면 중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심사위원 전담제 시행해야 함
- 재단과 타 기관 협력을 통한 지원사업 시너지 효과 제고
 - 재단에서 할 수 있는 타 기관과의 매칭사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음
 - 재단이 학교와 협력하여 공동사업으로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공동장비를 쓸 수 있도록 하면 좋겠음
 - 기업에서 운영하는 레지던시 같은 사업을 재단에서 따오면 예산의 한계로 지원받지 못했던 작가들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 같음
 - 재단이 기업 메세나를 활용해서 기업은 예산지원, 재단은 프로세스를 제공해서 작가를 지원하면 좋겠음
 - 부산 재단 담당자 중 셀링(전문작품판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며 재단 자체 전문 인력의 확충이 필요함
 - 재단이 에이전시, 기업과 연결되는 방안을 알려주면 다양한 프로모션이나 콜라보를 통해 새로운 창작품 개발이 가능함

- 매개인력이 부족하며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지원 필요
 - 우수예술지원 등 지원금을 받더라도 마땅한 큐레이터를 찾으려면 돈이 많이 듦
 - 아트페어에 전문 콜렉터가 없음
 - 다양한 장르를 콜렉트 할 수 있는 매개자가 필요하며 부산 아트페어 활성화를 위한 전문콜렉터 양성 및 전담 매개자가 필요함
 - 부산에 작품을 판매할 수 있는 대형샵과 관리 가능한 전문가가 있으면 좋겠음
 - 부산재단에 큐레이터 같은 인력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음
 - 시각예술 갤러리에 도슨트를 지원하면 좋겠음
 - 작가, 대중을 연결할 수 있는 비평가, 기획자들이 함께 움직여야 시각예술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임
 - 부산지역에 평론가가 많아야 함
 - 창작자가 원하는 중간 매개자와 비평가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함
 - 젊은 기획자 양성을 위한 제도나 교육프로그램 있으면 좋겠음
 - 창작공간 및 인력양성, 관련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함
 - 부산에는 매개인력에 대한 직업군이 형성되지 않았으며 인력양성에 관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함
 - 대학에서의 인큐베이팅도 필요함
 - 미술관을 늘려 큐레이터, 교육생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확산되어야 함
 - 상업적으로 예술을 할 수 있는 소규모 공간이 없는데 부산재단에서 공간목록을 조사해서 플랫폼을 공유해주면 좋겠음

□ 기타

- 지원사업은 성장의 기회지만 판매 지원은 아니며 작품의 구매기준이 다름
 - 재단의 지원사업은 작가들에게 성장의 기회를 줌
 - 레지던시 시설이 다 갖춰지지 않더라도 출신 작가라면 인정받고 권위를 부여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음
 - 재단 지원사업은 작품판매를 위한 지원이 아닌 것 같음
 - 작가들이 자기 작품을 다른 형식으로 판매했던 경험이 있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판매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을 느꼈음
 - 아트페어에서 작가와 화랑의 타깃층이 다름(작가는 비평가, 화랑은 작품구입 고객)
 - 미술은행, 미술관이 작품을 소장할 때 구매기준이 다름

- 아트페어에 작품이 팔리는 작가층과 순수미술계에서 창작활동을 하는 작가층이 다르며 순수창작 작가들은 작업 활동 자체에 의미를 둠
- 대중과 소통하는 예술 확산을 위한 예술인(단체) 인식 개선
 - 유통 확산을 위해 작가들의 적극성이 있어야 하는데 작가의 인식개선이 필요함
 - 새로운 매체에 대한 고민이 있음
 - 유통을 염두하고 작품 활동하는 작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작가 자신의 작품이 타인에게 보여지는 작업이므로, 대중과 함께해야 한다고 인식하며 작가가 출품 시 구매자/관람객의 니즈를 고민해야 함
 - 작가가 개인작품의 이미지를 상품화하는 등 자생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함
 - 작가들에게 아트페어 말고 국공립미술관 공모전 등 다양한 활동 방법을 이야기해주기도 함
 - 공공장소 전시를 통해 미술작품의 확산과 공공예술로서 파급효과가 커질 수 있음

3. 시사점 및 종합분석

1) 부산문화재단 창작지원사업 분석 결과 및 시사점

- 2023년에 창작준비지원 사업이 신설되어 활동실적이 있는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부산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지원함. 자체 워크숍 및 교육, 연구 등 예술단체의 작품 준비활동을 지원하는 데 창작아이디어를 구체화하거나, 사전제작을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창작 활동 지원과 관계자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개인 작업이 많은 시각예술 장르의 특성상 지원대상이 단체에 한정되는 것은 지원 및 선정의 한계라 할 수 있음
- 시각예술분야 우수예술지원사업의 개인지원은 전시기획 및 작품 창작에 소요되는 직접경비로 정액 4백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정산없이 자율적으로 창작에 필요한 예산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자율적 창작지원금 사용의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음
- 부산문화재단의 창작공간 지원은 감만창의문화촌, 흥티아트센터, 원도심창작공간 또따또까 운영 사업이 있음. 해당 사업은 레지던시 활성화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흥티아트센터의 경우 타 지역 예술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열어둠으로써 타 지역 예술가와의 교류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용이함
- 그러나 레지던시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과업으로 인해 창작활동의 의욕이 방해되기도 함. 따라서 유통확산과 관객개발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변화가 필요함
- 현재 부산문화재단의 청년예술인 지원사업에서는 지역 기업들과 연계 및 협력기회를 만들어가는 기업협력형 창작활동지원, 아트페어 운영, 청년예술작품 구독사업 등이 실행되고 있음. 이러한 선순환을 견인하는 사업들이 우수예술지원사업에서도 개발될 필요성 있음

2) 표적집단면접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세심하고 다양한 지원제도 설계

- 사업의 목적, 목표, 세부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세심한 사업 설계가 필요함
- 신생예술인(단체) 및 장애예술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제도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예술인(단체)이 창작활동에 필요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 다년지원 등 다양한 지원트랙이 요구됨
- 우수예술작품에 대한 후속지원 제도를 통한 예술인(단체)의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
- 신진과 중견 등 세대별 경쟁을 통해 예술인(단체)이 장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세분화하고 작품제작에 따른 작가활동비, 아티스트 피(Artist Fee) 등의 세심한 지원이 필요함

□ 집중지원이 가능한 현실적 지원금 편성

- 예술인(단체)이 창작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금이 현실적으로 반영되어야 함
- 장르, 참여인원수가 아닌 예술작품의 제작 방식, 제작환경에 따라 지원금의 적절한 편성 및 배분을 통해 창작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함
- 창작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부합하는 지원금 편성 기준과 심의제도도 일부 개선되어야 함

□ 목적성을 고려한 레지던시 사업 재편

- 안정적인 창작환경 지원의 측면에서 레지던시 사업이 가지는 목적과 중요성 있음. 사업별 목적과 기간별로 차별화된 레지던시 사업이 구성되어야 함
- 현재 운영되고 있는 레지던시 사업의 과업 개선이 요구됨. 전반적으로 레지던시의 과업이 입주 작가들의 창작활동에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작가들에게 창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야 함
- 오픈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작가의 성장과 팬덤(fandom)을 양성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갤러리/유통 관계자와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장르별 특성을 반영한 레지던시 사업이 필요하며 레지던시 공간이 기획자, 작가들의 다채로운 커뮤니티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사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교류 지원을 통해 예술인의 활동이 다방면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음

□ 창작공간 지원의 다각화

- 시각예술의 특성상 장르별 작업환경이 다르며 작업도구, 작품크기 등에 따른 창작공간의 차별화와 다양성이 요구됨. 부산지역 창작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 예술인(단체)가 필요로 하는 창작공간을 고민해 보아야 함
- 창작공간 구축에 있어 부산지역의 빈집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사료됨. 현재 재단은 부산 소재 빈집 및 유휴공간을 활용한 반딧불이(빈집공간) 창작공간사업을 운영 중임. 재단의 사업예산,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부산시와의 협의를 통해 부산의 유휴공간 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함
- 창작공간 내 여러 장르의 작품제작이 가능한 작업도구(장비)를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음. 창작공간 내 기술인력(Technician)과 기술장비 도입이 어려울 경우 재단과 산학 연계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시각예술분야 특성상 개인 작업이 많아, 개인 작업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하지만 비싼 임대료와 한정된 임대기간으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을 갖고 있는 실정임. 창작공간의 임대료 지원 등을 통해 부산지역의 안정적인 창작공간 사용 여건이 마련되어야 함

□ 홍보·마케팅 지원 강화

- 예술인(단체)이 작품 제작 후 전시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직접 작품을 홍보하여 판매하기도 하나 주로 지인을 통한 작품 판매가 대부분임. 온라인을 통한 작품의 유통, 확산방식은 작가 스스로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를 위해 다양한 판매경로, 유통방식 등의 홍보·마케팅 후속지원이 필요함
- 아트페어가 열리지만 인기작가 작품을 위주로 전시·판매되며, 부산 작가의 참여가 저조하고 판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음. 재단 지원사업에 선정된 창작활동의 결과가 우수할 경우, 메세나 사업 또는 네트워킹 협력을 통해서 작품의 유통 및 확산의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재단 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가(단체)에게 권위가 부여되고 지원사업의 대중인식 확산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예를 들어 부산문화재단 우수예술지원사업(수월성 중심 지원)에 선정된 예술가의 합동 창작 발표회(전시, 도서 출판 등)나 아트페어 등에 부산문화재단 부스 구역을 마련하여 선정 작품을 일괄 홍보 지원하는 방식 등을 추천함

□ 시각예술 매개자 양성 교육 및 유통 확대 노력

- 딜러, 비평가, 전문 콜렉터 등의 중간 매개인력의 필요성이 강조됨
- 재단이 유통 관련 교육이나 컨설팅 등의 교육을 위한 공동플랫폼이나 전담기구를 운영하여 유통관련 정보제공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토록 함
- 또한 지역예술인에 대한 관심과 그들의 창작작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일반인 대상의 눈높이 교육도 필요함

□ 기타

- 작가 스스로도 유통 확산의 필요성과 대중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관심이 필요함
- 기초예술 단계에서 지원가능한 영화 제작과정 지원에 대해 부산문화재단과 영화관련 지원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함
- 재단의 위상 제고 및 재단 직원의 전문성 강조됨

3) 종합분석

□ 지원사업의 다양화

- 부산의 지원사업은 전시발표 지원, 청년문화육성지원, 창작공간지원(레지던시, 재단 자체 창작 공간)이 중심을 이룸. 예술인(단체)의 작품 준비활동이나 창작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사전제작을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창작활동 지원이 부재함. 이를 위해 사전준비 지원이나 선정 예술인(단체)에 창작활동비, 아티스트 피 지원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신진, 중견, 원로 등 별도의 경쟁과 지원방식을 통해 예술지원을 세분화하고 선택과 집중, 다년 지원, 예술인 브랜딩 지원 등 지원 트랙을 다양화해야 함
- 기존의 레지던시 지원 프로그램의 개선 및 작업환경을 고려한 창작공간 지원방식의 변화가 필요함
- 결과발표 방식의 다양화 - 현재는 전시만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도록, 상영, 전시 등으로 결과발표의 다양화가 필요함

□ 다양한 실험의 장 기회 확대

- 시각예술에서 타 장르, 타 학문 간의 융합적 실험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었음. 예술인(단체)도 새로운 매체에 대한 고민이 있으며 재단도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통해 동시대 예술 흐름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온라인 채널 등 시각예술의 발표 형식과 새로운 표현 방식으로서의 기술 협력 기회를 제공해야 함
- 대학과 사업체가 보유한 테크니션과 기술장비 등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산-학 협력을 통해 실험의 장을 확대해야 함

□ 창작이후의 후속지원으로서 유통 및 확산 지원 필요

- 시각예술의 경우 전시회 이후 작품이 유통과 판매로 연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현재의 지원체계 역시, 작품 창작 및 발표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유통과 확산을 위한 지원이 부재함
- 이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 다양한 판매경로, 유통 등의 교육, 홍보·마케팅 등 후속지원을 통해 부산 예술인(단체)의 역량 제고와 시각예술의 대중 확산을 도모해야 함

□ 부산 시각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지원방안 마련

- 지역 예술산업의 성장을 위한 다각도의 지원정책 부재
 - 그간의 지원사업이 다양성이 부족하며 동시대 예술 경향을 반영한 지원정책이 부재하였음을 인식하여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 지역내 시각예술 성장을 위해서는 예술인(단체)의 성장단계를 고려한 다각도의 지원정책을 고민해야 함
- 부산 시각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인력양성 및 지-산-학 협업 필요
 - 시각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미술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매개인력을 양성해야 함. 또 재단에는 기획자 중심의 프로젝트성 사업이 부재한 실정임. 인력양성 및 사업지원으로 부산의 시각예술시장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해야 함
 - 지역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재단 내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재단과 지역 예술계 및 대학, 기업체가 협업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
- 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제도 확대
 - 생애 최초, 생애 첫 지원과 같은 예술인(단체) 지원이나 장애예술인 지원을 구체화하여 진입장벽은 낮추고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을 발굴 지원하여 예술지원체계의 포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문화 인프라 구축과 지원의 다각화를 통해 지역 예술인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예술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함

IV.

부산 시각예술 활성화 지원 전략

1. 부산 시각예술 활성화 지원을 위한 개선 방향
2. 부산 시각예술 활성화 지원 전략 개요
3. 부산 시각예술 활성화 지원 세부 추진 사업
4. 소요예산 및 연차별 추진 계획

IV. 부산 시각예술 활성화 지원 전략

1. 부산 시각예술 활성화 지원을 위한 개선 방향

- 이 연구를 시작하면서 부산지역 시각예술 활성화 전략 도출을 위한 단계별 고민은 다음과 같음
- [문제진단] 연구 시작할 때 문제의식
 - 부산 시각예술 작가들의 작품들이 다양한 경로로 확산, 유통되지 못하고 있음
 - 시각예술 작가들을 지원하는 제도가 창작단계에 집중되어 있어, 준비, 장기적인 확산과 유통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함
 - 부산지역 예술작가들에 대한 정보가 부산시민들에게 잘 전달되지 못하고 있음
- [전망] 시각예술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 시각예술분야 종사자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예술활동을 하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
 - 부산지역에서 새롭고 다양한 창의적인 시각예술 성과들이 공유될 수 있는 건강한 시각예술씬이 만들어지는 것
 - 시각예술작품을 부산시민들이 자신의 취향에 맞게 마음껏 즐길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지역의 시각예술가들과 부산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것
- [개선방향] 부산지역 시각예술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 수립 방향
 - 창작주기를 고려한 예술지원체계 마련
 - 다양한 경로의 예술창작환경 조성 지원
 - 예술작품의 확산, 유통 기반 지원
 - 예술가들의 국내외 진출 및 교류 기회 제공
 - 신진예술가 유입 및 매개인력 활동 가능 구조 마련
- [고려사항] 부산지역 시각예술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 시 고려사항
 - 1차년도 공연예술 지원사업 개선과정에서 시행되는 지원사업에 대해 장르별 보완 개선을 통하여 현행 예술지원사업체계의 간결성을 유지하여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을 지향하였음
 - 공모사업 중심의 정책 제안을 넘어 홍보 지원, 유관기관 참여 등 다양한 지원 형태를 접목하려 하였음

2. 부산 시각예술 활성화 지원 전략 개요

-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예술지원체계
 - 기획자 참여 지원사업 개발
 - 부산 시각예술작가 브랜딩 사업 신설

- 다양한 차원에서 지원받는 창작 환경
 - 창작준비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확대
 - 공유 작업공간 시범 운영
 - 민간 창작공간 임대료 지원

- 다양한 경로로 확장되는 부산의 시각예술
 - 아트페어, 아트마켓 참가 지원
 - 부산비엔날레 등 부산 미술계 정보 공유
 - 시각예술 매개인력 양성 과정 운영

- 미래 세대와 연결되는 부산 시각예술생태계
 - 예술계 지식학 협력 구조 마련(대학연계 융복합 예술 랩 운영)
 - 청년예술가 유통 지원사업 확대



[그림 46] 부산 시각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전략 개요

[표 24] 부산 시각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전략 로드맵

목표	추진전략	실천과제
1.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예술지원체계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지원체계	1) 기획자 대상 지원사업 확대 운영
	부산 시각예술인 홍보 마케팅 강화	2) 부산 작가 브랜딩 사업 신설
2. 다양한 차원에서 지원받는 창작환경	창작공간의 다변화 모색	1) 공유 작업공간 [모두의 예술작업실] 시범 운영 2) 민간 창작공간 임대료 지원
	안정적인 창작활동 준비 여건 마련	3) 창작준비활동 지원사업 확대 운영
3. 다양한 경로로 확장되는 부산 시각예술	외부 진출 및 교류 기회의 적극적 창출	1) 아트페어, 아트마켓, 비엔날레 참가 지원 2) 부산비엔날레 등 부산 미술계 정보 공유
	시각예술계 활동 인력 다각화	3) 시각예술 매개인력 양성 과정 운영
4. 미래 세대와 연결되는 부산 시각예술 생태계	시각예술의 창의적 실험 기회 창출	1) 대학 연계 산학 협력 융합예술 랩 운영
	신진예술가 활동 기회 확대	2) 청년예술가 유통 지원사업 확대

3. 부산 시각예술 활성화 지원 세부 추진 사업

1) 목표1.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예술지원체계

- 창작자 외에도 매개자, 기획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참여대상의 폭을 확대하여 활동기회 보장
- 부산지역 예술작가들에 대한 집중 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홍보·마케팅 등 다각도의 지원으로 부산지역 예술인 위상 제고

추진전략	실천과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지원체계	1) 기획자 대상 지원사업 확대 운영
수월성 있는 작품 창작기반 마련	2) 부산 작가 브랜딩 사업 신설

□ 기획자 대상 지원사업 확대 운영

○ 추진방향

- 기존의 재단 사업은 예술인(단체) 중심의 지원으로 기획자 등 다양한 창작주체의 참여 기회가 없었음
- 부산지역에서 시각예술이 다양하게 창작되고 유통, 확산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매개인력으로서의 기획자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창작활동이 창의적으로 기획되고 자유롭게 실현될 수 있는 마중물을 제공하면서 보다 폭넓고 다양한 창작기회 보장
- 2023년 공연예술 활성화 기초연구 후속 공모사업으로 <상시>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지원신청 자격이 예술인과 예술단체로 한정되어 있어 개인 기획자나 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확대 필요

○ 세부실행안

[표 25] 기획자 대상 지원사업 개요

구분	세부 내용			
사업개요 및 특징	- <상시> 지원사업 내 기획자 참여 지원 확대 - 사회적 이슈, 지역 예술생태, 동시대 미술, 예술·기술융합 등 자율기획 지원 - 부산지역 시각예술작가 연계 프로젝트 권장하여 기획자, 예술가 연계 기회 확대			
지원대상	- 부산 소재 기획자 - 최근 5년 이내 1건 이상의 기획 전시 활동실적 보유			
지원내용	- 시각예술 관련 자율적인 기획 및 실행(부산 지역 시각예술 작가 연계 프로젝트 권장) - 주제와 형식에 제한이 없는 완성형 프로젝트 지원			
지원규모	- 최대 40백만 원 이내 - 10건 내외 지원(시각 공연 문학 공통)			
심의방식	- 서류 및 발표 심의			
소요예산 (백만 원)	- 연 4억 원			
	- 연도별 소요예산(백만 원)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400	400	400	400

□ 올해의 포커스온 <시각예술> - 부산 작가 브랜딩 사업

○ 추진방향

- 현재 부산문화재단의 시각예술 지원사업은 크게 우수예술지원과 레지던시로 구분할 수 있음. 창작환경 조성 및 창작지원에 중점을 둔 지원체계에서 부산 시각예술의 홍보 및 마케팅 강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공연예술의 경우 2023년도부터 다년도 지원사업인 올해의 포커스온을 운영하고 있음. 시각예술의 경우 개인 단위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집중 지원의 방식을 작품 창작보다는 시각예술 성과를 아카이빙하고 작가로서의 브랜딩 작업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안함
- 전년도 시각예술분야 우수예술지원에 선정된 예술인을 대상으로 다음해에 올해의 포커스온(시각예술)을 통해 작품 세계를 집중조명하는 것을 제안함

○ 세부실행안

[표 26] 집중지원사업 - 올해의 포커스온 <시각예술> 운영 개요

구분	세부 내용			
사업개요 및 특징	- 당해연도 우수예술 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인을 대상으로 이듬해에 올해의 포커스 온 <시각예술>을 통해 집중 지원 - 홍보·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으로 예술인 및 작품의 유통 확산 기회 제공			
지원대상	- 부산 소재 예술인(단체 지원 불가) - 최근 5년 간 3건 이상 시각예술 활동 실적 보유 - 전년도 우수예술활동 지원(시각분야)에 선정된 예술인이 지원신청 가능			
지원내용	- 홍보·마케팅, 브랜드 영상, 포트폴리오, 아카이빙 및 비평, 올해의 포커스온 단체전 지원 등			
지원규모	- 개인 1천만 원 정액 지원 - 시범 사업 운영 시 5명 지원, 이후 확대 지원			
심의방식	- 서류 및 발표 심의			
소요예산 (백만 원)	연 5천만 원			
	- 연도별 소요예산(백만 원)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50	50	50	50

□ 경기문화재단 경기예술지원사업 시각예술분야 단체전 <생생화화>

○ 사업특징

- 경기도 주소 예술인(단체)의 창작분야별 지원을 통한 창작 활성화 사업
- 기초예술 창작지원 사업으로 “창작 신작”의 발표 기회 제공 및 유통 지원
- 단체전 “생생화화” 초청

○ 사업내용

- 창작지원: 신작 계획에 대한 창작 실비 지원, 1천2백만 원
- 평론가 매칭
- 단체전 “생생화화”를 통해 당해지원된 신작 작품의 전시에 참여하게 됨

○ 사업대상

- 경기도 주소 작가로 개인전 1회 이상 혹은 그룹전 2회 이상 활동실적을 보유한 작가
- *경기도내 시·군 지역제한 없으나 ‘신작’ 창작 지원사업임



[그림 47] 경기일보(2022.11.22.) 「예술가들을 응원하는 착한 전시, 경기문화재단 ‘생생화화 2022」

2) 목표2. 다층적 차원에서 지원 받는 창작 환경 구축

- 부산문화재단의 창작공간 지원사업은 레지던시 활성화 측면에서 홍티아트센터, 감만창의문화촌 기반 레지던시 사업과 민간 레지던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시각예술분야 종사자 FGI 면담자는 판화, 조각 등 시각예술 창작 작업 과정에 전문적인 시설과 장비가 필요한 장르의 경우 레지던시에 적합하지 않고, 선정되더라도 장비가 필요한 작업은 할 수 없으므로, 오히려 개인 차원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고가의 장비를 공유작업실 등에서 보유하여 활용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음
- 레지던시 작업은 단순히 작업실 확보를 넘어 시각예술계의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크 및 협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도 활용되고 있음
- 시각예술인의 창작 작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테크니션이 상주하는 공유 작업공간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민간 창작공간에 대한 임대료 지원을 제안함
- 또한 공유 작업 공간의 경우 예술인들 간 정보교환 및 네트워크가 가능하도록 공유 사무실 기능도 부여되어야 함
- 안정적인 창작활동 준비 및 여건 마련을 위해 현재 부산문화재단은 창작준비활동 지원사업을 실행하고 있음
- 창작준비활동 지원사업의 지원신청자격은 현재 예술단체로 한정되어 있어 개인작업을 주로하는

시각예술분야의 참여가 어려움

- 따라서 지원신청자격을 개인과 프로젝트팀 등으로 확대하여 시각예술분야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

추진전략	실천과제
창작공간의 다변화 모색	1) 공유 작업공간 [모두의 예술작업실] 조성 추진 2) 민간 창작공간 임대료 지원
안정적인 창작활동 준비 여건 마련	3) 창작준비활동 지원사업 확대 운영

□ 공유 작업공간 [모두의 예술작업실] 조성 추진

- 추진방향
 - 시각예술분야의 다양한 창작 스타일을 반영한 작업공간과 창작과정의 활동지원이 필요함
 - 자유로운 창작활동과 예술 환경을 고려하여 예술인(단체)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공유 작업공간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예술활동의 창작기반 토대 마련
- 세부실행안

[표 27] 공유 작업공간 시범 운영 사업 개요

구분	세부 내용			
사업개요 및 특징	- 공유 작업공간 [모두의 예술작업실] 조성 추진			
지원내용	- 부산시, 기업 협업을 통한 유휴공간 조사 및 운영 기업 공모 - 공간조성: 사무실, 작업실, 대형작업실, 물품 공유창고, 공동시설 등 - 프로그램: 공간 대여, 역량강화 및 교류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소요예산 (백만 원)	5억 원(공간 조성 4억 원, 운영비 1억 원)			
	연도별 소요예산(백만 원)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0	200	50	50

□ 아트업서울

- 아트업서울 소개
 - 아트업서울은 아티스트와 대중이 만나는 예술경험 커뮤니티로 사회적기업 위누(weenu)가 2017년 서울시의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에 선정되면서 조성한 공간임
 - 아트업서울-을지로, 아트업서울-혁신파크(2023년 4월 종료)에 이어 아트업서울-성동을 운영하다가 현재는 성동점만 운영하고 있음

- 아트업서울은 서로 영감을 주고받을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 새로운 협력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파트너와 예술관련단체/기관, 그리고 예술에 관심있는 시민들이 만날 수 있는 곳이며, 또한 아티스트는 이곳에서 시민들과 더욱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전시, 워크숍, 축제 등의 프로그램을 위누와 함께 기획/진행하게 됨

○ 운영 방식

- 아트업서울은 4UP의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아티스트의 창작활동, 전시활동, 수익활동, 그리고 홍보활동을 위해 협력하며, 예술가 스스로 다양한 기획 주체자로 동시 성장토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또한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아티스트 스스로의 정체성을 발전시키고 협업과 네트워크를 통해 가능성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작가나 개인작업실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의 멤버십으로 운영되고 있음
- 주로 회화 등의 평면예술 작가의 작업실 사용률이 높음
- 국내외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와 기업, 대중이 오픈된 형태의 코워킹 스튜디오에서 가장 창의적인 예술적 경험을 교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음
- 최근 SKT와 협업하여 전시를 개최하여, 멤버십작가들의 작품을 전시, 홍보하기도 하였음

○ 운영 프로그램

- 아트프레너 프로그램: 지속가능한 예술활동을 위한 아티스트, 문화예술 기획자 맞춤형 프로그램
- 아트업 파트너: 수익을 다각화 할 수 있는 아트콜라보, 전시, 워크숍 등의 기회 연결
- 아트업데이: 월 1회 멤버간 소식과 영감을 나누는 네트워크
- 아트업서비스: 작업 활동에 필요한 포트폴리오 촬영, 컨설팅, 제휴 할인 등의 서비스 이용
- 최근 SKT와 협업하여 전시를 개최하기도 하였음

○ 멤버십 가입 절차

- 위누가 기획하는 다양한 사업에 함께할 수 있는 열린 마인드와 현대적 트렌드를 잘 반영하고 있는 작품활동 작가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음
- 멤버십 가입을 위해서는 작가 포트폴리오 제출 필요하며 약식 절차에 따라 수시 가입 가능함

○ 멤버십 가입 혜택

- 공간별로 멤버십 비용이 다르며, 멤버십에 가입하게되면 워크숍룸 등을 월 8회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음
- 교육 운영을 희망하는 작가와 함께 프로그램과 운영 전반에 참여하며 수익을 배분하기도 함

○ 공간 소개

- 아트업서울-성동은 개인작업공간(스튜디오 A-1.5평, 스튜디오 B-3평)과 공유공간(컴퓨터, 프린트, 테이블 등), 공유부엌, 워크숍룸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48] 아트업서울-성동 공유공간 및 작업실(연구진 직접 방문 및 촬영)

□ 민간 창작공간 임대료 지원

○ 추진방향

- 개인 창작공간을 운영하는 예술가의 경우 창작 공간의 비싼 임대료 등으로 창작활동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현실적 부담 가중
- 작업공간이나 전시공간의 임대료 지원 등 투트랙 구조로 창작활동에 수반되는 제반비용을 지원하여 창작활동 안정성 제고

○ 세부실행안

[표 28] 민간 창작공간 임대료 지원 개요

구분	세부 내용			
사업개요 및 특징	-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필요한 공간(작업실 등) 임대료 지원			
지원대상	- 부산 소재 예술인(단체) - 최근 5년 간 3건 이상 시각예술 활동 실적 보유 - 부산 지역에 창작공간을 보유한 예술인 및 단체			
지원내용	- 임대계약서 등에 따른 연간 임대료 일부 지원(계약서에 월 임대료가 기재되어야 함)			
지원규모	- 창작공간 임차료 일부 지원(최대 5백만 원, 최장 6개월 순 임차료 지원) - 20건 내외(시각 공연 문학 공통)			
심의방식	- 서류 심의			
소요예산 (백만 원)	연 1억 원			
	연도별 소요예산(백만 원)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100	100	100	100

□ 창작준비활동 지원사업 확대 운영

○ 추진방향

- 창작준비활동 지원은 창작아이디어를 구체화하거나, 사전제작을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창작활동 지원, 관계자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음
- 2023년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창작준비지원 사업을 신설하였으나 개인 작업이 많은 시각예술 장르의 특성상 한계를 보임
- 기존 창작준비활동 지원사업을 단체 지원에서 개인까지 확대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임
- 향후 예술인(단체)이 추진할 국·내외 개최 전시 등을 위한 사전 조사 및 연구, 워크숍 등 창작활

동 지원으로 내실을 기함

- 새로운 실험과 도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창작활동의 심화와 창작품의 수월성 제고 기여

○ 세부실행안

[표 29] 창작준비활동 지원사업 개요

구분	세부 내용			
사업개요 및 특징	- 시각예술분야 예술인(단체)의 창작준비 활동 지원 - 조사, 연구, 수집, 워크숍 등 전시기획 심화 및 준비에 소요되는 다양한 스펙트럼 지원			
지원대상	- 부산 소재 예술인 및 단체, 프로젝트팀 지원 가능 - 최근 5년 간 3건 이상 시각예술 활동 실적 보유 - '25~26년도 시각예술 분야 전시 계획이 있거나 발표를 앞두고 있어야 함			
지원내용	- 신작 구상을 위한 준비단계에서 발생하는 기획(아이디어 기획구현 지원), 실험, 리서치 등 창작준비활동에 필요한 경비 일부 지원 ※ 전시 발표 개최 불필요			
지원규모	- 정액 3백만 원 - 50건 내외(시각 공연 문학 공통)			
심의방식	- 서류 심의			
소요예산 (백만 원)	연 1억 5천만 원			
	연도별 소요예산(백만 원)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150	150	150	150

3) 목표3. 다양한 경로로 확장되는 부산 시각예술

- 준비/과정, 제작/발표, 유통/확산으로 이어지는 예술의 단계별 지원 체계에서 예술작품이 더 많은 매개자, 대중들과 접촉하고 유통/확산으로 연결되는 다층적인 방식의 필요성이 제기됨
- 부산지역 여러 측면의 예술창작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각예술 교류의 장을 마련해 부산지역 예술인(단체)이 타 지역과 많은 활동을 교류할 수 있는 토대 구축
- 시민 누구나 예술인(단체) 및 창작품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참여 활동 지원과 시각예술 활성화를 위한 매개인력 양성 등을 통해 부산 시각예술의 대중성 확보와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

추진전략	실천과제
외부 진출 및 교류 기회의 적극적 창출	1) 아트페어, 아트마켓 참가 지원 및 비엔날레 정보 공유
시각예술계 활동 인력 다각화	2) 시각예술 매개인력 양성 과정 운영

□ 아트페어, 아트마켓 참가지원 및 비엔날레 정보 공유

○ 추진방향

- 아트페어, 아트마켓은 미술품이 유통될 수 있는 가장 큰 단위의 플랫폼이고, 비엔날레는 동시대 미술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미술계의 큰 이벤트임
- 이러한 미술행사들은 부산, 서울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기차게 운영되고 있음. 이러한 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작가들의 참가비 및 이동경비 등을 지원하여 다양한 진출경로를 예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예술인이 스스로 자신의 작품 경향에 맞는 아트페어 및 아트마켓을 선택,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정체성을 잃지 않고 다양한 예술시장에 진입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견인
- 또한 부산비엔날레의 경우 부산지역 작가들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부산문화재단의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시각예술인들의 작품 등의 정보 등을 공유할 필요가 있음

○ 세부실행안

[표 30] 아트페어, 아트마켓, 비엔날레 참가 지원사업 개요

구분	세부 내용			
사업개요 및 특징	- 국내·외에서 열리는 아트페어나 아트마켓, 비엔날레 참여 지원 - 우수예술지원사업 선정 예술가 정보 부산비엔날레 공유			
지원대상	- 부산 소재 예술인 - 최근 5년 이내 3건 이상의 활동실적 보유 - 당해 아트페어 및 아트마켓, 비엔날레에 참여가 확정되거나 작품 전시가 예정된 경우			
지원내용	- 아트페어, 아트마켓, 비엔날레 참여 지원 · 아트페어 및 아트마켓 참여 활동에 필요한 경비 일부 지원 · 참가신청비, 부스비, 작품 이송료, 작품 설치비, 작가 체류비 등 지원 - 당해연도 우수예술지원사업 선정 예술가 및 작품 목록 부산비엔날레 공유			
지원규모	- 1인당 최대 5백만 원 - 10명 내외 시범 운영 후 확대			
심의방식	- 서류 및 발표 심의			
소요예산 (백만 원)	연 5천만 원			
	연도별 소요예산(백만 원)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50	50	50	50

□ 시각예술 매개인력 양성 과정 운영

○ 추진방향

- 시각예술 시장이 다방면으로 확대되고 향유방식도 다양화되면서 예술인과 향유층을 매개할 수 있는 매개인력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반면, 지역에서 활동하는 관련 전문 인력은 부족한 실정임
- 작품 창작, 발표 지원에서 탈피하여 유통과 확산 등을 위한 홍보·마케팅, 유통·경매 인력 양성 지원을 통해 예술인의 역량 제고 및 전문인력 확보를 기대할 수 있음
- 지역 예술대학 졸업생들이 예술계의 다양한 진로를 고려할 수 있는 기회로서의 양성과정과 시각예술 종사자들의 활동 영역 확장을 위한 역량강화 과정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매개인력 교육과정 운영으로 지역 예술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시각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도모할 수 있음

○ 세부실행안

[표 31] 시각예술 매개인력 양성과정 사업 개요

구분	세부 내용			
사업개요 및 특징	- 시각예술 매개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 시각예술 분야 매개인력의 전문성 함양을 목표로 관련 교육과정 운영 - 향후 수료자 대상 지역 예술단체 매칭을 통한 연계 활동 지원			
지원대상	- 진출예정자 : 시각예술에 관심 많은 부산 소재 대학(원) 재학생 또는 졸업(수료)생 - 종사자 : 부산 소재 예술인 및 갤러리 등 시각예술공간 종사자			
사업내용	- 시각예술 매개인력 양성 교육과 시각예술인력 역량강화 교육으로 이원화 운영 · 시각예술 매개인력 양성교육(진출예정자) : 기획, 비평, 홍보 마케팅 등 매개 역량 전반 · 시각예술인력 역량강화 교육(종사자) : 미술시장 트렌드 및 신영역 개발 등 - 예술경영지원센터 연계하여 지역형 교육 운영 - 수료자 주도 시각예술기획 프로젝트 실험 기회 제공			
지원규모	- 교육과정 운영 5천만 원 - 프로젝트 실행비 2천만 원			
심의방식	- 서류 심의			
소요예산 (백만 원)	연 7천만 원 연도별 소요예산(백만 원)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70	70	70	70

4) 목표4. 미래세대와 연결되는 부산 시각예술 생태계

- 다변화되는 시각예술계를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 자산학 협력 등을 통한 새로운 실험 기회를 제공하여 예술의 미래형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신진 및 청년예술가 등 미래세대 예술인이 부산 지역 내에서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해 나갈 수 있는 다각도의 지원방식으로 안정적인 창작환경 제공
- 시각예술 장르, 타 장르 예술인(단체) 교류를 통해 세대 간 예술적 가치관을 공유하고 동시대 미술, 사회적 이슈 등을 함께 인식하고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건강한 시각예술 생태계를 조성함

추진전략	실천과제
시각예술의 창의적 실험 기회 창출	1) 대학 연계 산학 협력 융합예술 랩 운영
신진예술가 유입 기회 확대	2) 청년예술가 유통 지원사업 확대 및 네트워크 운영

□ 대학 연계 산학 협력 융합예술 랩 운영

○ 추진방향

- 시각예술에서 타 장르, 타 학문 간의 융합적 실험과 협력 사업은 이미 진행되고 있지만 부산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흐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이 부재함
- 재단, 대학, 예술계와 연계한 융합예술 플랫폼 <부산아트랩(Busan Arts Lab)> 운영을 통해 테크니션과 기술장비를 활용한 실험적인 예술의 장을 확대해 나가야 함
- 현장 예술인 멘토링, 예술계 인턴십 개설 등 지역 대학과 예술현장을 이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 및 시각예술의 산업적 성장기반 마련이 필요함
- 대학의 창의적 환경과 지역 시각예술가 간 협력을 통해 실험적 결과 도출에 대한 기대감

○ 세부실행안

[표 32] 대학 연계 산학 협력 융합예술 랩 운영 개요

구분	세부 내용
사업개요 및 특징	- 재단, 대학, 예술계 협력체계 구축해 융합예술 랩 [부산아트랩] 운영 - 대학 내 장비, 타 학과 연계 등을 활용한 실험적인 예술 실현 - 현장 예술인과 대학 간 멘토링, 인턴십 등 프로그램 병행 운영
지원대상	- 부산 소재 예술인(단체) 및 지역 예술대학
지원내용	- [부산아트랩] 운영 대학 섭외 및 협력 가능 영역 구성 - 예술가, 예술대학생, 교수 참여 협력팀 구성 및 프로젝트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제공사항 : 테크니션, 기술장비 등 활용 허가 - 오픈세미나, 결과전시 및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 			
지원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운영비 : 팀당 5천만 원 - 1팀 시범 프로그램 운영 후 확장 			
소요예산 (백만 원)	연 5천만 원			
	연도별 소요예산(백만 원)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50	50	50	50

□ 대전문화재단 예술과 과학 융복합 창작과정 지원 [아티언스 대전]

-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운영되는 사업으로서, 22년 기준 총 6개의 정부출연 기관이 참여하고 있음(한국기계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정부출연기관의 인력과 참여 예술가가 협력하여 운영되는 이 사업은 현재 연구되고 있는 최신의 과학 주제를 가지고 각 연구기관 과학자들의 연구실을 방문하고 연구주제에 대한 설명과 관람기회를 가진 후 참여 예술가들과 과학자들이 대면 만남을 통해서 협업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임
- 다년지원사업으로 1년차 참여예술가는 융복합창작활동을 진행하고 2년차 참여예술가는 결과보고전시에 참여해야 함. 1년차 참여예술가는 창작활동비 최대700만원 지급하고 별도 평가후 2년차 참여가능, 2년차 참여예술가는 창작활동비 최대 1천만원 지급하고 결과보고전시에 참여함

□ 청년예술가 유통 지원사업 확대 및 네트워크 운영

○ 추진방향

- 청년예술인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 부산 내에서 장기적으로 창작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창작지원 뿐만 아니라 유통 및 홍보 확산 영역에서도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현재 부산문화재단에서는 청년예술가를 위하여 청년예술가 창작지원사업 외에도 청년아트페어 지원, 청년예술가 구독작품 지원 등 유통 확산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원사업을 더욱 고도화하고 나아가 청년예술가와 중견예술가 간 정보교류 등을 위한 네트워크 운영을 제안함

○ 세부실행안

[표 33] 청년예술가 유통 지원사업 확대 및 네트워크 운영 개요

구분	세부 내용			
사업개요 및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아트페어 [UNDER39] 운영 - 청년예술인 미술품 대여 지원: 부산시 관내 기업, 기관에서 작품 전시 지원 - 청년예술가 3인전 - 청년예술가 네트워크 운영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 소재 만 39세 이하 시각분야 청년예술가 - 청년예술가 3인전 :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부산에서 전시 및 활동 이력이 있는 청년예술가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아트페어 : 작품 전시공간 및 운영 지원, 작품 운송, 설치, 작품 보험 가입비, 전사개최 및 도록 제작비 지원 등 ※작품 판매 수익금 전액 작가 지급 - 청년예술인 미술품 구독사업 : 작품전시 지원금 지급, 작품 관리, 전시 작품 보험 가입 및 작가별 홍보 영상(1분 내외) 제작비 지원 - 청년예술가 3인전 : 창작지원금 제공, 전시 공간 임대 및 연출 지원, 홍보 및 평론 지원 - 청년예술가 네트워크 : 청년문화 포럼 확대 및 정보 교류, 선후배 예술가 만남 등 			
지원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트페어 : 1억 원 - 청년예술인 미술품 구독 : 5천만 원 - 청년예술가 3인전 : 4천만 원 - 청년예술가 네트워크 : 4천만 원 			
소요예산 (백만 원)	연 1억 3천만 원			
	연도별 소요예산(백만 원)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130	130	130	130

4. 소요 예산 및 연차별 추진 계획

○ 연차별 소요 예산(2023 ~ 2027년)

[표 34] 부산 시각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전략 실천과제별 소요예산

목표	실천과제	소요예산			
		2024	2025	2026	2027
1.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예술지원체계	1) 기획자 대상 지원사업 개발	400	400	400	400
	2) 부산 작가 브랜딩 사업 신설	50	50	50	50
2. 다양한 차원에서 지원받는 창작환경	1) 공유 작업공간 시범 운영	200	200	50	50
	2) 민간 창작공간 임대료 지원	100	100	100	100
	3) 창작준비활동 지원사업 확대 운영	150	150	150	150
3. 다양한 경로로 확장되는 부산 시각예술	1) 아트페어, 아트마켓, 비엔날레 참가 지원	50	50	50	50
	2) 시각예술 매개인력 양성 과정 운영	70	70	70	70
4. 미래 세대와 연결되는 부산 시각예술 생태계	1) 대학 연계 산학 협력 융합예술 랩 운영	50	50	50	50
	2) 청년예술가 유통 지원사업 확대 및 네트워크	130	130	130	130
합계		1,200	1,200	1,050	1,050

참고문헌

참고문헌

○ 〈보고서〉

- 강원문화재단, 2022 강원문화예술지원사업 결과자료집(웹용), 2022,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2021 연차보고서, 2021,
- 예술경영지원센터, 「2021 미술시장조사 보고서」, 2021
- 예술경영지원센터, 2022 KAMA CONFERENCE 「Art Collecting & Business」 자료, 2022
- 예술경영지원센터, 「NFT 미술시장 기초 조사 및 제도 연구」, 2022
-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 MZ세대 미술품 구매자 연구」, 2022
- 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예술 비대면 사업설명회」 자료, 2023
- 서울문화재단, 「2023년 사업설명회」 자료, 2023
- 인천문화재단, 「2023년 인천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사업 설명회」 자료, 2023
-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2022 연차보고서, 2022
- 제주문화예술재단, 2021 연차보고서, 2021
- 충북문화재단, 2022 연차보고서, 2022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3년 주요업무추진계획」, 2022.

○ 〈웹사이트〉

- 광주문화재단홈페이지 <https://www.nsart.or.kr/perform.do?act=detail&pfrmId=339>
- 금천예술공장 홈페이지 https://www.sfac.or.kr/artspace/artspace/geumcheon_main.do
-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s://www.ggcf.kr/>
- 대구문화예술진흥원 홈페이지 https://dgfca.or.kr/article/ARTICLE_NEWS_LETTER/detail/9296
- 대구문화예술진흥원 홈페이지 https://dgfca.or.kr/article/ARTICLE_NEWS_LETTER/detail/9205
- 대전문화재단 디지털아카이브 <http://archives.dcaf.or.kr/web/dcaf/progrmInfo/progInfoListView.do>
- 데이비즈 즈위너 갤러리 홈페이지 <https://www.davidzwirner.com/>
-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s://www.sfac.or.kr/index.do>
-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홈페이지 https://www.sfac.or.kr/artspace/artspace/jamsil_main.do

- 신당창작아케이드 https://www.sfac.or.kr/artspace/artspace/sindang_main.do
- 신민 작가 공식 홈페이지 <https://cargocollective.com/daughternose/workers-2020>
- 아트시 뷰잉룸 홈페이지 <https://www.artsy.net/viewing-rooms>
- 아트업서울 홈페이지 <https://artupseoul.com/>
-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gokams.or.kr/>
-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s://ifac.or.kr/>

○ 〈기사 등〉

- 경기일보, 예술가들을 응원하는 착한 전시, 경기문화재단 생생화화 2022', 22.11.22.,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726500>
- 경북일보, '영주문화관광재단, 경북문화재단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사업 최종 선정' <http://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6676>
- 광주일보, '작가지원, 콜렉터 발굴'일석이조', <https://kwangjuilbo.tistory.com/3296>
- 노컷뉴스, '포항청년작가회 '38회 정기전' 청년미술의 현 수준 점검' 기사 중 사진 발췌 <https://www.nocutnews.co.kr/news/5869785/>
- 뉴스데일리, 2020.12.08.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2/08/2020120800021.html/>
- 디트뉴스24, '세종시 작가 8인방, 오는 26일 서울 인사동 전시 무대 선다' 기사 중 사진 발췌 <http://www.dtnews24.com/news/userArticlePhoto.html/>
- 매일경제, 22.10.29, <https://www.mk.co.kr/news/culture/10507781>
- 서울일보. 경기문화재단, 미술품 활성화 사업 공모. 23.03.16. <http://www.seouil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98454>
- 시사포커스 〈현대미술, 재즈 클래식 음악,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100여가지가 넘는 문화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2018.06.25. <https://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7625>
- 송지형 작가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p/CkLaskzhv0a/?igshid=MmJiY2l4NDBkZg==>
- 예술경영웹진 447호, 20.6.11. '온라인 미술시장을 대하는 태도-코로나19 이후 예술과 시장의 변화', https://www.gokams.or.kr/webzine/wNew/column/column_view.asp?idx=2345&page=10&c_idx=85&searchString=&c_idx_2=
- 예술경영웹진 475호, 21.12.23.' '뜨거웠던, 너무나 뜨거웠던 2021년 미술시장의 주요이슈,

- 동향과 전망’, https://www.gokams.or.kr/webzine/wNew/column/column_view.asp?idx=2526&page=5&c_idx=85&searchString=&c_idx_2=
- 예술경영웹진 480호, 22.4.28., ‘미술시장의 다양한 참여자가 바라보는 NFT의 현재와 미래’, https://www.gokams.or.kr/webzine/wNew/column/column_view.asp?idx=2542&page=5&c_idx=85&searchString=&c_idx_2=
 - 예술경영웹진 480호, 22.4.28.,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예술은 어떻게 구현되고 있나-해외 메타버스 아트프로젝트 중심으로’, https://www.gokams.or.kr/webzine/wNew/column/column_view.asp?idx=2544&page=4&c_idx=85&searchString=&c_idx_2=
 - 예술경영웹진 480호, 22.4.28., ‘예술 현장에서 NFT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NFT 아트프로젝트 사례를 중심으로’, https://www.gokams.or.kr/webzine/wNew/column/column_view.asp?idx=2545&page=4&c_idx=85&searchString=&c_idx_2=
 - 예술경영웹진 484호, 22.8.25., ‘2022년 온라인 아트 마켓의 현주소와 한국의 현황’, https://www.gokams.or.kr/webzine/wNew/column/column_view.asp?idx=2569&page=3&c_idx=85&searchString=&c_idx_2=
 - 예술경영웹진 485호, 22.9.29., ‘기술시대에 펼쳐질 미술의 미래’, https://www.gokams.or.kr/webzine/wNew/column/column_view.asp?idx=2579&page=3&c_idx=85&searchString=&c_idx_2=
 - 예술경영웹진 485호, 22.9.29., ‘예술을 초월한 그 이상의 예술: 서울에서의 기록 2022’, https://www.gokams.or.kr/webzine/wNew/column/column_view.asp?idx=2583&page=3&c_idx=85&searchString=&c_idx_2=
 - 예술경영웹진 485호, 22.9.29., ‘2022 KAMA 컨퍼런스_아트컬렉팅과 비즈니스 <미술시장의 현재와 미래>’, https://www.gokams.or.kr/webzine/wNew/column/column_view.asp?idx=2582&page=3&c_idx=85&searchString=&c_idx_2=
 - 예술경영웹진 488호, 22.12.22. ‘2022 한국 미술시장 결산’, https://www.gokams.or.kr/webzine/wNew/column/column_view.asp?idx=2601&page=2&c_idx=85&searchString=&c_idx_2=
 - 울산매일utv, ‘올해의 작가 개인전’ 20년간 발자취 되짚다’, <https://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3330>
 - 이데이뉴스, ‘oh! 友 도화현’, <http://edaynews.com/detail.php?number=19662>
 - 인천일보, ‘2022 경기시각예술 성과발표전 생생화화:生生化化-사이의 언어’, 22.11.27.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1559>

- 융합예술플랫폼 언폴드엑스 공식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p/Ck2kNNmSsNx/?igshid=MmJiY2l4NDBkZg==>
- 작가미술시장 공식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p/CkzubtQtEd4/?igshid=MmJiY2l4NDBkZg==>
- 중부매일, '쉐마미술관서 토요일에 만나는 '예술 산책' 기사 중 사진 발췌(<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91836/>)
- 충남문화관광재단 뉴스레터 https://www.cacf.or.kr/_kor/developer/m_mailing_de/m_board.php?m_mode=view&pds_no=2023070710282147001&PageNo=1/
- 충남문화관광재단 뉴스레터 https://www.cacf.or.kr/_kor/developer/m_mailing_de/m_board.php?m_mode=view&pds_no=2023070710273889346&PageNo=1/
- CNB뉴스, '울산문화예술회관, 올해의 작가 (5~6월) '유재희 전(展)' 기사 중 사진 발췌(<https://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489369/>)
- LG 디스플레이 뉴스레터 <구겐하임의 '예술', LG의 '기술' 만나 이전에 없던 '창의적 경험' 만든다> 2022.6.2. <https://news.lgdisplay.com/2022/06/구겐하임의-예술-lg-기술-만나-이전에-없던/>

부록

표적집단면접조사 주요 내용

[2023 부산 시각예술 활성화를 위한 기초 연구 1차 FGI 회의록]	
날짜	2023. 06. 02.(금) 14:00~16:00(120분)
장소	부산문화재단 3층 배움방1
참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진 및 부산문화재단: 원향미, 조영미, 고나령, 김정희, 김연진 - FGI 참여자: 탁경아(판화, 커뮤니티 아트센터 숲 대표), 김후분(서예, 부산미술협회 서예분과 회장), 심점환(평면, 작가), 양은진(미술, 부산시립미술관 학예사)
주요 논의 내용	<p>○ 본인소개 및 활동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은 판화, 부산을 위주로 활동, 작업 문화예술 교육과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음. 아트페어전시 기획에 참여해 딜러 역할 10년 정도 참여해왔음. - 작가활동경력 37년. 서예학원 운영,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작품 발표해왔음. 지원금 2 번 정도 받음. 단체로 활동하며 지원금 받은 적 있음. 조선통신사에 참여한 적 있음. - 집단 창작촌 6년 레지던시 운영, 프로그램 심사 다수 참여, 그룹전 및 기획전 등 참여 경험 - 부산시립미술관에서 6년째 근무 중임. 주로 국제교류 활동과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해왔음. 최근에 무라카미다카시전을 추진하며 메인 작가전시를 진행했음 <p>○ 창작환경(지원금, 지원제도, 창작공간 등) [지원금 및 지원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해준 경험이 있음. 홍티아트센터에서 국제레지던시를 담당해 지원사업을 진행. 작가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지원금이라고 했음. 전시 기획 시 신작을 요청하면 힘든 부분이 지원금이라고 했음. 지원금에 따라서 역량을 발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작가지원금 지원이 가장 좋다고 함. 작가들이 금전적인 부분에 신경 쓰지 않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많이 주는 것이 좋다고 함. - 부산문화재단 사업 중 해외교류사업(재단과 스코틀랜드)의 활동지원금이 6백~7백만원이었는데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듦. 이동비용, 체류비용 등을 감안하면 사비를 들여야 하는 상황임. -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며 어떤 강점이 있는지 의문이 생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예술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음. - 코로나 지원금, 중앙지원 등 지원제도는 어떤 기관이든 다 비슷함. 창작지원금 신청한 적 있으며 심사도 많이 했음. 아쉬운 점은 지원금을 다수에게 많이 주다보니 정작 필요한 단체가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하거나 해서 서로 다 부족할 수 있음 - 교사, 교수출신도 지원이 됨. 신생 대안공간, 독립단체는 활동지원이 미미. 창작결과물이 10년 전과 같거나 실상 지원금 안 받아도 여유 있는 단체도 있음. - 지원금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지원금 배분의 문제임. 제대로 지원하되 혜택 받는 단체를 줄이면 됨. - 지원금이 배분되는 것을 보면서 불만이 나옴. 40년 된 단체는 계속 지원을 받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다른 단체는 지원금을 받지 못함. 매년 똑같은 그룹전을 개최하고 같은 단체가 지원을 받으면 작품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음. - 전시경력이 없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음. 일반작가가 그룹, 단체전에 나오면 1인당 3~5점 정도 출품하는데 퀄리티가 낮을 수밖에 없음. 단체들이 외국교류전을 하면 지원금을 주는데 정통작가가 아닌데도 지원하는 것은 문제임. - 개인전 할 때 3백을 받았는데 책을 만들 수 있는 돈도 안 됨. 인원이 많다고 지원금을 많이 준다는 것은 문제. 그런 지원제도는 고민해 봐야 함. - 신생 예술단체들이 진입하기 위한 경로를 마련하고, 장애예술인 활동지원을 위한 제도가 필요함. 필

	<p>요한 단체와 예술인에게 혜택이 가는 구조가 되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자체의 정밀성이 필요. - 심사기준 등 제도에 대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함. 주최 측, 심사위원 쪽에서도 신청한 단체를 잘 알아야 하는데 심사위원들이 지원 단체나 개인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작성된 서류만을 보고 심사해서 작품 퀄리티 보장이 안 됨. - 지원금이 생기고 난 이래로 금액 차이는 있지만 제도의 차이가 없음. 그렇기에 중복지원도 많음. 누락되지 않으면 거의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원금을 목적으로 창작을 하면 예술인들이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음. 심의제도 개선이 필요함. <p>[창작공간 및 레지던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작공간이라도 시설,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함. 페인팅 작가는 캔버스나 틀 등 작업의 크기에 따라 공간의 한계가 있고, 가공이나 판화를 제작할 때에는 기계와 장비가 다 갖춰져야 작품을 완성할 수 있음. 서울 가나아트센터는 판화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해외 작가가 참여하고 퀄리티도 높으며 판매시스템도 있음. - 부산시립미술관에서도 외국에서 작품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 재료나 안 쓰는 공간을 제공했던 적 있음. 그 정도는 가능하지만 기계가 필요한 곳은 제공이 안 됨. 부산은 환경적으로 안 되어 있어 아쉬움. 이런 공간이 부산에 있었으면 좋겠음. 공간만 주어졌지 실제 작업할 수 있는,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음. - 레지던시는 커뮤니티 형성에 가장 많이 도움 된다고 생각. 부산 지역 작가들이 그런 레지던시를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 판화전공자의 힘든 점은 작업공간을 옮기는 것임. 큰 기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작가들이 작업실 옮기는 것을 두려워함. 작업 기계를 옮기는 비용도 만만치 않음. 그래서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개인 작업실을 둬. - 레지던시에 참여해서 기획자와 작가들 간의 교류가 형성되면 좋는데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레지던시가 없음. - 판화 외에도 큰 장비를 필요로 하는 작품이 많은데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면 좋겠음. - 서예는 주로 개인 작업실을 이용. 공동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면 서예가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주로 개인적으로 집이나 학원에서 작업을 많이 하고 공동작업은 학원에서 함. 전업작가는 소수이며 생활을 위해 활동을 병행함. - 요즘 레지던시 운영 방식은 1년에서 3년까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작업하기 애매하다는 생각이 듦. 레지던시를 이용하는 작가들은 입주기간 동안 작품을 완성하기엔 시간이 너무 짧음. - 레지던시의 장점은 작가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함. 작업 공간이 없어서 라기 보다는 교류 활동을 하기 위해서 레지던시를 이용한다고 생각함. 작가들에게 더 좋은 디렉팅을 해줄 수 있는 기획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프랑스에서는 기본사항을 지원하되 작가가 일정 이상을 원하면 돈을 내라고 함. 시설이 다 갖춰져 있지 않지만 작가는 권위를 부여받게 되는 과정으로 지원 받음. - 대안공간에는 작가 맞춤형 레지던시가 있는데 기본 프로그램에 작가가 맞추는 게 아니라 입주작가에 맞는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 - 레지던시의 개념이 바뀌고 있음. 작업공간이 없어서 레지던시 간다는 것은 옛말. 작가들은 레지던시에 참여해 아티스트끼리 교류, 디렉터를 통해 교류하고 싶어서 참여함. - 레지던시 프로그램에서 작가에게 과도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되는데 지역주민 교류, 오픈 스튜디오 등을 요구하는 실정임. 이는 작가에게 피곤한 일이며 그런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하면 작가들이 작품 활동할 시간이 없으며 오히려 개인 작업실이 낫다는 생각을 함.
--	---

- 레지던시 가는 목적은 크리에이팅. 레지던시 심사를 하게 되면 지역주민과 뭘 공유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작가에게는 그런 질문하면 안 됨.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필요는 하지만 작가를 피곤하게 함.
- 국제전을 맡아서 유명 작가 전시를 한 적이 있음. 그런 작가를 원하는 것은 시대가 원함. 그 배후에는 그 작가를 받쳐주는 기획자가 있음. 유명한 작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작업의 성향보다는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스킬 등이 한 요소로서 작용함. 집요함이 작가를 성공하게 함.


○ 유통과 확산

[아트페어]

- 유통과 판매에 대한 제도들도 세분화되고 다양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최근에 아트페어가 많이 나와 일반인의 구매력이 늘어나고 본인이 직접 찾아서 작품 구매함. 하지만 유명 작가에게만 집중이 되어 있음.
- 일반 대중들이 발맞춰갈 수 있는 지원제도도 필요. 대중들이 작품을 스스로 선별할 수 있는 교육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음.
- 아트페어는 국내에서 2번 참여한 경험이 있음. 작가가 전시하고 싶은 작품과 화랑주가 전시하고자 하는 작품이 다름. 그렇게 되면 작가의 정체성을 잃을 수 있음.
- 대만에서는 작가들이 지원을 받아 직접 아트페어를 개최했는데 작가들이 원하는 작품을 전시할 수 있었음.
- 아트페어에서 작가가 생각하는 타깃층은 디렉터, 비평가의 눈에 띄는 게 중요. 하지만 화랑에서의 타깃층은 고객이고 작품 구입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어 차이가 남.
- 아트페어가 많이 들어서고 부산 지역 작가들이 아트페어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만 기회가 잘 없음.
- 아트페어에 대중 작품 구매력이 늘어났지만 한 작가에 집중되어 있고 부산미협에도 많은 작가들이 있지만 작품이 잘 팔리지 않는 실정임.
- 서예작가들은 아트페어에 초대받기가 어려움. 전주는 서예작품이 안 걸리는 경우가 별로 없고 서예 전시에 매년 20억씩 국가지원을 받고 있음. 서예 작가들은 작품을 팔고 안 팔고 문제가 아니고, 아트페어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음.
- 아트페어에 참여하고 싶지만 못하는 경우가 많음. 화랑마다 성향이 다르지만 작품 성향 또는 대중성을 따지는데 대중을 따지는 경우가 많음.
- 이탈리아, 프랑스는 화랑의 정체성을 중요하게 생각. 우리나라 화랑은 화랑의 정체성보다는 시장 같은 느낌. 작품이 좀 팔리는 작가들을 중심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음.
- 작가 입장에서는 화랑의 정체성이 중요하고, 그 정체성에 따라 작가가 관심 갖고 참여하도록 함. 어중간한 작가는 설자리가 없음.
- 아트페어에 작가가 직접 나와서 홍보, 작품 설명 등을 하라고 하면 작가가 피곤함. 메이저 화랑에서는 작가 자존심 때문에 작가를 등장시키지 않음. 컬렉터들로 인해서 상처받은 작가들도 있음.
- 2016년에 국가지원금을 받아 아트페어를 열었음. 작가에게 부스를 하나씩 줌. 거기에 참여하는 곳은 대안공간 등임.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대신 부스비가 없거나 저렴하게 줌. 5박 6일 했는데 판매 실적은 저조하나 작가 활동은 좋았음. 대안공간 아트페어 참여해서 작품을 다 팔았음. 작품은 작가가 정해서 판매했음.

[유통]

- 작품의 유통 확산을 위해 작가는 고생할 각오를 해야 함.
- 작가들에게 아트페어에 의지하지 말라고 함. 신진작가들에게 국·공립 미술관에 작품을 공모하는 방법도 있음을 이야기함.
- 협회는 단체 회원이 아니면 안내, 홍보도 못함. 미술협회 단체에 기대지 말고 공개 공모 같은 곳에

	<p>참여하라고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전 할 때도 직접 적극적으로 작품 홍보를 해야 함. 컬렉터를 직접 만나고 작가가 화랑에 직접 찾아가는 적극성이 있어야 함. 작가들에게도 문제가 있음. - 미술시장 유통 및 확산을 위해 매개에 집중해야 함. 레지던시 등 제도의 세분화도 필요. - 매개자 역할로서 일반 대중들이 발맞춰갈 수 있는 지원 필요. - 가방 사듯이 작품 구매도 일상화되어야 함. 일반인들이 어떤 작품을 사면 재테크가 될까요 하고 묻는 경우가 있음. 컬렉터들도 자신의 선호도, 원하는 작가, 일반 대중에게도 자신의 취향을 알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함. - 좋은 작가는 좋은 기획자와 함께 크는 것 같음. <p>○ 기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들이 예술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창작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도 각오해야 한다고 생각함. - 젊은 예술인들은 기획 경험이 많이 없음. 광주는 젊은 기획자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부산은 없다는 생각이 듦. 젊은 기획자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가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음. - 전국에 미술관이 생기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이 부족. 사람들이 큐레이터 분야를 공부하지만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는 게 현실이며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음. - 부산 지역 평론가들이 작품을 보고 좋은 글을 써주면 시각이 더 넓어지고, 작가들도 계속 활동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듦. - 부산시립미술관에 거는 기대가 많은 것은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음. 큐레이터로서 지역 미술가를 발굴 지원하고 싶으나 젊은 작가들이 부족. 젊은 작가들이 생활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것 같음. - 비엔날레 등 전시 행사를 개최할 때 주최 측에서는 세계적인 행사로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에 지역 작가들에게 기회가 많이 없다는 생각이 듦.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위해서는 지역 작가 참여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지역 작가 특별전처럼 지역 작가들을 위한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을 것 같음. - 세계적인 행사를 할 때는 세계적인 작가가 들어와서 지역에 있는 작가들도 섞여야 한다고 생각. - 예술 안에서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작가들이 지원받기 원하는 요구사항을 잘 반영해 기획자, 작가 등 분야를 나눠서 지원의 폭을 세분화 시키면 좋을 것 같음.
<p>현장사진</p>	

[2023 부산 시각예술 활성화를 위한 기초 연구 3차 FGI 회의록]	
날짜	2023. 06. 09. (금) 10:00~12:00(120분)
장소	부산문화재단 3층 나눔방
참가자	- 연구진 및 부산문화재단: 원향미, 조영미, 고나령, 김정희, 송수경, 김연진 - FGI 참여자: 이인우(사진, 전업작가), 문진우(사진, 전업작가), 김이석(영상, 동의대학교 영화학과 교수), 문창현(영상, 오지필름 대표), 장희철(영상, 부산외대 영상콘텐츠융합학과 교수)
주요 논의 내용	<p>○ 활동현황(장르, 활동기간, 활동지역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겨울에 예정되어 있는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음. 혐오와 차별에 대한 저항이 주제임. 평소에 공연 사진 찍는 일을 주로 하고 있으며 예술 공연 현장을 기록하고 있음 - 학교 강의, 시간강사를 했는데, 과가 통폐합되어서 수업은 진행하지 않고 개인 작업을 하고 있음. 개인전과 그룹전에 가끔 참여했으며 기획전에도 꾸준히 초대받아서 참여하고 있고, 행사 사진도 기록함. 신문 원고 연재 등 다양한 일을 진행. 주로 변해가는 부산에 대해 기록하는데 지금 20년 동안 작업하고 있는 게 낙동강 촬영임. - 학교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님.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주로 글을 씀. 평론을 많이 쓰고 최근에는 번역을 많이 했음. 요즘에는 부산에 좀 더 다양한 영화들이 상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영화들이 상영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음. - 2011년부터 오지 필름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창작 공동체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고 있음. 부산에서 활동. 부산, 경남과 경북까지 아우르는 지역의 얘기를 많이 해왔음. 제작한 작품 중에 개봉한 것은 절반 정도. 경제적 여건으로 극장에 개봉할 수가 없고 지원받지 않으면 어려움. 지금은 장편 다큐 작업을 두 개 하고 있으며 경북과 구미, 부산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작품을 제작 중임. 오지 필름을 13년 정도 꾸려왔고 대외적인 활동은 거의 안 했음. 오지 필름은 4명에서 활동 중임. 지금은 다행히도 작업을 하고 있어서 적은 돈이지만 여러 군데에서 지원을 받아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됐고 7~8개월은 먹고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 활동 장르는 극영화. 시나리오를 썼음. 2001년부터 영화 일을 시작했고 2004년도에 부산으로 내려와서 부산지역 예술가들과 2007년부터 영화를 제작. 2편의 장편영화, 단편은 10편 제작했음. 지금은 3년차 교수임. 최근에는 학교에서 학생들과 단편영화도 제작하고 있고, 망미동에 시네포크 사람들과 같이 영화를 상영하고 소통의 방식을 확장시키는 커뮤니티 시네마를 진행하고 있음. <p>○ 창작환경(지원금, 지원제도, 창작공간 등)</p> <p>[지원금 및 지원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이 많은 도움이 됨. 지원금도 받았고 자문위원으로 참여했음. 사전지원도 있지만 전시 후 결과물을 보고 사후지원에 대한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심의위원회에 참여했을 때, 사진 작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진 파트 지원을 좀 더 다양하게 넓혔으면 좋겠음. - 중견의 경우 지원금 신청 후 탈락에 대한 걱정을 함. 그런 사람들에게 별도의 중견지원이 필요. - 단계별로 나눠서, 중견 이상 작가들이 오랫동안 창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도 도전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듦. - 전체 지원금 중에서 전시지원 명목으로 도록 제작이 책정되는데 사진집 발간도 결과물이기에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에 들어가 보면 사진의 지원 금액이 점점 주는 경우가 많음. 사진과 영상은 다른 장르보다 지원이 적고 지원금이 갈수록 적어서 전체 총액 중 장르예산 배분을 잘하면 좋겠음. - 사진집을 소설집이랑 똑같이 보는데, 재질 등 규모의 차이가 많이 나고 현재 지원금으로는 어려워 지원규모가 다르게 책정되어야 함. - 시각 쪽에는 지원방법이 성장주기별 지원(중견작가 지원 포함), 출판 지원, 기존에 있는 개인 창작공간 지원(임대료 등)이 있으면 좋겠음. - 영상분야 지원금은 영상위원회에서 많이 받았고 장편으로 받은 경험이 있는데 만족도가 높았음. 영상위에서 제작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사용처는 캐스팅, 스태프, 촬영 진행비 등임. - 영상분야(영화)는 영상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작품 제작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음. - 영화 같은 경우는 사전제작, 영화촬영, 후반작업 제작 지원이 따로 있으며 몇 단계의 제작지원을 통과해야 하는 시스템이 있고 배급지원도 따로 있음. 부산 안에서 각 단계별 제작지원이 많지 않아 후반작업 시설, 인력 부문이 열악. 사람이 많이 없음. - 시나리오에 개인적인 창작공간이 필요하지만 촬영을 위한 또 다른 준비를 위한 공간이 필요. - 시각예술 심의를 왔을 때 제작과정, 제작방식에 대한 방식이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지원혜택의 다변화가 필요. - 영상위 지원과 문화재단의 부문은 영화하는 입장에서는 아쉬움. - 영상위에서 지역영화를 예술로 인지하지 않음. 그래서 상업적 수치나 관광사업으로서의 역할, 지원방향, 작품성격도 바뀌게 됨. - 재단에서 영화를 지원하는 건 이례적인 것 같음. 4백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지만 단편영화를 만들기 어려움. - 영화를 예술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창작자들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부산문화재단이 유일. 타 기관들은 영화를 지나치게 상업적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창작자들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음. - 영화에 대한 평가도 극장에서 흥행이 얼마나 됐는지에 대한 평가분임. 이러한 상황에서 영화를 예술로 인정하고, 창작자들을 인정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음. - 다른 분야는 중견 작가들이 사업에 계속 지원을 해서 성과물들이 높은 수준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화는 신입들이 지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영화들의 제작비 규모가 올라가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임. - 독립영화를 지원하는 것은 개인 지원이 아니라 작품으로 봐야 하고 지원금도 단편, 중편, 장편으로 그에 맞춰서 증액해야 함. - 창작의 세분화된 과정, 적절한 시기에 맞는 지원이 필요. 재단의 창작준비금 지원받았는데 프리프로덕션의 개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음. - 전시와 상영지원을 묶어서 지원하면 좋겠음. 4백만원도 좋은데 영화관 빌릴 수 있음.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지원영역을 넓혀줬으면 좋겠음. 순수예술 영역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됨. - 재단에서 영화를 기초예술로 볼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많음. 재단과 부산영상위의 다른 지점인데 재단하고 영상위에서 논의해서 정리해 주면 좋겠음. - 부산영상위와 부산문화재단에서 동시에 선정이 된 적이 있었음. 동시에 받았지만 재단 지원을 포기하고 하나만 지원받았던 적이 있음. - 한국연구재단은 신진을 비롯한 중견, 우수 작가 지원도 있음. 장기간에 걸쳐서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게 해줌. 창작자들이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을 것 같음. <p>[창작공간 및 레지던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갤러리 부재가 안타까움.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시각예술 파트의 작품 보관공간이 있어야 함.
--	---

- 창작공간을 만들 때 큰 사진이나 조형이 들어갈 수 있고, 부차적으로 있어야 것이 갤러리, 보관공간이 필요. 공간이 필요한 작가들이 많은데 지원제도에 그런 것도 필요.
- 레지던시는 일정 기간에는 무료지만 기간이 지나면 나와야 하는 부담이 있음.
- 부산 창작공간은 또따또까가 3년 정도로 제일 긴 기간으로 알고 있음. 베이징에는 예술가 거리에 예술가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데 5~10년 정도 장기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음. 해외는 긴 기간 동안 창작공간을 이용할 수 있음.
- 2011년에는 사람들과 월세를 내면서 작업을 했고 그때는 스스로가 예술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 그러다가 지원제도에 영화를 포함시켜주는 것을 알게 됐음. 감만창의문화촌과 또따또까에서 안정적으로 창작할 수 있었는데 창작할 때는 좋았지만, 영화 분야 제작자를 만나 소통하기가 어려웠음
- 창작공간이 3년이라는 제한으로 인해서 불편.
- 또따또까 1기 하면서 불편했던 게 시민들 대상으로 결과를 내야 되고, 의무적인 과업이 있어서 힘들었음.
- 밖으로 나가서 촬영해야 하는데 입주기간이 의무적이라 부담되었음.
- 지역 주민과 행사나 활동을 꼭 해야 한다는 것은 거절하기 힘들고 부담.

○ 유통과 확산

[아트페어]

- 사진 분야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공간에서 많이 팔림.
- 사진도 판화와 비슷한 복제예술이며 요즘 인기 있는 사진은 스트레이트 사진보다 컴퓨터로 세팅해 보정된 사진들이 더 인기가 많음.
- 부산에서 아트페어를 하는데 사진 분야는 드물. 사진이 간간히 나오나 유명한 사람들 중심이며 안 팔리니깐 주류에 없음.
- 미술 쪽은 사진, 회화성이 짙은 사진. 아트 쪽이 많음.
- 어딘가 소속돼서 활동하는 작가도 별로 없고, 너무 치열하고 상황이 안 좋아서 오프라인 상에서는 유통이라는 게 버거움. 대부분의 판매는 지인을 통해서 이뤄짐.

[유통]

- 다큐는 별로 안 팔림. 보통 사진은 아트페어 또는 박물관에 소장할 경우 작가가 비용을 받고 넘김. 치열하고 힘들.
- 유통의 장이 마련될 수 있는 환경이 필요. 기획자의 플랫폼을 만들어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작가 개인의 노력이 필요. 온라인도 극히 일부. 부산에서 국제사진대전이 있는데 사비 털어서 했다가 사비 지원을 받고 있음.
- 부산문화회관 대관료 비쌌. 일반 갤러리도 비쌌. 공간지원이 필요.
- 지인을 통해 판매하며 팔리는 건 10%정도 되는데 대부분 거의 팔지 못함.
- 스크린 수가 적음. 배급사를 잡아서 하는 경우가 소수이며 배급 과정 자체를 직접하기도 함. 개인적으로 기획부터 배급까지 길게 5년 정도 걸림. 문제는 정산에 대한 부분들이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인데 배급사에서 제공받는 자료를 활용.
- 부산에 한군데 있고, 수도권에는 큰 규모의 배급사가 아니라 독립영화나 예술영화를 전문으로 하는, 다큐에 특화된 배급사들이 존재하고, 보통 부산에서 만들어진 작품들이 수도권에 있는 배급사를 통해 개봉하는 경우가 많음. 각 지방 독립예술전문관 같은 곳에 상영이 되는 형태임.
- 멀티플렉스 개봉이 이뤄지지 않고. 독립예술영화 전용관, 산발적으로 상영됨.
- 영화제를 통해서 영화관계자들에게 선을 보이기도 함. 단편영화는 OTT를 활용하는데 부산의 작품은 본적이 없음.

- 아트페어 같은 곳에서 작품을 판매하면 수입의 5% 밖에 가져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대부분 지인 판매로 이뤄지고 개인 SNS에 홍보해 알리기도 함.
- 부산에 작품을 제대로 판매할 수 있는 대형 숍이 있으면 좋겠음. 작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과 그것을 관리하는 전문가가 있었으면 좋겠음.
- 어떤 작가는 메타버스 관련한 작업을 많이 함. 3D 작품을 촬영함. 새로운 매체에 대한 고민이 있음.
- 공동장비센터 이런 것들은 학교마다 구축을 하고 있는데, 영화 쪽은 사례가 거의 없었음.
- 카메라 등 장비 보다는 후반 작업 쪽에 잘 갖춰놓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수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함.
-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쓰는 게 쉽지 않겠지만, 재단하고 공동 사업으로 진행하면 창작자들도 편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함.
- 공동장비 센터 활용은 예전에 있었으나 지나치게 고가장비 들여와서 안 빌려주는 경우가 있었음. 후반 작업쪽은 잘 갖춰놓고 있으면 좋겠음.
- 장비는 수명이 있고 학교 자체 장비를 외부에 빌려주기 힘들어 함.
- 대학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쓰라고 하면 쉽지는 않지만, 재단과 학교에서 공동협의해서 하면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음.


○ 기타

- 재단과 학교의 연계가 많지 않은 것 같음. 예술학과와의 공동사업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음. 예술학과의 폐과 1순위정도임을 감안하면 활동하는 작가 지원도 있지만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도록 연계가 필요.
- 직업군이 형성되지 않은 것도 있음. 영화분야는 제작뿐 아니라 배급까지 신경 써야 되는데 지역의 작은 영화제가 있는 것은 그런 인력이 필요(상영활동 등)한 것임. 부산재단에서 서포트할 수 있을까 고민.
- 기획자의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가 많음. 그와 관련된 인력 양성에 대한 생각이 많으나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함.
- 영화의 전당 관을 일주일 정도 빌려서 단편 영화 상영전을 하거나 창작단계 뿐 아니라 그 후 지원이 있으면 좋겠음.
- 영화가 재단의 지원사업, 정체성이 모호해서 지원이 애매함. 큰 사업의 형태나 지원 형태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음. 시각예술 안에 영화를 한 분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음. 부산의 예술영화를 위한 지원이 있으면 좋겠음.
- 갤러리 화랑에서 하는 고급갤러리, 소규모 갤러리 또는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갤러리를 보면 도슨트를 구하기 어려움. 민주공원에서 어르신 도슨트를 두고 있어 도움이 된 적 있음. 시각예술 갤러리들에게 도슨트 지원을 통해 노인 일자리와 연결하는 것 같았음.



[2023 부산 시각예술 활성화를 위한 기초 연구 4차 FGI 회의록]	
날짜	2023. 06. 13. (화) 10:00~12:00(120분)
장소	부산문화재단 3층 배움방1
참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진 및 부산문화재단: 원향미, 조영미, 고나령, 김정희, 김정희 - FGI 참여자: 김혜경(실험실C), 성백(복합문화공간 머지), 정선미(춘자아트갤러리 대표), 최승현(독립기획자), 최상호(부산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주요 논의 내용	<p>○ 활동현황(장르, 활동기간, 활동지역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에서 지역리서치를 기반으로 예술 활동하고 있음. 전문가와 지역작가들과 함께 전시를 하고 있고, 2019년부터 마을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음. - 복합문화예술공간 머지라는 공간을 운영하며 실험적인 작업을 함. 서구 꽃마을 아트공간 및 마을단위 축제를 진행해옴. 2017년 작가들이 더 좋은 곳, 세련된 곳에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진행. 전시 작가로 비전공자도 있고, 무용과 음악을 하는 분들이 있어 협업 위주의 퍼포먼스 활동을 하고 있음. - 민락동 광안리 쪽에서 춘자아트갤러리라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음. 그 공간에서 자체 기획전시와 대관전시를 진행했고, 개인 작업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음. 최근 기획전시는 안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그 공간에서 전시는 안 하고, 개인공간으로만 사용 중임. 보편적인 작가군, 포괄적으로 하는 분들과 작업하고 싶어 공간을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음. - 부산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음. 고양 에이전시 창작 공간 중에 참여한 경험이 있음. <p>○ 창작환경(지원금, 지원제도, 창작공간 등)</p> <p>[지원금 및 지원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작자는 네트워킹이 중요한데, 코로나로 국제사업을 못해 아쉬움. - 지역작가 6~7명과 유럽에서 베를린까지 두 달 동안 창작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했는데, 이 사업의 일부 금액을 부산문화재단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음. - 어린 작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어 지원금을 받았음. 지금은 그런 청년 창작지원 공모가 잘 없는 것 같아 아쉬움. - 지원제도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게 너무 복잡함. - 우리나라 지원제도에 회의감을 느껴 지원하지 않음. 지원제도가 갖고 있는 심의 시스템에 동의 못함. 기관이 가진 변별력 부족, 중앙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문화의 흐름, 서울에서의 심사방식이 지방으로 내려옴. 미술작가가 미술작가를 심의하는 경우가 많아서 관계성에서 판단하는 상황이 발생. 이로 인한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움. - 젊은 작가들은 지원금을 통해 방향성을 따라가게 됨.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없음. - 기관들은 민원이 많고 복잡한 걸 싫어해 금액은 적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지원을 함. 예술지원 보다는 복지제도로 오해를 줌. - 작가들의 프로그램을 받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가야 함. 한국에서 말하는 예술인 인증제도는 헛수를 따져 예술활동을 증명함. 해외에서는 예술계 내에서 예술가로 활동하는지 면밀하게 체크. 한국 지원 제도의 심의가 세분화돼야 함. - 재단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음. 재단의 심사는 창의력, 지역사회관계 등을 평가함. 보고서를 보면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이 없음. <p>[창작공간 및 레지던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에 레지던시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축소된 것 같아 아쉬움, 공간을 지원하는 재단도, 신청하는

	<p>예술인들도 레지던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나 단체는 사업 진행에 있어 힘든 부분이 공간이라는 생각이 듦. 실험적인 작업을 하고 싶는데 공간이 없음. - 한 단체에 소속돼 있는데, 공간을 만들지 않고 운영하고 있음. 공간 지속에 대한 부담감이 있음. 지원을 받아도 계속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공간 운영이 어려움. - 공간에 대한 지원이 있어도 서류가 복잡함. - 보통 미술관은 작가 제공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함. 서울에서 작가 내려 오면 작업을 들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제공하는 곳이 많지 않음. 부산 내에 그런 활용공간이 있으면 좋을 것. - 과도하게 작가 성장시키고 작가를 만들겠다는 욕심을 버려야 함. 작가 역량강화를 위한 초점, 원가를 시켜 줘야 하고 돈을 주니 활용을 해야 한다는 목적이 있으니까 작가들이 자신들의 작업 활동에 집중할 수 없음. - 영국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작가들이 작업실을 구할 때 월세를 일부 지원해 줌. 하지만, 한국처럼 조건이 까다롭지 않음. 예술활동만 계속하고 있다는 걸 증빙하면 다른 의무적인 조건은 없음. 이처럼 작가들이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창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함. - 작가들은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원함. 프로그램 안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걸 안 좋아함. - 한국에서 레지던시가 우후죽순 생기기도 하고, 기관에서도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음. - 민간에서 진행했을 때 괜찮았던 레지던시를 재단이나 구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간은 작가들이 불만이 많음. 작업 활동에 구애가 많고 제한적임. - 단기 프로그램과 작업실을 구분해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 공공기관은 지원금으로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작가 작업은 한정된 기간에 나오는게 어려움. - 레지던시가 좋은 조건이 있어도 본인 공간을 가지려고 노력했을 것. 환경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내 개인공간을 지켜 나가는 게 더 중요. - 한국처럼 많은 레지던시 공간은 필요 없을 것 같음. <p>○ 유통과 확산</p> <p>[아트페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설치작업(도자기, 금속)을 했던 작가분인데 구매 가능한 사이즈로 만들어 나갔는데, 실제로 팔 리기도 했음. 공간이 자생력을 가지려고 하면 판매역할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함. - 큰 행사를 개최해서 컬렉터를 모시고, 대관료 대신 작품을 받기도 함. 표면적으로 돈을 받는 대신 작품을 받음. 작가들이 작품이 팔리는 경험, 판매, 구매했다는 자신감을 가질 것 같음. - 아트페어 설치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소품으로 만들었을 때 좋아했음. 자기 작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걸 기뻐함. - 미술관에서는 전시회에 되도록 1~2명 부산작가를 초대하려고 함. 기준은 따로 없고, 부산지역 미 술관으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러나 부산작가에 대한 기준이 어려움. - 아트페어에 자주 등장하고, 작품을 출품해서 판매로 이어지는 작가층과 순수미술계에서 창작활동 을 하고 있는 작가층이 다른 것 같음. 순수 창작을 하는 작가들은 작업 활동 자체에 의미를 두기 때문에 아트페어에 참여하는 걸 잘 보지 못함. - 설치작가는 일반인에게 판매되기 어려움. <p>[유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들이 작품이 팔리는 경험, 판매, 구매했다는 자신감을 가질 것 같음. 자체적으로 네이버 스토어 만들어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적이 있음. 기존 플랫폼을 활용함. 지인 찬스가 아니라 공 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금액 확인, 판매, 구매 가능하도록 했고, 예술위에서 온라인 미디어콘텐츠사 업에 선정 되어 사람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했음. 그리고 구매까지 이어지도록 함. -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과거에는 작품 소장이 안 된다는 개념이 변화되고 있음. 퍼포먼스 작가들은
--	---

	<p>보여주고나면 끝나는데, 영상이나 사진으로 기록해 작품성을 높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퍼포먼스 작가의 작품을 온라인에서 사진으로 볼 수 있도록 했음. 설치, 퍼포먼스, 실용음악 쪽인데 NFT 마켓에 올려 비트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음. 하지만, 시기가 많아 사장되는 경우가 있거나 축소됨. 하지만, 작가들은 자기 작품을 다른 형식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만족을 느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좋아함. - 공식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판매함. 작품은 포장해서 보관해 놓고 있다가 전시가 없으면 공간에 걸어놓음 - 설치작가는 일반인에게 판매되기 어려움. 유통을 염두에 두고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음. 미술은행이 작품을 소장할 때와 미술관이 작품을 소장할 때 구매기준이 다름. 미술은행의 작품은 운반, 보관, 대중들의 이해가 쉬워야 하고 다음에 설치했을 때 문제가 없을 경우 구입하지만 미술관은 작품성에 의존해서 구매하는 것 같음. - 작가들 대부분 비영리로 운영함. 소위 상업미술의 시장과 비영리의 창작활동과 거리가 있음. 내가 아는 창작자들은 유통이 가능하지 않음. - 확산은 가능하지만 유통은 어려움. - 작가들도 홍보에 신경 쓰는 게 중요함. 블로그,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 많은 매체를 활용해야 함. - 작가들의 작업 활동이 다양한 만큼 결과물과 가치도 다양하기 때문에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 활동을 공공기관에 케어까지 바라는 것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것임. 공공기관에서 유통까지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음. <p>○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 지역 작가의 기준이 명확해야 할 것 같음. 우선 부산예술인의 기준이 모호함. 부산에서 태어나서 계속 활동하는 사람이 부산 작가인지, 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에서 활동하는 작가를 부산지역 예술인으로 봐야하는지 어려움. 그 기준이 더 명확해지면 부산지역 예술인들에게 지원을 더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음. - 작가들에게는 작품이 판매되어서 다음 작품을 작업하는 걸로 이어지는 것은 좋은 일임. 그런 작품을 위한 창작지원은 꼭 필요함. - 부산문화재단에서 하는 지원사업은 작가들의 자생력을 떨어트리고 있다고 생각함. - 지원금을 못 받아서 창작활동을 못 했다는 작가들은 이해가지 않음. - 기획자, 매개자 등 창작자 외에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음. 양성이 필요함. 관련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해 보임. -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한 건물에 있는 공간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음. 여러 장르가 함께 교류하고, 프로젝트를 하는 공간을 원함. - 레지던시 공간이 가지는 개성이 있으면, 그 안에서 이뤄지는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지게 해야 함. - 부산에서는 활동하기가 어려움. 과도한 지역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함. 부산지역 기획전 같은 경우도 꼭 부산지역작가를 넣어야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음. 부산이 지역성이 강하다보니 그런 것 같음. - 작품이 유통, 판매로 이어지는 게 아쉽다. 역사적으로 볼 때 유통이 되는 것은 멀리 퍼진다는 것인데 판매라기보다는 가치 있는 작품들이 많이 발굴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p>현장사진</p>	

[2023 부산 시각예술 활성화를 위한 기초 연구 5차 FGI 회의록]	
날짜	2023. 06. 15.(목) 10:00~12:00(120분)
장소	부산문화재단 3층 배움방1
참가자	- 연구진 및 부산문화재단: 원향미, 조영미, 고나령, 김정희, 김연진 - FGI 참여자: 엄정원(전업작가), 정안용(전업작가), 이창운(전업작가), 임봉호(전업작가)
주요 논의 내용	<p>○ 활동현황(장르, 활동기간, 활동지역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부터 전시를 시작했고, 2013년 첫 개인전을 하면서 14회 정도 열었고, 14~15년 정도 작품 활동을 함. 첫 개인전은 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됨. 2013년 글을 쓰고 5백만 원 지원을 받았고,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의 작품을 다 만들 수 있었음. 현재도 재단 공모나 프로모션에 관심 많음. 예술이 개인전뿐 아니라 다른 기업이나 다른 나라에 대한 교류를 통해 성장해 나가는 것이기에 계속 지원했음. 2017년도까지 갤러리랑 계약을 맺고 아트페어에 참여했고, 이후 김형석 대표의 에이전시에 계약되어 있다. 2017년부터 소속되어 있고, 배틀그라운드 등 기업형 전시를 하게 되면서 이전과 행보가 다름. 소속사 덕분에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음, 상업적이지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함. - 2010년부터 활동을 시작해, 2013년부터 문화재단의 레지던시 사업에 두 달 단기로 참여한 경험이 있음. 청년지원, 레지던시 등 문화재단 혜택을 많이 받았음. 2013년 이후부터 중국, 일본 공공미술에 참여했고, 해외에서 한국작가 초대해서 아티스트 피 (artist fee)를 받고 마을의 스토리텔링 작업했음. 현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대형설치작업 함. 지원금 많이 받음. 그러나 생활적으로 힘들어 부업을 함. 미술, 영상 등 알바를 해서 생활하고 작업함. - 대학원에서 판화를 했고, 2014년 첫 개인전을 했음. 부산문화재단 지원을 받아서 작업을 했었음. 개인전시를 열기 전에는 작업을 안 하고, 시청에서 연수단원 같은 제도가 있어서 활동했었음. 2년 동안 인턴십을 하며 생활이 안 됐고, 다시 작가 활동을 하다가 대학원을 다녔음. 첫 개인 전 후, 일이 잘 풀렸고, 개인 사이트의 조회수가 높으면 작품 문의가 올 수 있구나 생각했음. <p>○ 창작환경(지원금, 지원제도, 창작공간 등)</p> <p>[지원금 및 지원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사업에 지원한 경험이 있었음. 2~3달 정도의 짧은 기간을 보내주는 제도는 작가들 입장에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렸을 때 경험하기에는 좋았다고 생각함. - 예술인 창작준비금 사업이 좋았음. 사용처가 중요하지 않았고,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했음. -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대부분 재단의 신청양식은 똑같음. 차별성이 필요함. - 경쟁률이 오르더라도 양질의 지원이 필요함. 그리고 좋은 전시를 볼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음. <p>[창작공간 및 레지던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 지원사업에 참여했었음. 기존에는 창작공간 지원인데, 물리적인 시간이 확보되지 않았었음. 추후 이 문제가 개선돼 자율적인 프로그램 참여와 의무조건에 대한 자유가 있었음. 하지만, 단기 레지던시기 때문에 작업할 시간이 부족했음. -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 지원사업의 장점은 공유작업실, 제반사항 지원, 다음 기수 작가와의 교류가 많은 것임. 단점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만 공연과 전시를 함. 어느 정도 강제성이 필요한 것 같음. - 시설이 낙후돼서 큰 규모의 작품은 못 들어 감. - 연산동 개인작업실을 사용하고 있음. 건물 전체를 쓰고 있고, 저렴한 금액으로 입주함. - 공간 관련 레지던시를 참여한 경험이 없음. 주변에 홍티 아트센터와 김해 클레이아크 레지던시 참여한 사람들을 보면서 레지던시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했음. 작가 네트워크 형성과 프로모션

참여에 도움이 되는게 부러웠음.

- 온라인 공모를 직접 찾아 치열하게 준비해서 공간지원 사업에 참여했음.
- 울산 사이언스월드 레지던시에 참여한 적 있음. 3주 정도 밖에 안 나가고 작업실에서 작업만 할 수 있음. 온라인 시스템 연결해 카메라 하나만 두고, 24시간 동안 유튜브로 작가 공간과 작업 활동을 공개함. 관람객들이 하루 종일 작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음. 유튜브로 관객과 작가가 소통하기도 함. 작가가 하기 싫으면 마이크를 잠시 꺼도 되고, 굳이 작가가 없어도 되고 빈 공간을 보여줘도 됨.
- 창작공간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제반 공간 제공, 다양한 장르 참여해 콘텐츠 만들면 좋을 것 같음.
- 홍티 아트센터 레지던시에 4년 동안 참여 중임. 3개월~6개월 레지던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 홍티 아트센터는 공동 작업실이 커서 설치나 조각가들이 주로 작업함. 이러한 공간을 사용함으로써 할 수 있는 것들이 확장됨.
- 개인 작업실이 기장에 있음. 부산 중심가의 공간은 비싸기 때문에 작가들이 부산 외곽에 작업실을 구하는 경우가 많음. 그래도 월세가 비싸서 작가 4명이 공동으로 한 공간을 사용 중. 창고 같은 공간으로 사용함.
- 홍티 아트센터를 나와야 하는데 작업물 사이즈가 커서 5톤 차량을 구해야 함. 공간을 다시 찾아야 하는 고민과 이사할 때 비용이 부담이 됨. 그래서 계속 연장을 하게 됐음.
- 기관의 레지던시 사업들은 예술가들을 공무원 개념으로 적용한다고 생각함. 레지던시에 작가들에 대한 제재가 있었음. 그래도 지금은 안정화된 것 같다고 느낌.
- 홍티 아트센터에서 작가 교류가 있었는데, 비평 프로그램을 왜 꼭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공무원 작업실 임대개념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음.
- 에이전시와 연계될 수 있는 루트나, 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 같음. 이런 마케팅 전략을 재단에서 해주면 좋을 것 같음.


○ 유통과 확산

[아트페어]

- 에이전시에서 소속되면서 시각이 달라짐. 아트페어는 고급미술, 나의 예술을 알아달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됨. 주관적인 관점에서 시작하지만, 타인에게 보여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함. 비평도 있지만 대중과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함. 니즈를 생각하는 점이 중요함. 아트페어에서 볼 수 있는 미술품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함.
- 아트페어 같은 상업적 공간에 대한 회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음. 일년 연봉이 3백일 때도 있었음. 학교 수업은 안 하고 작품만 하면서 아트페어에 참여했는데 작품 하나 판매하는 게 다였음. 이때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했고, 해외 레지던스도 중요하데 대중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기술을 생각해야겠다고 결심함.
- 작품이랑 조형물을 동시에 하는 작가를 봤는데, 돈 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많았음. 정치적으로도 개입되는구나하는 생각도 들. 아직까지 관심은 없음.
- 아트페어에 참여한 경험은 없지만, 과학관 아트스 대전에 과학 쪽 공모 지원해 5명이 모여 전시를 진행한 적이 있음. 그 전시를 보고 국립어린이 과학관에서 자문이나 제안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고, 과학 체험과 관련된 작업을 하게 됐음. 이렇게 콜라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힘들.
- 작가들 중에서 판매가 잘 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음. 아트페어를 전략적으로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하고 싶지 않음.
- 아트페어 보다는 작업을 중요하게 생각함.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작업을 보여주는 걸 신경 쓰지 않음.

[유통]

- 삼성과 협업하면서 내 작품이 많은 곳에 유통 됨. 삼성테마에 작업한 이미지가 들어감. 건당 130원 정도의 일부 수익이 들어옴. 하지만, 통과되기 전엔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올 수 있음. 통과가

	<p>되면 수익이 발생. 세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달에 80만원씩 5~6개월 동안 수익을 받았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틀 그라운드에 작품이미지가 활용됨. 사비로 제품을 만들었고, 펀딩에 투자해서 200%팔림. 수익은 얼마 없고 수수료 11%를 받아감. 수입은 많지 않지만 내 이미지를 대중들에게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음. - 미술작품이 비싸니까 고급미술이라고 구매하는 사람들은 작품 구입을 투자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음. - 유통확산에 있어서 자생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좋음. 개인작품의 이미지를 상품화 시킨다면 그런 시스템이 재단에 도입된다면 더 좋을 것 같음. 스타트업 기업의 자료를 많이 참고했고, 조연도 구했음. - 스타트업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낀 점은 작가들은 작품에 대해 주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스타트업은 지표를 가져와달라고 함. 같은 금액을 두고, 그것에 대한 가치를 지표를 통해 증명하라고 해서 직접 증명했었음. - 유통과 확산에 관한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교육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음. - 에이전시를 통한 콜라보 작업이나 자기 작품을 어필할 수 있는 시스템 있으면 좋을 것 같음. - 예술을 온전히 즐기는 것도 있지만 대중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야를 가져야 함. - 저작권, 이용료에 대한 인식, 아이디어에 대한 비용 지불도 있어야 함. 비 물리적인 것에 대한 가치인식이 먼저 중요함. 교육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함. 미술관과 아트페어의 문턱이 낮다는 것에 대한 인식 필요. <p>○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대는 작가하지 말라는 말도 들음. 개인전할 때 빛이 더 생겼고, 50대에는 작업하기 더 힘들 것 같음. - 한국 최초로 프랑스에서 월급을 받는 작가가 있었는데 프랑스에서는 작업과 전시를 하지 않아도 월급을 받는다고 함. 생활할 수 있는 공간 비용도 포함되어 있음. 한국도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아트페어 전시를 하게 되면 불러줄 때까지 작업을 못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선택받지 않더라도 꾸준히 작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 - 온전히 작품에 집중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 - 20대에게도 작가라는 직업을 추천할 수 있어야 함. - 청년들한테 단기 레지던시가 좋은 점도 있음. 작가의 많은 경험을 공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함. -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작품성을 보고 지원을 해야 함. -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원금도 오르고 있음. 하지만, 작가 개인 인건비는 책정하지 않는 것 같음. 인건비를 포함하면 비용이 적다고 생각함. - 창작자와 대중, 졸업 후 활동 등 단계별 구조 지원이 필요함. 대학생 작가들이 졸업 후 자신의 작업 스타일이 완성되기 전까지 도움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음. - 부산문화재단이 에이전시나 기업과 연결해줄 수 있는 방안을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음. 다양한 프로모션과 콜라보를 성사해 교류하면 새로운 예술이 만들어질 것 같음.
<p>현장사진</p>	

[2023 부산 시각예술 활성화를 위한 기초 연구 6차 FGI 회의록]	
날짜	2023. 06. 21.(수) 10:00~12:00(120분)
장소	부산문화재단 3층 나눔방
참가자	- 연구진 및 재단: 원향미, 조영미, 고나령, 김정희, 김연진 - 참 여 자: 신기윤(전업작가), 이재균(현홍티아트센터 입주작가), 이영아(전업작가, 아카이브 포 아티스트 대표), 박한샘(전업작가, 부산대학교 예술강사 출강 등), 진영섭(아트팩토리 비 대표), 양재령(북청화첩)
주요 논의 내용	<p>○ 활동현황(장르, 활동기간, 활동지역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회의 공간(재단 나눔방)에서 전시를 하고 있음. 부산대 대학원 재학 중이며 서양화 전공. 작업시작 한지 1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음. 공모전에 많이 참여했고, 재단에서 진행하는 공모에 참여, 언더36 참여 등을 통해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 창원에서 열리는 아시아 특별초대전을 앞두고 있음. - 홍티아트센터 상반기 단기 입주작가, 사진매체 작업, 사진만 찍고 있음. 매체 특성 자체가 판매가 잘 되지 않음. 지금은 전시 중, 광주비엔날레 등에 참여했음. 9월 시립미술관 기록전에 전시될 시립미술관 테크니션 참여 예정. 본적지는 부산이지만 아트테크니션 위주라 전국적으로 활동함. - 사진 작업을 하고 있음. 2~3년 전부터 시각 작업을 하게 됐음. 장르와 매체 구분하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협업을 하고 있음. - (박한샘) 장르는 평면, 재료는 수묵화, 학교를 서울에서 나와서 서울에서 지내면서 활동했음. 30대 때는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 부산재단처럼 각 지역재단의 공모와 레지던시에 참여한 경험이 있음. 그러다 부산에 인연이 되어 작업함. 부산재단에서 진행하는 시각분야 지원사업 2번 정도 참여. 최근 2~3년에는 지원을 받지 않고 개인적인 작업실을 통해 작업하고 있음. - 금속공예를 하고 있고, 10년 전 부터 공공미술 기획에 주로 참여. 개인전 22번. 코로나 전에는 일본, 중국에서 공공미술 했었음. 코로나 덕분에 개인작업 많이 하게 되었음. 최근에는 개인전 작업을 하고, 지역구와 사업을 진행했음. 외국에서 할 계획은 갖고 있지만 당분간은 개인 작업에 매진할 계획임. - 회화 전공, 30년 동안 학생을 가르쳤고, 그 일을 그만두고 북청화첩에 들어감. 돌아다니면서 여러 일을 하고 있음. <p>○ 창작환경(지원금, 지원제도, 창작공간 등)</p> <p>[지원금 및 지원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많이 받았음. 가장 좋았던 것은 처음으로 접한 아트페어, 언더 39사업, 개인적인 홍보도 하고 작품판매도 했음. 동기부여가 되어 가장 좋았음. 공간 지원과 홍보를 받아서 좋았음. - 재단 지원사업을 받았는데, 전문적인 마케팅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아서 아쉬웠음. - 재단에서 많은 지원 받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 같음. 모든 사업은 도움을 주는 것 같다고 느낌. - 부산문화재단으로 3번 정도 받음. 한번은 창작지원금, 두 번은 창작공간 지원사업비 지원, 또 국제교류 사업(해외 레지던시, 아시아 레지던시 파견사업)을 지원받았다. 그 외 문체부 쪽에 지원받은 적 있음. - 지원사업의 심의제도 개선이 필요함. 1, 2차 심사할 때 심사위원이 계속 바뀌다 보니 맥락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음. 예술위도 전담제 심사함. 장단점이 있지만, 너무 흐름을 모르면 중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직원들이 해결하기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함. - 작가들이 수혜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함. 재단 사업 중 연말에 우수예술지원을 진행하고, 년 초에 좀 더 규모 있게 2차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음. 2차 공모에는 지원을 받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음. 큰 단체가 나와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없어 아쉬움. - 홍티아트센터 입주하고 있음. 레지던시 자체가 네트워크를 능동적이거나 수동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함. 다양한 매체작업 가능함. 지역에 갇혀있는 것이 동시대 미술로서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p>다른 지역 작가들과 네트워킹을 통한 수준 높은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지던시 사업은 단기가 아닌 지속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 같음. 레지던시 있으면서 성과들이 드러낼 수 있는 사업과 부산에 더 많은 레지던시 사업이 생기면 좋을 것 같음. - 2012년 문화예술국제교류에서 아시아 레지던시 사업에 지원해 중국 하이난에 갔음. 비용 3천만 원이 소요됐고, 레지던시로 갔지만 커뮤니티 아트를 했음. 밀림 숲인 하이난 섬에 레지던시 공간이 있었고 프로그램을 같이 하자고 했음. 하이난 대학 등 4개 대학과 같이 매일 프로그램과 세미나를 진행했고 재단에서 감독하러 왔음. 재단이라는 공적인 예술 기관에서 지원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관찰하는 것을 좋게 생각함. - 지금 재단에서 해외지원사업이 있는데, 계속 진행한다는 게 좋은 것 같음. 하지만, 작가들이 7~8명 가는데 지원금 3천만 원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듦. - 코로나 전, 한국 공예디자인 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시카고에 참여(2번)한 적 있음. 지원이 전시경비, 부스비, 항공, 운송포장, 현지큐레이터, 개인통역까지 지원받았음. 이런 사업처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작가들이 지원을 받을 때 만족감이 들었으면 좋겠음. - 공간은 네이밍이 큰 역할 함. 부산재단의 감만창의문화촌은 생각했던 것과 이미지가 다름. 이름에 대한 의문이 들었음. - 작가가 방향이 확실하면 누구든지 활동 가능함. 갤러리 공간의 주변 사람들도 갤러리를 모르거나 전시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음. 작가는 작가대로, 공간은 공간대로, 지역은 지역대로 그것만의 의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 현재 많은 사람들이 찾는 전시공간이 지속 가능한 공간이 되길 바램. 집단 관심 체제가 중요함. - 최근 2~3년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음. 일정의 금액 3백, 4백정도인 것 같음. 최대한 많은 작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음. - 좋은 공간(작품 전시를 위한 시설이 잘 갖춰준 공간)은 임대료 2~3백만 원인데, 작품을 준비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음. 그래서 임대료를 줄이는 방법을 선택, 전시는 하되 아무도 보러 오지 않음. 서울 같은 경우에는 7~8백만 원 정도 지원함. - 부산문화재단이 작가들의 인큐베이팅의 역할로 한정하는지 아니면마켓형성을 위한 것인지 전략이 필요함. 작가들이 지원에 맞춰 신청, 심사까지 에너지를 집중하는데 대비하면 지원금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음. - 20대 말이나 30대 초반에는 인큐베이팅으로써 많은 도움이 됨. 하지만 반복되고 하이엔드 시장으로 진출하려다 보니 이런 방식의 지원이 도움 되지 않음. 부산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도움을 받을게 없음. 인큐베이팅 후 하이엔드시장으로 가려면 작가자신이 자립해서 가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듦. - 작가가 작품을 출품했을 때 누구에게 보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함. 대중예술에 가깝다는 생각이 듦. - 단체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매개자의 부재가 제일 문제. 창작가가 원하는 중간 매개자와 비평가가 있어야 함. 그래야 전시도 변화하고 환경도 변화함. - 부산문화재단 지원사업은 작품을 팔기위한 작가를 지원하는 게 아닌 것 같음. 질적인 측면에서 어려움. - 부산예술인이 의지할 수 있는 곳은 부산재단, 시립미술관이나 시각예술행사(사진제, 비엔날레, 현대미술관 협력 등)인데 부산비엔날레, 각 미술관 가면 부산이 아닌 외부에서 단기적으로 활동하는 비평가밖에 없음. - 큐레이터, 비평을 위한 사업이 있어야 함. 그런 사람과 작가가 협력할 수 있어야 함. 상업과 비상업을 경계를 허물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 - 서울문화재단에 작가, 비평가, 공간운영자가 공생해서 활동 중인 곳이 있음. 중간단계의 큐레이터를 위한 사업, 우수예술지원은 많이 받았지만 공간다운 공간이 없음. 돈을 받았지만 전시하기 싫음. 마땅한 큐레이터를 찾으려면 돈이 많이 듦. - 부산문화재단의 담당자 중에 프로그램을 띄웠을 때 셀링하는 사람(전문작품판매)이 없음. 부산재단에서 전문인력을 확충해야 할 것 같음. - 셀러가 없다고 하는데, 시카고 갔을 때, 갤러리 오너가 셀러로 왔음. 지금은 셀러가 없음. 갤러리 기획이나 전직 활동하는 분들도 있었음.
--	---

[창작공간 및 레지던시]

- 작가가 레지던시 지원하는 이유는 2가지. 하나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무상으로 쓸 수 있어 지원받거나 또 하나는 시장진입을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하기 위해 레지던시 투어를 많이 함.
- 레지던시 실적을 보고 작가 신뢰도 상승함. 레지던시에 들어와서 풀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작가는 신청해놓고 안 가는 경우도 있음. 하지만 이를 계기로 해외 레지던시 참여하는 발판이 되기도 함.
- 부산 레지던시는 플랫폼 역할을 못함. 서울에서는 오픈스튜디오를 했을 때 참여한 갤러리를 보면 비영리단체, 갤러리 등 접근성이 좋아 직접 와서 서치를 함. 부산에서 레지던시를 했을 때 전시오픈, 오픈스튜디오 하면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이 없음. 부산에서는 작가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공간 활용만 하는 경우가 많음.
- 레지던시가 가질 수 있는 강점은 작가입장에서 많은 경험을 한 작가들이 서로 다양한 경험을 한 작가들이 그 정도를 상업화랑, 공공미술 등 커뮤니티를 통한 정보 교환가능 함. 그런 공간에 많은 작가들이 오면 좋을 것 같음.
- 최근 한화에서 가능성 있는 작가들을 찾아서 플랫폼, 좋은 퀄리티 작가 모임, 작가를 서포트 할 수 있는 공간에 레지던시 지원함. 작가들의 자부담 없이 전액을 지원. 한화가 투자하고 문화재단에서 비즈니스해서 따올 수 있었다면 비용적으로 예산의 한계로 지원받지 못했던 작가 지원의 방법이 있을 것.
- 부산에서 대기업, 중소기업이 있으면 메세나 활용해서 부산재단은 프로세스, 기업은 예산지원을 통해서 작가 지원이 되면 좋을 것 같음.
- 레지던시와 지원사업을 확실히 분리하면 좋을 것 같음.
- 미국 케네디 센터는 1년에 지원사업 6백개, 직접 지원사업은 없고 매니지먼트 사업이 강함. 작가출신들이 직접 매니지먼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예술단체 역량을 키우는 게 강점. 인맥을 통해 작가들이 원하는 선배작가들과 긴 시간동안 프레젠테이션을 기회를 가지고, 작가들이 직접 기획 참여함. 장르는 다르지만 서로 내부강사가 되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함.
- 부산에서 일부 보탬을 받아서 작품활동을 하는 건 맞지만 공간다운 공간이 없음. 미술사가 아닌 전시사로 됨. 완성시킬 의지는 있어도 했던 공간에서 또 하고 부산이라는 공간에 갇혀있는 현실. 기업이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면 좋을 것 같음. 부산 미술관은 부산작가들을 외면하는 것 같아 아쉬움.
- 전시를 많이 보지만 재단이 비빌 언덕이 되어야 하고, 각 대학에서 인큐베이팅을 해줘야 하는데 대학에서 하지 못한 것 같음. 아트페어에 가서 보면 부산작가 부스가 있었고, 독립큐레이터가 작가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작가들의 작품 설명을 위한 페이지조차 없었음.
- 큐레이터가 여러 가지 작가들을 담당하고 있었음. 자기 작품을 설명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설득을 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아쉬움. 대학에서 못하면 부산재단에서 하면 좋을 것 같음. 작가들이 1인 기업이라 생각하고 활동해야 함.
- 아시아프(아시아대학생·청년작가 미술축제) 같은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매칭사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음. 공공기관에서 확실히 밀어주면 좋겠다 생각을 함.

○ 유통과 확산

[아트페어, 판매경로 등]

- 아트페어는 사는 사람의 관점에서 작품을 보게 됨. 필요성을 생각. 작가가 자신 작품의 전시기회를 할 때 거기에 맞는 의미를 가지고 설득해야 함. 설득력 있게 이야기해야 함.
- 미술관과 시장에 파는 작품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함. 그러면 그 갭을 공간운영자가 설득력 있게 해야 함. 그 갭을 좁히는 방법을 찾아야 함. 작가가 대중이 뭘 필요로 하는 지 고민해야 함.
- 작가와 기획자가 협업, 서로 합의해서 하면 어떤 식의 페어는 가능하다고 봄. 그만큼의 기획력 있는 기획자가 없어 아쉬움.
- 결국 예산문제, 인프라 문제로 귀결됨. 부산에는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적음. 미술관은 검증된 작

	<p>가, 그 이외에는 그물에 걸리지 않는 작가를 위한 대안공간이 많아야 하는데 예전보다 많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적으로도 예술을 할 수 있는 소규모 공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부산에는 그런 공간이 없음. 부산문화재단에서 그런 공간을 서치해서 플랫폼을 공유해줘서 작가와 연결되면 좋을 것 같음. - 큐레이터는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지는 것이라고 생각함. 팔로워해서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인력이 부산문화재단 내에 있으면 좋겠음. - 판매를 할 만한 공간은 있는데 시장개척이 어려움. 신진작가가 늘 수 있는 놀이터가 있어야 하는데 오래 유지할 수가 없음. 해외는 지원이 많기 때문에 해외로 많이 감. - 작업물이 대중들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각자 도생이 아니라 각자의 생각이 모여서 이야기, 담론을 만들 수 있는 매개가 비평가, 기획자 등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함. - 기획에 대한 부담.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큼. 시행 착오할 때 버티는 힘이 필요한데 재단이 자리 잡을 때 까지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음. - 문화예술의 목표는 작품판매를 떠나서 작가들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미적체험, 경험을 주는 게 의미가 있고 중요함. 이 사업은 부산문화재단이 운영하기에는 여러 문제가 있을 것 같음. <p>○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기회를 통해 부산문화재단, 부산시에서 갖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 청년작가이기에 성장단계에서 초입에 들어가기에 좋다는 생각을 느끼고 있음. 이후 나이가 들어 지속성 등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됨. - 청년예술작가공모가 많은데 대학원생이라 전시공간도 없기 때문에 고민, 나이제한에 대한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음. - 미술관에 작품이 소장되고 싶음. 지원받을 때마다 감사함을 느끼고, 보탬이 되어 좋았음. 재단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좋은 정책을 내면 좋을 것 같음. 계속 부산에서 활동하고 싶음. -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었고, 방향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음. - 20~30대 때 공공지원을 많이 받으면서 작품을 판매하지 않고도 활동할 수 있었음. 한국만큼 공공기금이 잘되어 있는 나라는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음. 잘 받기 때문에 그만큼 작가활동을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함. - 일본은 작가들 지원제도가 없고, 중국은 당에 협조적인 작가를 지원. 문화재단은 끊임없이 정부나, 시에 포트폴리오를 해서 스스로 증명해야 함. 그럼에도 재단은 큰 꿈(작가보다는 시민을 위한 재단)이 되어야 함. 그런 철학을 표방했으면 좋겠음. - 문화재단은 다리역할을 해야 함. 부산시민의 돈을 가지고 이 사업을 왜 하는지 의문을 갖는 사람도 있음. 재단이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큰 틀을 잡아주면 나머지는 작가가 자유롭게 활동하게 하면 됨. 대신 심사를 까다롭게 해야 함.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고 작가가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음.
<p>현장사진</p>	

부산 시각예술 활성화를 위한 기초 전략 수립 연구

발행인 이미연

발행처 부산광역시, (재)부산문화재단

연구기획 (재)부산문화재단 예술지원팀, 정책연구센터

연구수행 (재)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문화와 예술 다다

발행일 2023. 7. 31.

부산문화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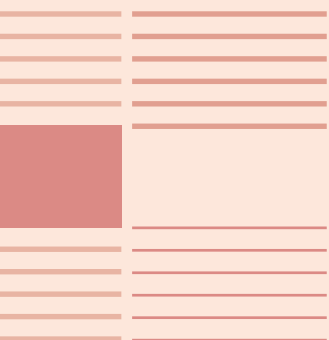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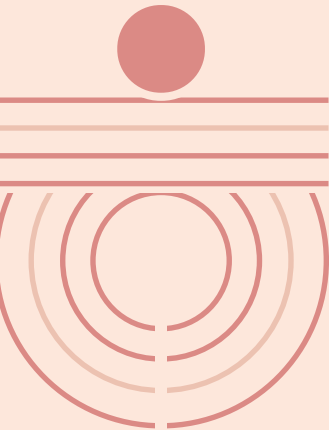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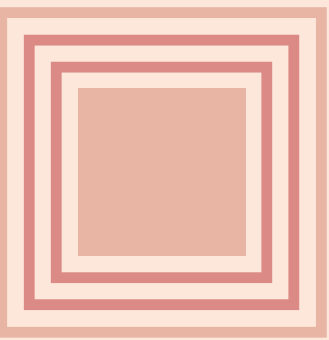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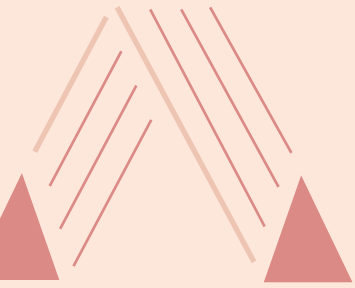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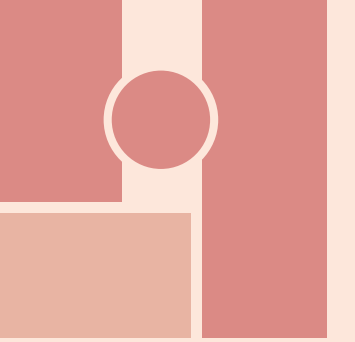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

홈페이지 <http://www.bscaf.or.kr>

전화 051-745-7205~7(정책연구센터)

위 저작물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를 준수할 경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매품/무료
93300



9 791197 639890
ISBN 979-11-976398-9-0